廣州文化

1998 第9號



廣州文化院

문예 중흥 선언문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문화창조의 사명을 절감한다.

한 겨레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원적 힘은 그 민족의 예술적 문화적 창의력이다. 예술이 창의력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문화가 자주성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신라통일의 위대한 업적과 세종시대의 문화창조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유산을 개발하고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문화를 창조한다. 맹목적인 복고경향을 경계하고 분별없는 모방행위을 배척하며 천박한 퇴폐풍조를 일소하여 우리 예술을 확고한 전통속에 꽃피우고 문화를 튼튼한 주체성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영광된 겨레의 내일을 위하여 가치의식과 사관(史觀)을 바로잡고 표현의 자유와 문화의 자주성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문화의 전당을 세워 온겨레가 함께 예술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자신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세계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문화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인류문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예술가 모든 문화인들은 온국민과 동참하는 대열에 서서 예술과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정성을 다해 문예중흥을 이룩할 것을 선언한다.

1973년 10월 20일



산 너머 저편

—독일 붓세—

산너머 저편 하늘 저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지만,
아! 남 따라 행복을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 왔다네.
산너머 저쪽 하늘 저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들하지만.

광주 군민헌장

우리광주는 백제의 찬란한 역사가 꽃피던 고장이며 수도 서울의 관문이다.

유서깊은 남한산성과 아름다운 자연이 자랑스럽고 기름진 산과 들에 오곡과 산림이 풍성하며 민심이 온후하고 살기좋은 고장이다.

우리는 여기에 정성을 다하여 땀을 뿌려서 자손만대에 빛날 무궁한 복지를 이룩하자.

군민의다짐

첫째 : 따뜻한 가정 정다운 이웃 명랑한 고장을 이룩하자.

둘째 : 알뜰하고 부지런하게 서로 도와서 보다 나은 내일을 이룩하자.

셋째 : 온 군민이 한 가족처럼 단결하여 살기좋은 새 광주를 건설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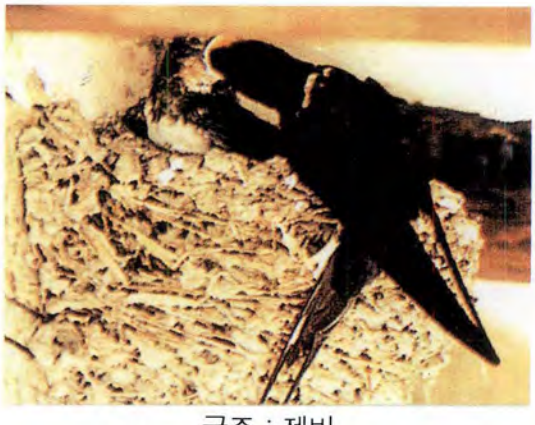
광주군의 상징(象徵)



군기



군목 : 은행나무



군조 : 제비



군화 : 개나리

광주의 노래

양동해 작사
이원일 작곡
천기상 편곡





박용재 원장 취임식 광경(98.7.25)



박경득 원장 이임식 광경(98.7.25)

화보 이모저모

〔군민의 날 및 문화의 날 기념행사〕



어머니 합창단의 합창



부 채 춤



실촌면 부녀회 풍물놀이



광주종고 풍물놀이



광주종고 여학생 풍물놀이(9.28)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물놀이(9.28)



제3회 남한산성 문화제 개회식(98.10.23)



숭열전 제향 헌관(98.10.24)

화보 이모저모



북 춤



전통 혼례식 광경



줄 타 기



대동 굿(작두타기)



대동굿의 한 장면



초등학생 사생대회(지시사항을 듣고 있음)

〔광주 왕실 도자기 축제 98.10.17～10.25 〕



도자기 축제에 참석한 내빈들(교육부장관 · 도지사 · 교육감 · 국회의원 · 군수외 다수)



도자기 축제 개막식 공연

화보 이모저모



궁중 전통 다례시연

〔왕실 도자기 축제〕



지역 주민이 직접 도자기를 만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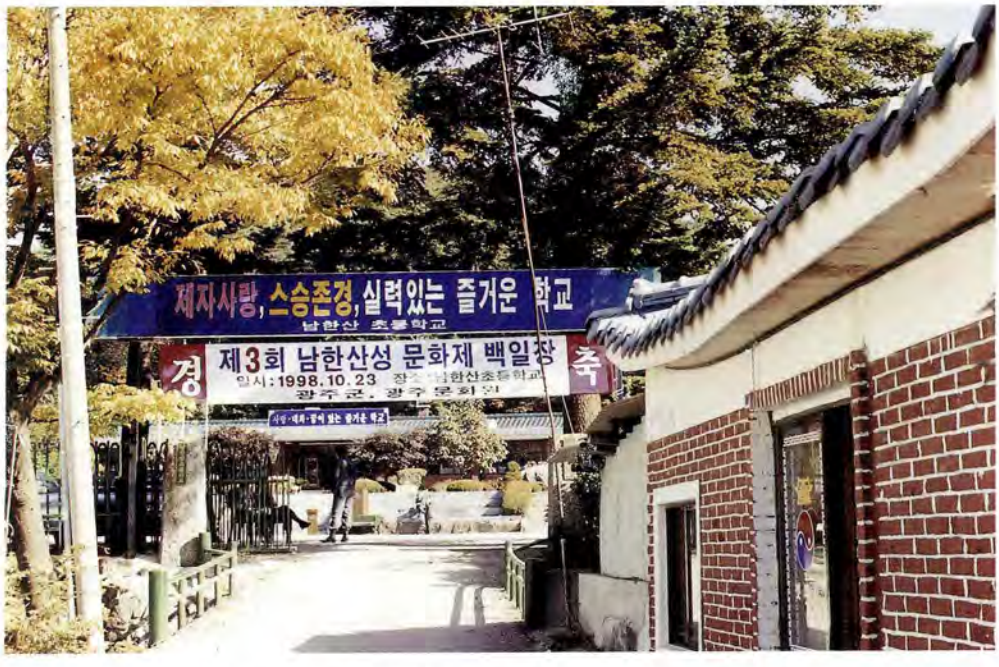


해공 신익희선생 추모행사(98.5.5)



관외 유적지순례(해공선생 묘소) 수유리

화보 이모저모



중학생 백일장(남한산 초등학교에서 98.10.23)





문화원 임원・회원 유적지 탐방(파주 율곡기념관 앞에서 98.10.28)



청소년 유적지 탐방(강릉 오죽헌 98.8.18)

화보 이모저모



충효도의선양 교육(광주종고에서 98년12월5일)



문화원 회원들의 근거리 유적지 순례 (4·19학생묘지 앞에서 98·6·30)



문화 가정 교양 강좌(11.17 전보삼 교수)



다도와 전통예절 연수(11.17 정옥희 선생)

화보 이모저모



서 예 강 좌(3월~10월)



사진반원들의 작품 전시회(문화의 날)



문 학 강 좌(구중서 교수)



옛길찾아 도보탐방(오전리)

화보 이모저모



문화원 회원들의 산성 성곽 순례



한글학자 김윤경 박사 묘소참배(98.5.5)

차 례

문예 중흥 선언

서 시

광주군민헌장 · 군민의 다짐

광주군의 상징 「광주의 노래」

화 보

발간사－문 화 원 장/박용재……27

축간사－국 회 의 원/정영훈……28

〃 －군 수/박종진……29

〃 －군 의회의장/최정민……30

이임사－전 문화원장/박경득……31

우리 고장의 사적

맹사성 정승의 묘지내력……32

병자호란 쌍령리 전투와 안동영장 선세강 사적……34

한말 광주 의병의 남한산성 전투……40

고독의 한을 시로 수놓은 여류문인 허난설헌……44

우리 고장의 인물

국어학자 남광우 박사……50

역 사 의 인 물

청사에 빛나는 불굴의 충혼들(사육신 · 생육신)……54

충무공 이순신 장군 400주기……64

논 단

다산 선생의 문학과 사상/문학박사 김지용……66

옛 문서에 관심을 갖자/성창수……71

"전통문화 발굴 보존해야…" /문화원장 박용재……73

율기의 윤리/주진성……75

광주군의 발전/홍광석……78

향 토 문 예

시 · 시조……79

수필……85

기행문 ····· 89
학생문예 ····· 95
꽁트 ····· 103
명시 3 선
낙엽. 세월이 가면. 살구꽃 핀 마을 ····· 112
문 화 상 식
대한민국50년 문학50년 ····· 115
대한민국50년 영화50년 ····· 119
규장각 ····· 120
옛 이 야 기
남이(南怡)장군 분면귀(粉面鬼)로 인하여 장가 들다 ····· 123
도둑이 양민으로 ····· 126
친구다운 친구 ····· 129
교 양
겸손하고 교양있고 예의바른 세계인이 되는 길 ····· 130
상 식
상례(喪禮) ····· 132
성격파탄의 주범은 과잉보호다 ····· 137
건 강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10가지 방법 ····· 139
콜레스테롤 ····· 141
혈압조절 ····· 143
치매 ····· 145
수돗물 불화사업의 필요성 ····· 147
늙으면 설치지 말고 ····· 149
내 고 장 소 식
98 민선자치 제2기 광주군정추진주요성과 ····· 150
1998년도 광주군문화상 수상자 ····· 151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명단 ····· 153
문화원 5대 사업 실적 개요 ····· 154
문화재와 기념물
광주군 문화재 보유현황 ····· 158
문화 유산 현장 ····· 159

발 간 사



엄청난 수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광주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때, 지난 7월에 문화원장에 취임하여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전 박경득 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님들이 이룩하신 문화사업을 계승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일천하여 이렇다 할 업적을 구현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문화는 인류사회의 발전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정신적 문화발전이 따르지 못하는 경제적 발전은 그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한국이 오늘날 ＩＭＦ시대에 봉착하게 된 것이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뒤떨어진 우리의 정신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통감하게 됩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생활문화의 창달은 더욱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취임후 문화의 날 행사를 비롯하여 옛길찾기, 충효도의 교육, 남한산성의 역사적 홍보, 문학강좌등 다채롭고 새로운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구상하여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문화원에 대한 광주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특히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문화인·문화원가족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문화원 조직의 확대, 활성화에 적극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책이 나오기까지 편집에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옥고를 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8년 12월

광주문화원장 박 용 재

광주문화 제9호 발간 축사



IMF 사태이후 문화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지역주민의 문예창작 의식을 고양시키고 정서를 함양하여 수준높은 지역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창간된 광주문화 제9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학이야말로 저마다의 가슴속에 감추어진 회한과 그리움을 글로 가꾸어 여러 사람들에게 설레임과 감동을 주는 문화예술의 진수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광주문화원에서는 그동안 문학에 목말라하는 광주군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역사인물 소개, 백일장, 문화제 및 각종 향토문예와 우리고장의 소식 등 문학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토양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의 향기가 곳곳에 스며들어 문화복지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게 되었으며, 광주사람들이 광주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보다 두텁게하고 새롭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알의 밀알이 떨어져 싹이 트기까지는 온갖 시련과 풍상을 인내하듯이, 한편의 시나 수필이 탈고되기까지를 출산의 고통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렇듯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자신을 나타낸 주옥같은 작품들이 모여 엮어질 때마다 우리 지역은 알찬「문화광주」로 한걸음 더 발돋음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우리의 메마른 정신문화를 살찌우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군민 모두가 끈끈하고 훈훈한 정을 느끼며 하나됨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좋은 작품을 내주신 작가 여러분과 문학애호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광주문화지 9호가 발간될 수 있도록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 12월

국회의원 정 영 훈

축 간 사



우리 광주군은 백제시조 온조왕의 역사가 꽃피던 고장으로서 옛 선현들의 흔적과 숨결이 여기저기 배어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간직해온 살기좋은 효의 고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연적인 혜택을 받은 우리고장 광주가 현대화 물결속에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난무하는 현실에 묻혀 우리 향토문화는 독자적인 문화상을 정립하지 못한채 우리의 기억속에서 잊혀져 가고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향토사료를 수집, 발굴하고 우리 광주군 문화사를 새롭게 조명해 주고 있는 광주문화지가 제9호를 발간하게 되어 우리에게 큰 희망과 자긍심을 일깨워 주고 있는것에 대하여 11만 군민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유서깊은 광주에서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물려받은 문화유산과 향토문화를 아끼고 사랑하여 후손에게 올바르게 물려 주어야할 책임이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의무일 것입니다.

21세기를 열어갈 현시점에서 이제는 물질문명보다 정신 문화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선진국민에 걸맞는 우리의 모습을 찾을 때입니다.

이에 향토문화 창달과 문화군민 함양에 광주문화지가 함께 실과 바늘의 역활로서 광주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광주문화지 제9호가 간행되기까지의 심혈을 기울여주신 박용재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2월

광주군수 박 종 진

축 간 사



조상의 얼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고장 광주군의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광주문화 제9호" 발간을 11만 광주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ＩＭＦ사태로 인하여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대량 실직사태로 인하여 행복했던 가정이 파괴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제1회 분원 왕실 도자기 축제"와 "제3회 남한산성 문화제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광주군의 찬란한 역사를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알려 광주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제27회 광주 군민의 날 기념 및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ＩＭＦ로 위축된 11만 광주군민의 마음을 달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11만 광주군민이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으며, 청소년들에게는 광주군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군에서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남한산성과 궁중 진상품으로 널리 알려진 조선백자 등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깊게 연구하고 널리 알리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한산성을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되새기는 학습의 장으로 만들며, 조선백자 등 광주군 문화유산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관광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틀마련에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광주 문화 제9호" 발간을 위하여 애써오신 박용재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문화지가 광주군민의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광주군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에게는 광주군의 역사를 다시 배울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어 "예와 효의 고장" 광주군의 유일한 문화 전문지로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998년 12월 일

광주군의회 의장 최 정 민

이 임 사



지금부터 9년 4개월전인 1989년 4월에 이훈종원장의 후임으로 문화원장에 취임하여 광주군청 별관2층 골방에서 업무를 보다가 1990년 심계택부원장이 희사한 땅686평에 국고와 군비의 지원을 받아 현 문예회관을 건립하고 이사를 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딴에는 광주문화 발전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노력하였고 또 지역사회 여러분들의 후원도 많이 받았으나 역부족하여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퇴임하게 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文化의 발전은 사회발전을 주도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며 또 문화생활의 활성화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文化의 중요성은 참으로 지대한 바 있으나 아직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아 문화원 운영상 애로도 많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기억에 남는 일들을 돌아보면 우리고장 人物인 실학자 안정복선생과 한글학자 김윤경박사의 업적을 상세히 조사하여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였고 광주군지의 요약편이라 할 수 있는「내가사는 광주」책자와 향토사료집을 발간한 일과 병자호란 당시 전사한 장군들을 모신 대쌍령리의 정충묘를 복원하게 한 일, 그리고 군내 10여개 큰 산에 표석을 세운것들이 다소나마 위안이 되기는 합니다.

다행히 본인의 후임으로 추진력이 강하고 유능한 박용재 원장이 취임을 하게 되어 앞으로 광주문화원의 활성화가 기대되기에 든든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동안 문화원 운영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박종진 광주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기관장님, 사회단체장님, 여러 이사님, 그리고 회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퇴임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7월 25일

전 문화원장 박 경 득

우리 고장의 사적①

맹사성(孟思誠) 정승의 묘지 내력

고불(古佛) 맹사성(孟思誠)정승의 장지암시(葬地暗示)의 기적(奇蹟) 사패지지(賜牌之地)를 결정한 사연

古佛의 연세가 75세가 되자 더이상 벼슬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오히려 나라일에 지장이 될것을 생각하여 세종대왕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세종은, 『대신같은 훌륭한 분이 조정에 더 머물러 나라 일을 보살펴 주고 나를 도와 주시오』하고 만류하였다.

그러나 고불은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나이 75세이니 이제 田園으로 물러가 여생을 휴양이나 하다가 가겠다고 극진히 진언하여 마침내 좌의정으로 그 벼슬의 막을 내리셨다. 세종은 중신을 조정에 더 머물러 있게 하고자 하였으나 워낙 75세라는 노구에 무리한 부탁을 더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허전함은 한 팔을 잃은 것 같았다.

세종은 사성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문무백관이 모인 자리에서 고불의 일생을 치하하고 아쉬운 작별연을 성대히 끝마치고 하는 말이,

『비록 경이 조정을 떠난다 하더라도 가끔 조정에 나와 나를 도와 주고 고문역활을 해주시오』 했다. 세종의 간곡한 부탁에 고불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어찌 소신의 몸 편함만 생각하오리까, 비록 이자리는 그만둘지라도 가끔 뵈옵고 성은에 보답하겠나이다.』 하고 고향인 온양에 와서 한가히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 서울에 올라와 왕을 뵈워 국사를 의논하기도 했다.

이 때 시골에서 한가한 날을 지내면서 지은 시가 저 유명한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이다.

고불이 연세 79세가 되자 더욱 몸은 쇠약해지고 노환이 더하여 서울에 와서 치료를 해 보았으나 끝내 그 보람도 없이 세종 20년(서기 1438년) 10월 4일(乙卯) 세상을 뜨셨다. 이때 연세가 79세, 생각해 보면 고려조때 그것도 고려가 쇠퇴하여 세상이 어지러운 시기에 태어나시어 끝내 고려가 망하고, 이조가 건국은 하였으나, 당시의 사회상이 안정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창의와 인내와 기지로 대처해야 할 어려운 시기에 벼슬살이를 하여 청렴과 결백으로 일관, 오직 백성을 위하는 일에만 전념하였으니, 고불의 일생은 고난과 시련과 영광이 뒤범벅이 된 가시밭길의 일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학문과 높은 충효사상, 탁월한 정치력, 결백하고 청렴한 행동철학, 온후하고 자애로운

성품으로 만민의 존경을 받았으며, 이조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인간의 제한된 목숨은 그 훌륭한 고불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쳐 보아도 100년 살기가 힘들다. 욕심이야 한없는 생과 한없는 영광이 필요한 것이겠지만 우주 만물이 나타났다가 가고, 갔다가는 또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윤회과정이라면 가장 실감있게 느끼는 것이 인간이 마지막 가는 길일 것이다.

10월 초4일, 가을도 깊숙히 그 모습을 감추고 초겨울 이슬이 서리로 탈바꿈하는 신선한 때다. 고불의 부음(訃音)을 전해듣고 세종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문상(問喪)을 했다. 그리고 장례식은 정부에서 치루어 주기도 하고 고불의 영전앞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어 고불의 영구는 고향인 온양으로 일단은 가야 했기에 오색이 찬란한 영구를 나졸들이 메고 온양으로 향하던 중 경기도 광주땅 판교(板橋)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영구는 휴식를 취했었다. 이때 갑자기 회호리 바람이 일어나 명정(銘旌)이 날랐다. 이 명정은 순식간에 공중을 맴돌드니 어디론가 날라가 버렸다.

명정은 산을 넘고, 따라가 보니 직동(直洞) 해좌(亥坐) 언덕에 떨어지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이말을 전해들은 세종은,

『이는 반드시 국풍(國風)이다. 그리고 그곳은 길지(吉地)이니 이 자리에 고불의 산소를 써라』 이래서 지금의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직리에 삼십리 사패지지(三十里 賜牌之地)로 삼았다 한다.

고불이 서거하자 그가 타고 다니던 검은소(麟牛)는 주인잃은 슬픔에 3일간을 먹지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니 이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니며 고불이 그 얼마나 검은소를 사랑했기에 말못하는 짐승이 주인이 죽자 자기도 고통을 참아가며 굶어죽었으랴, 그래서 그 검은 소를 장례를 치뤄주고 그 무덤을 흑인우총(黑麟牛塚)이라 이름지어 주고 해마다 벌초를 해 주었다 한다. 그러나 지금은 도로를 개설하는 바람에 소 무덤의 흔적이 사라져 버렸다.



우리 고장의 사적②

병자호란 당시 쌍령리 전투와 안동영장(安東營將) 선세강(宣世綱) 사적(事蹟)

공은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고 또한 문학을 뛰어나게 잘 하였으며 시를 짓는 재주가 특별했다. 8남매가 서로 사랑하며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났고 4형제가 산방(山房)에서 과거공부에만 전심하셨다. 그러던 중 가정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자 공은 공부를 중단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부모님을 봉양하기에 진력하였다. 그런던 중 무과에 급제하여 처음 벼슬로 검모포만호(黔毛浦萬戶)로 갔다가 임기가 만료되어 다른 벼슬로 전근케 되어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어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여

天際白雲家遠在　地邊靑草夢頻回

『먼 곳 집 있는 쪽 하늘에는 흰구름이 오락가락하고 연못가에 푸른 풀은 번번이 고향집의 꿈을 꾸게 하는구나』

라는 시를 짓고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와 10여년간을 가사를 돌보며 부모님을 봉양하기에 힘썼다.

만년(晩年)에 다시 벽단검사(碧團僉使)를 지내고 경기감영(京畿監營) 중군(中軍)으로 있을 때 영평산성(永平山城)을 감축(監築)한 공으로 정3품 통정대부로 특진되었고 홍주영장(洪州營將)으로 부임했다가 얼마 후에 안동영장으로 전임되던 해에 마침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청나라 오랑캐들이 풍우(風雨)같이 압록강을 건너서 7일만에 서울을 침범한기에 이르렀고, 왕의 어가(御駕)가 남한산성으로 옮기셨다는 상부로부터의 통첩을 받고 근왕병(勤王兵)을 영솔하고 출전하려 할 때 막내아들 척(滌)이 따라가기를 원하니 공은 이를 중지시키면서 말하기를

『나라일이 위급하니 내가 죽는 것은 틀림없다. 네가 나를 따라온다 해도 나를 구할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죽게 되면 너 역시 죽을 것인데, 네형들은 멀리 고향에 있으니 내가 죽은 뒤에 누가 사체를 거둘것이냐? 이것이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할 첫때 조건이요, 또한 내가 진영을 떠난 뒤에 누가 여기 남아서 본부(本府)와 연락할 것이냐? 이것이 네가 종군(從軍)하지 못할 둘째 조건이요, 이 극한(極寒)에 군사들이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소주(燒酒)뿐인데 네가 나를 따라오면 누가 소주를 만들어 수송하여 주겠는냐? 이 역시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할 셋

째 조건이다.』

그러하니 무익한 종군을 중지하고 진영에 남아서 후방의 일들을 잘 보살피여 군사들의 보급품 수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힘써라 하니 아들 척(滌)이 눈물을 흘리면서 공의 말대로 진영에 머물러 공께서 하던 모든 일을 대신 처리하며 출전한 군대의 후방 임무수행에 힘썼다.

공이 안동진영을 출발한 수일 후인 인조 15년(1637) 정월 3일에 광주 쌍령에서 상장(上將) 허완(許完)의 작전실책으로 순절(殉節)하시니 이때의 나이 61세였다. 패보(敗報)가 안동진영에 이르렀을 때 공의 장남 오(澳)와 2남 순 두사람이 대란이 일어나 공께서 출전한 소식을 전해 듣고 고향 장흥으로부터 밤을 도와가며 안동에 도착하게 되어 같은날 공의 순절한 부음(訃音)을 듣게 되었다. 3형제가 서로 붙들고 통곡 망극한 것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으며, 즉시 공의 시신을 모셔오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싸움터로 가서 공의 시신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청나라 군사가 아직도 이 일대에 진을 치고 있는지라 잠시 중단하고 우선 막내 아우 척(滌)을 데리고 안동에 있던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도중에 선새강공을 수행하던 급창〔及唱 : 병사의 직명)으로 있던 모리금(毛里金)을 만나니 그는 공의 대검(帶劍)을 울면서 바치며 말하기를

『소인이 영감을 수행하였다가 혼자 살아서 이곳에 오게 되니 호천망극에 다시 무슨 말씀을 올리겠읍니까?』

하고 땅에 엎드려 통곡하니 3형제도 같이 붙들고 통곡하였다.

한참후에 울음을 그치고 정신을 차리며 행군할 때의 일과 패전할 때의 일을 자세히 물으니 모리금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창황중 일을 어찌 다 말씀하겠습니까마는 그 대략을 말씀드리오면, 공이 진군도중에 경상좌병사 허완(許完)을 중로에서 만나 양군이 합하여 진군하다 광주 쌍령이란 곳에 도착했는데, 그 때 영감께서 산위에다 진을 치자고 하니까 허완은 늙고 병들어서 추위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산골짜기에다 진을 치자고 주장한 모양입니다. 영감께서 같은 진중의 친족 되는 군관 한분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인이 엿들었더니 이와 같이 국가의 운명이 위급한 때에 있어 임진대전(臨陣對戰)할 때에는 수시로 제책(制策)하여야 하는데 지금 적병은 기병이요 우리는 보병일 뿐더러 적은 수가 많고 우리는 수가 적은 터이라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산위에다가 진을 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장되는 좌병사가 산골짜기에다 진을 치려고 하니 우리 측이 반듯이 패하고 말것이다. 그러나 주장의 말은 깊은 골짝에다 진을 쳐서 적이 우리의 군세를 모르게 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

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형편 되어 가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과 같이 말씀하시던 그 친족 되시는 군관은 판관 선약채(宣若采)라는 분입니다. 공과 같이 쌍령에 도착한지 하루만에 오랑캐들이 기병을 앞세우고 쳐들어 온다는 말을 듣고 좌병사는 자기 주장대로 산골짜기에 진을치고, 우병사 민영(閔泳)은 영감의 의견을 좇아 산위에다 진을 친 후, 앞에 있는 큰 길에 목책을 높이 쌓고 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다음날에 적의 기병이 와서 우리 군대의 허실을 탐지한 후 밤중에 후방으로부터 기습하니 후군(後軍)이 먼저 무너지고 산골짝에 있던 우리 군사는 앞에 있는 목책을 허물고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채 쓰러져 죽는 사람의 사체가 산처럼 쌓이니, 영감께서는 휘하군사를 영솔하시고 죽기를 다하여 싸웠으나 모두 쓰러지고 남은 군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영감곁을 떠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공에게 화살을 바치면서 본즉 영감께서는 무수한 적병을 사살하셨으나 화살이 다 떨어짐에 다시 칼을 뽑아 드시고 적진속으로 나가시어 또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적병을 베어 죽이셨습니다. 이 싸움에서 영감께서는 적의 화살을 가슴에 여러번 맞으셨는데도 그 때마다 화살을 뽑아버리시고 피가 흐르는 상처를 만지실 사이도 없이 조금도 뒤로 물로서지 않으시고 적병을 무찌르시는데 있어 용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워낙 적병의 수가 많아 힘이 부쳐 적병의 칼에 머리를 다치시고 기진하시어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이 때 적병이 목책에다 불을 놓고서 군사들의 시체가 불속에 휩싸이게 되었으나 영감이 계신데까지는 불길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불을 놓은 뒤에 적병들은 또다시 우영으로 향하였으나, 우병사 민영은 산위에 진을 친 까닭으로 활을 쏘고 돌을 굴려 버리니 적병은 접전하지 못하고 퇴거하였습니다. 소인은 영감께서 독전하실때는, 항상 곁에 좇아다니다가 영감께서 땅에 쓰러지신 후 시체가 쌓인 속에 숨어 있다가 적병이 우영(右營)으로 향한 뒤 가만히 일어나서 영감 계신 곳으로 가서 보니, 영감께서는 칼을 손에 잡으시고 누워 계신 채로 눈을 뜨고 보시더니

『네가 모리금이 아니냐? 네가 종시 내 곁에서 떠나지 않고 시체가 쌓인 곳까지 와서 나를 찾으니 참으로 의사(義士)로다. 내가 죽는 것은 한이 없으나 군대가 이미 패하였는지라 장차 나라일이 어찌 될는지 걱정이구나!』

라고 탄식하시고 잡았던 칼을 나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칼은 영편산성(永平山城)을 쌓은후 그 공으로 왕께서 주신 어사검(御賜劒)이다. 이칼은 소홀이 버릴수 없는 것인니 네가 우리집에다 전해 다오 하셨나이다.』

하며 전하는 어사검을 받은 삼형제가 통곡하면서 칼날을 보니 이가 많이 빠져 있었다. 그 이유를 모리금에게 물은즉 적병을 무찌를때 워낙 많은 수의 적을 베인 까닭에 상한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쌍령전투 당시의 진도(陣圖)와 공께서 홀로 싸우시다가 순절하신 장소를 도면으로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삼형제가 그 도면과 어사검을 받들고 고향집으로 돌아갔다가 청군들이 다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쌍령으로 떠났다. 여러날 만에 진지 부근에 도착하니 길가에서 한 농부가 말하기를

『지금 해가 져서 시신을 찾기 어려우니 우리 주인집으로 가서 쉬시고 내일 밝은 날 찾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므로, 그를 따라 주인집을 찾아갔더니 주인이 극진히 후대하는 것이었다.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진지쪽을 바라보니 쌓인 시체는 산꼴짜기를 덮었는데, 겉에는 흰눈이 덮힌것 같아 가까이 가서 본즉 적병이 불을 놓아 타 버린 시체위에 산새들이 모여 들어 똥을 눈 까닭이었다. 그 곳에서 모리금이 그려준 도면으로 공의 시신이 있는 곳을 즉시 찾게 되었다. 찾고 보니 얼굴은 살아 계실 때와 같았으나 가슴에는 화살자국이 많고 머리에는 칼자국이 낭자하였었다. 각지(角指 : 화살을 쏠때 손가락에 끼는 골무 같은 것)는 엄지손가락에 낀 채로 있었는데 한 켤레의 신으로 머리를 괴고 거적으로 시신을 덮어 놓았기 때문에 날짐승들의 피해는 다행히 받지 않았다. 거적으로나마 이같이 시신을 보호한 것은 필시 모리금의 성의라고 추측되었다.

그리하여 현장에서 곧 염습(殮襲)하여 잠시 어제 쉬었던 주인집으로 운상(運喪)하였더니 주인이 여러번 치하하면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수시(收屍)한 사람이 없는데 유독 공의 시신은 수시(收屍)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공의 충렬히 천지를 감동케 한 까닭이리라』

하고 그집 내청에다 안치케 하여 주었다. 주인의 후의에 따라서 2일간 머무르고 3일후에 출발하니 돌아가는 길에 지나는 곳마다 공의 충렬을 듣고 애석해하며 후대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어 인심의 의(義)를 추모함을 볼 수 있었다. 쌍령을 출발한지 21일만에 고향집에 도착하여 성빈(成殯)하고, 명정(銘旌)을 안동영장으로 썼으나 장례모시기 전에 조정에서 병조참판으로 증직(贈職)한다는 교지(敎旨)와, 공의 아버님에게도 가선대부 병조참의로 추증(追贈)한다는 교지가 도착한 까닭에 명정을 병조참판으로 개서(改書)하였다.

그러나 공이 생전시 기록하신 진중일기가 필히 있을 터인데 돌아가신 뒤에 하나도 전하지 않으니 애석한 일이다.

—보성 선씨 5세 충의록(寶城宣氏 五世 忠義錄) 중에서—

湖南續義錄卷之五上

丙子義蹟

殉節諸公事實

宣世綱字士舉號梅谷寶城人按廉使允祉後贈奉
參議鳳章子萬曆癸卯武科戊午除碧園僉使
遷為京城中軍等城有功陞營將丙子為左立使許琓
中軍至雙嶺請山上結陣主將不聽陣于谷中及敗督
率麾下兵殊死力戰殺賊甚多矢盡力窮為賊鋒所傷
握劒伏地授劒官卒毛裏金曰此劒即 御賜者不可
徒棄汝當歸遺家人言訖而卒 上嘉之贈參判立祠
一長興

敎旨

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
同知義禁府事訓鍊院都
正行折衝將軍安東鎭前
營將討捕使宣世綱贈資
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
禁府訓鍊院事者

崇禎紀元 一月 日

侍

우리 고장의 사적③

한말(韓末) 광주의병(廣州義兵)의 남한산성 전투

지금의 남한산성은 362년전(1636) 인조때 병자호란으로 청군이 침공(侵攻)했으나 47일간이나 항전(抗戰)하다가 무기와 식량이 모자라 청태조에게 항복했던 산성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부터 102년전 1896년(고종33년) 구한말 의병 2,000여명이 남한산성에 진을 치고 관군(官軍)에 항거하여 20여일간 머무렀던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으므로 당시의 자세한 상황을 소개하는 것임.

그때의 의병은 단순한 항일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이러난 것만은 아니고 지방관리들의 학정(虐政)과 일본·러시아 ·프랑스 등의 침략에 항거하여 1894년 전봉준이 주동이 된 동학란(東學亂)의 여세(餘勢)에다 1895년 일본인이 민비(閔妣)를 살해한 을미사변(乙未事變)과 단발령(斷髮令)을 계기로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관군(한말의 정부군)과 전투를 한것임.

1896년(고종33년) 1월 18~19일 광주부근의 괴현(傀峴)·장항(障項)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의병들은 2월 13일 이현(梨峴)에서 200여명으로 편성된 관군의 습격을 받게 되었다. 의병진(義兵陣)에서는 미리 관군이 습격해 올 것을 알고 의병들을 매복시켜 유격전(遊擊戰)을 벌이여 적에게 타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살이 에이는 듯한 추위속에서 강한 서북풍을 안고 싸워야 했으므로 강력한 무장과 좋은 보급조건을 갖춘 적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전세(戰勢)가 불리하게 되어 결국 의병진은 큰 타격을 입고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의병부대의 지휘부에서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의병을 재소집 수습하여 그해 2월 25일 다시 옛 주둔지였던 이현(梨峴)으로 모여 들었다. 구연영(具然英) 전구석(全龜錫) 김태원(金泰元)등 간부들은 광주를 비롯한 이천·양근(楊根)지방에서 모집한 포수(砲手)·자원병들을 거느리고 왔으므로 사기가 다시 살아났다. 특히 이에 앞서 광주지방에 근거지를 두었던 의병들은 당시 광주군수 박기인(朴基仁)을 처단하고 왔으며 의병부대를 결성하는데 주동자의 한사람이었던 김하례(金河禮)와 여주의병장 심상희(沈相禧)와 상의하여 여주의병의 병력일부를 거느리고 이현(梨峴)으로 왔다. 그리하여 당시 이현에 모인 각지의 의병 연합

병력은 2천여명을 헤아려 진중의 형세가 다시 크게 떨쳤으며 의병부대의 지휘부도 다시 크게 사기가 올라 의병부대의 지휘부서를 다음과 같이 재편성 하였다.

대 장(大 將)……박준영(朴準英)	여주대장(驪州大將)……심상례(沈相禮)
군사겸지휘(軍事兼指揮)··김하락(金河洛)	도 소 막(都 召 幕)……전구석(全龜錫)
선 봉(先 鋒)……김태원(金泰元)	중 군(中 軍)……구연영(具然英)
좌 익 장(左 翼 將)……김귀성(金貴星)	우 익 장(右 翼 將)……김경성(金敬誠)
후 군 장(後 軍 將)……신용희(申龍熙)	

여기에서 전 이천 창의대장(倡義大將) 민승천(閔承天)이 물러나고 박준영이 그 후임이 된 것은 앞의 이현전쟁에서의 패전(敗戰)을 책임 물었기 때문에 별도로 작전지휘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배려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간부의 부서가 확정되자 몇일동안 군사훈련과 작전계획을 마련하여 그해 2월 28일경에는 새로운 주둔지인 광주의 남한산성으로 의진(義陣)을 이동하게 되었다.

원래 남한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성되어 조선시대 말에 이르기까지 국방상 요충지로 크게 중요시되어 오던 곳이며, 특히 조선 인조때 병자호란을 겪기 전후해서 성곽을 수축하고, 군사를 배치하고 많은 양곡·무기를 저장해 오던 곳이었다. 그러나 고종(高宗)32년(1895)에 새로 시행된 지방제도·군제개혁(軍制改革)에 의하여 성(城)의 수비를 담당한 군병과 이속(吏屬)들이 대폭 감소된 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아직도 다수의 무기와 많은 군량(軍糧)이 이곳에 저장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거의 완전한 형태의 성벽과 주위에 험준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의병부대를 오래 주둔시킬수 있고, 또 적을 맞아 효과적인 방어전을 펼쳐 볼 만한 곳이었다. 아뭏든 남한산성은 수도 서울의 동태를 한눈에 살필수 있고, 장기전(長期戰)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던 까닭에, 경기의병진이 광주남한산성에 입성 주둔한 것은 전략적인면에서 큰 득책(得策)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2천여명 병력의 의병부대가 남한산성에 주둔하게 되자, 친일정부(親日政府)에서는 서울의 친위대(親衛隊)와 강화주둔병력을 출동시켜 남한산성을 사면으로 포위하고 여러차례 공격을 시도하였다. 당시 정부에서 파견한 친위대와 강화병은 도합 3중대와 2소대 병력이었는데, 그들은 본부 지휘부를 남문 밖 매착동(梅着洞)에 설치하고 1중대를 본부에 머무르게 한 다음, 동문밖 불당곡과 북문 밖 향교리(鄕校里)에 각 1중대 서문 밖 석회동(石會洞)과 동문쪽 암현리(岩峴里)에 각 1소대의 병력을 배치하여 성으로 통하는 일체의 통로를 차단하여

포위 공격의 태세를 엄중히 하였다.

이때 성내의 의병진에서는 과감한 대응책을 하면서 갑자기 여기 저기 출몰하여 사격을 가해 관군을 당황케 했으며 때로는 집중적으로 총격과 포격을 자유자재로 가하여 크게 유리하게 작전을 펼쳤으며, 불리한 위치를 차지한 관군측은 감히 성곽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먼 곳에서 산발적으로 총격을 가할 뿐이었다.

그러나 가운데 북문 가까이 접근하였던 관군 병력이 의병들의 맹렬한 공격을 받고 급히 퇴각하면서 대포 1문을 버리고 달아나자, 이때 북문파수장 신능희는 급히 군사를 호령하며 나가 싸우게 하여 관군 수십명을 사살하고 대포를 끌어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초전무렵 의병진의 사기는 크게 높아졌으며, 무기력하게 패퇴해 가는 관군들을 조롱하면서 국왕이 있는 서울을 향해 만세를 외치기도 하였다. 더우기 의병진이 장기화의 조짐을 보여 지휘부로부터 증원(增員) 연락을 받은 안성지역의 의병 수백명이 남한산성을 향해 출동하고, 춘천지역에 모인 3천여명의 의병부대도 양근(楊根 : 지금의 남양주)방면을 경유하여 남한산성으로 입성할 채비를 갖추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군측에서는 크게 당황하여 갖가지 대책을 강구하는데 전전긍긍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초전당시의 전황주도권이 의병진에 선점(先占)되었다고 해서 의병진의 희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의병진에서는 한때 성의 동문쪽 암현리(庵峴里)까지 나와 포진하며 관군을 공격했기 때문에, 당시 관군은 근대무기로 무장한 일본군 수비대의 후원 아래 갑자기 의병들을 추격해와 성중으로 쫓겨오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무렵 동문 수비의 책임을 맡았던 좌익장 김귀성(金貴星)이 성 밖에 나와 공격하다가 불행히도 관군에게 사로잡힌 일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관군측에서도 포로가 된 김귀성을 통하여 성중의 의병지휘부에 대한 이간공작을 추진하였다. 즉, 김귀성을 통하여 산성의 의병진에게 글을 보내어 의병활동의 부당함을 말하면서 항복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이때 의병진에서는 관군측 지휘부에 즉각 회답분을 보내어 자신들 의거의 정당성과 항일의식(抗日意識)의 당위성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역설하였다.

관군에게 발송한 의병진 회답문은, 우리의 의병항쟁은 국모(國母)를 살해하고 국권을 참탈하려는 왜적을 토벌한다는 대의에 뚜렷한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관군도 왜적을 토벌한다면 함께 동참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의병을 토벌하려고 한다면 이는 반애국적인 행동이니, 이는 나라의 관군이 아니라 왜적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당위성을 뚜렷이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의병진을 공공연히 설득시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관군측에서는 간계(奸計)를 써서 비밀리에 의병진의 대장 박준영을 광주유수에 임명하여 개화된 세상에서 복록을 누리고 살게 해준다는 것이었다. 이때 끈질긴 관군측의 간계가 주효한 것인가, 의병진의 간부인 전구석과 주장격인 박준영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사로잡혔던 김귀성이 관군측의 설득으로 비밀리에 관군측과 대장 박준영 사이를 왕래하면서 성중에서의 내응(內應)이 약속되게 되었는데, 이때 두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의병간부들은 자기들 직무에 분주하다 보니 이 불순한 배신행위가 진행되는지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의병진이 남한산성에 주둔한 지 20여일이 지난 3월 20일(음력 2월 7일) 대장 박준영은 소를 잡고 술을 준비하여 희하 의병들에게 크게 먹이니, 각 문의 파수를 맡은 병력도 모두 취하여 잠에 곯아 떨어지고 말았다. 이튿날 21일 세벽 마침내 배신자들은 서문과 북문을 활짝 열어놓으니 때마침 기다리고 있던 관군들은 함성을 올리며 성중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어왔다. 술에 취하여 잠속에 곯아 떨어졌던 성중의 의병들은 그제서야 박준영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일부 의병들은 분을 참지 못해 대장소로 달려가서 박준영의 3부자를 잡아 모두 처단하였다. 그리고 관군에 쫓겨 눈물을 머금고 성 밖으로 퇴각하니 주둔 20여일만에 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이때 의병들이 황급히 성밖으로 빠져나오자, 관군들은 상해를 가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듯『빨리 달아나라 일본놈을 만나면 죽는다』고 외쳤다고 하니 당시 관군·의병간의 말못할 고충을 짐작케 한다. 최고 지휘부의 어처구니 없는 배신으로 불의의 변을 당한 남한산성 주둔 의병들은 비분을 간직한 채 각기 사방으로 흩어져야 했다.

그러나 실패는 한때의 일. 신용희(申龍熙)·김태원(金泰元)·구연영(具然英) 등 의병간부들은 앞으로의 대책을 의논한 결과, 경기지방 일대에서는 당분간 흩어진 인심을 다시 수습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니, 영남지방(嶺南地方)에 가서 의병을 재소집 충원하여 거사하는 것이 상책이라는데 합의를 보고 3월 27일 잔여병력 9대를 거느리고 영남쪽을 향해 이동하게 되었다.

김하락(金河洛)의「정토일기(征討日記)」요약

우리 고장의 사적④

눈물과 고독의 한을 시로 수놓은 여류문인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1589)

묘소재지 : 초월면 지월리 경수마을
중부고속도로변 안동김씨선영

굴종만이 강요되던 질곡의 생활에 숨막혀 자취도 없이 왔다가 간 이땅의 여성들 틈에서도 부인은 정녕 우뚝하셨다. 난(蘭)처럼 청아한 용자(容姿)에 재예비범(才藝非凡)했던 부인은 가슴 가득한 한과 곱게 가꾼 꿈을 작품으로 승화시켰으나 사람들의 화제에 자주 오르는 시와 글로해서 오늘에 살아있다.

~(중 략)~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경수마을 안동김씨 선영에 있는 허난설헌 묘비문의 서문이다.



필자는 경안천이 산허리를 감돌아 흐르고 무갑산의 연봉이 저 멀리 동남으로 우뚝 솟은 경수마을 안동김씨 선영에 있는 난설헌의 만년유택을 찾아 묘비문을 읽으며 엄청난 한시름과 눈물과 고독의 생애속에서 주옥같은 문장으로 황진이의 풍류와 매창(梅窓)과 옥봉(玉峰)의 연가, 혜경궁의 한중록, 의유당의 기행만록과 함께, 조선조 여류문학사상 출중

의 솜씨를 내외에 드날렸던 난설헌의 기구한 생애를 더듬어 본다.

그는 봉건제도하에서 정치적으로 유학의 도덕을 전제하여 이상국가 체제가 본궤도에 오른 시대에 문학 역시 성리학(性理學)의 난숙으로 도덕문학인 교화(敎化)의 수단으로 섬겨지던 때의 조선왕조 명종18년(1563)에 강릉골, 지금의 안목해수욕장 앞인 초당리에서 양천허씨 초당(草堂) 엽(曄)의 3녀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엽은 한씨부인과의 소생으로 성(筬)과 2女를 낳았고 김씨부인과의 소생으로는 봉(篈)과 3녀로 난설헌, 밑으로는 균(筠)을 낳았다. 난설헌은 아버지 허엽은 물론 경세명인(警世鳴人)의 문장가들인 이복(異腹)의 성(筬)과 동복(同腹)오라비 봉(篈) 그리고 홍길동전의 저자로, 당대의 시문을 주름잡은 기인으로 너무나 유명한 허균이 친동생이니, 이러한 가문으로 해서 그는 남다른 시정(詩情)과 예성(藝性)의 교화를 입으며 자랐다.

그의 동생 허균에 의하면 난설헌은 5세에 능히 시를 지었다고 하였으며 중국의 「명시종」(明詩綜) 주(註)에는 광한전 백옥루 상량문(廣寒殿 白玉樓 上樑文)과 같은 어려운 문장을 초(草)했다고 하였으니 오라버니와 동생보다 뛰어난 난설헌의 면목을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일세를 뒤흔든 그의 문장으로 명성은 오히려 중국에 더 자자했건만 그도 결국 여자일 수 밖에 없었던가. 친정에서 익힌 문기(文氣)는 성장과정의 선택된 환경이었을 뿐. 출가해서는 제도의 굴레에 감겨 시부모를 섬기고 어진 아내가 되어야 하며 현모가 되어야 하는 여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엄격한 유교체제를 조선왕조의 여성은 남정네들의 등살에 몹시도 시달렸고 도문일치(道文一致)라는 봉건의 굴레로 옳고 그름을 묻지도 않고 그저 정절만이 강요되고 순종만이 미덕으로 받들어진 당시 여성들의 삶은 상·하를 막론하고 엉망이었다. 무조건 부덕을 강조하며 내훈(內訓)을 읽혀 오륜사상(五倫思想)으로 정렬(貞烈)과 절효(節孝)만을 교습시켜 칠거지악의 엄격함과 삼종지도(三從之道)의 복종을 피할수 없게하던 봉건사회의 윤리가 지배하던 때였다.

빼어난 용모에 천부의 자질로 정신세계의 요람인 한시대의 문단을 종횡으로 주름잡던 난설헌에게는 굴종만을 강요하는 사회윤리가 실로 답답하고 역겨웠으리라.

그는 14세 되던 해인 1577년(선조10)에 안동김씨 서당(西堂) 김성립(金誠立)에게 출가하였다. 김성립은 난설헌이 27세의 꽃다운 나이로 이세상을 하직한 1589년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니 난설헌과의 결혼후 12년 동안은 한낱 진사에 불과했으며, 더구나 잦은 외도로 꿈많은 여인의 소망을 외면 하였으니 난설헌은

여인의 가장 소중한 기간인 결혼후 12년 동안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보냈던 것이다. 김성립 그는 난설헌의 월등한 재주와 해맑은 모습에 어울리는 배필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난설헌은 한갖 경박자(輕薄者)로 밖에 인식되지 않아 「인간원별(人間願別) 김성립(金誠立) 지하장종사목지(地下長從社牧之)」라고 하였으니 그의 이상적인 배필은 아마도 천하의 시인 묵객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이백(李白)이나 사목(社牧)이었는지 모른다.

허난설헌 그는 이와같이 고독과 애정의 고갈에서 오는 저항적 심리를 시와 문장으로 달래며 짧은 생애를 살다 간 이 땅의 불행한 여류시인이다. 더구나 그의 유일한 낙이었던 자녀의 죽음에 이르러서는 삶의 의욕마저 잃고 말았으니 해를 걸러 두 자녀를 잃은 슬픔을 다음과 같이 곡자(哭子)의 시로서 통곡했던 것이다.

『지난 해에는 귀여운 딸 잃어 버리고
올해는 사랑스런 아들 잃다니
서럽고 서러워라 광주 고을에
두 무덤 나란히 만들어졌네
백양나무 쓸쓸하다 바람이 차고
도깨비불 소나무에 비치이누나
종이로 돈오려 너희들의 넋을 부르고
무덤에다 물 한잔 부어 놓노라
알고 말고 너희들 형제의 넋이
밤마다 서로 서로 따라 놀 것을
아무리 몸속에 아이 있다만
그 어찌 장성하길 바라겠느냐
부질없이 애도의 글 읊조리자니
비통한 피눈물에 목이 메인다』

난설헌의 묘앞에 나란히 있는 두 아이의 봉분으로 해서 이곳을 찾는이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울려주고 있다.

난설헌의 대개의 시들은 그 내용으로 보아 1577년경 출가 전후의 작품들로 믿어지는데 시의 유형은 시상이 세가지 경향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1. 신비주의를 추구함으로써 현실의 환멸에서 초탈하려 함이니 유선사(遊仙詞)가 그것이며,

2, 규원(閨怨)과 고독에의 상처가 다소곳이 엮어져 한숨으로 얼룩진 여인의 소회를 대변한 것이요,

3, 곡자(哭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뻐저린 숙명의 고뇌를 표출해 낸 것이다.

허난설헌 그의 시는 현실적인 취재와 극기(克己)의 반추(反芻)로 나름대로의 이상향을 찾아낸 초탈의 경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으니 그녀의 시속에 수없이 등장하는 꿈의 세계, 신선의 세계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그녀의 유선사(遊仙詞)는 그리는 신선이 아닌, 노니는 신선임에 주목할 일이다. 이는 자포자기의 절망이거나 의지의 패배가 아니고 스스로 얻은 영감으로 하늘나라의 궁전인 광한전에서 노닐며 비정(非情)의 현실을 망연히 잊고 마음껏 신선과 노닐었으니 다음에 소개하는 유선사는 바로 꿈의 선궁(仙宮)에서 신선과 같이 지내며 선유(仙遊)한 사연이다. 그녀의 신선과의 선유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반봉건적인 현실위주의 환락을 토대로 한 제도에의 도전이자, 그 봉건의 굴레에서 해방을 구가한 고차원의 몸부림이라 하겠다.

『천년의 요지에서 목왕을 하직하고
잠시 청조를 앞세워 무제를 찾아뵀네
날이 밝자 상계에서 풍악잡히고 돌아오니
시녀들은 하얀 봉황새를 타고 따라 오누나』

× × ×

『찬란한 봉황새를 타신 신선이
한밤에 조원궁을 내려 오시네
붉은 깃발 구름에 나부끼고
무지개 옷자락 봄바람에 날려
요지의 봉우리서 나를 맞으며
유하주 한잔 술을 전하시고는
파아란 옥지팡이 빌려주면서
부용봉에 오르자고 인도 하시네』

난설헌의 초세적(超世的)이상을 노래한 선유시로 꿈에 신선과 노닌 사연이다. 다음은 난설헌의 시중에서 필자의 마음을 울렸던 몇편의 규원시(閨怨詩)를 소개함으로써 조선조 여인의 구겨진 실정을 대변한 그의 정감과 외로움과 그리움의 애환을 도맡아서 한숨과 눈물을 승화시켜 하염없는 현실과 소망의 틈바구니에서 바둥거리면서 꿈으로 살다간 한 여인의 정신적 내면세계를 조명코자 한다.

『고가라 낮이건만 인적은 없고
뽕나무 위에서는 부엉이 우네
새파란 바위옷 층계에 돋고
참새가 빈 바닥에 깃을 쳤네요
전에는 말과 수레 머물더니만
지금은 여우의 소굴되다니
달관한 분의 말씀 이제 알겠소
부귀는 나의 몫이 아니란 것을』

흥망과 성쇠와 영화의 덧없음을 읊은 시다.

『봉황이 단산의 굴에서 나와
아홉 겹 깃무늬 찬란도 하이
성덕을 보여 주며 높이도 날고
목청 뽑아 아침 볕에 울어대누나』
곡속을 달라는 투정 아니고
대나무 열매만이 먹이이라네
어찌하여 저 오동나무 위에는
솔개미만 깃들고 있단 말인고』…

자기의 신세를 봉화에 비긴 노래다. 우리집 오동나무에서는 깃을 치라는 봉황은 오지않고 엉뚱하게 솔개미만 깃들고 있으니 딱한 일이다.

『자주빛 퉁수소리에 구름이 흩어지니
발밖엔 서릿발 차고 앵무새 지저귄다.
깊은 밤에 외로운 촛불 비단 휘장 비추니
반짝이는 성긴별 은하수로 오락 가락
또드락 물시계소리 서풍에 메아리 치고
이슬지는 오동에서 벌레가 울어 싼다.
생명주 손수건에 한밤을 적신눈물
내일보면 점점이 붉은 자국이리라.』

바로 현실적 사상(事象)을 용납하며 피안(彼岸)을 내닫는 홀종(忽從)과 극기의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임을 그리며 홀로 밤을 지새우는 조선조 여인의 실상이기도 한, 이 시는 바로 우리의 어린 시절 고향의 등잔불 밑에서 허리 굽은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로서 당신의 젊은 시절 할아버지의 외도때문에 찌

든 한숨으로 꽃다운 젊음을 보내야 했다는 한의 얼룩이기도 한 것이다. 생명주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한밤을 한숨으로 지샜으니 아마 내일 아침에 보면 점점이 모두 붉은 얼룩 자국이라는 난설헌의 독백, 해도 해도 못다하는 한을 쏟아 퍼붓는 듯 하면서도 차라리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으로 연소시키는 난설헌의 그윽한 시름이다.

사회적으로 보장된 남정네들처럼 시름을 식힐 수도 없었고 한눈을 팔 나들이는 생심조차 못하는 창살없는 옥살이었으니 이른바 인형의 집은 바로 난설헌의 기구한 삶이었다. 12년이란 여자의 소중한 결혼기간을 공규로 보내야 했던 난설헌은 그리던 신선이 되고서도 남편과는 소원하다. 바로 지척에 그의 남편 김성립의 묘가 있는데, 그곳에는 재취한 남양홍씨와 합장이 되어 있어 불우했던 천재시인의 유택을 보는 후학에게 일말의 감창을 더해 줄 뿐이다.

임종에 앞서 자기의 작품을 모두 불사르게 했다는 난설헌의 한, 이는 바로 우리의 한이다.

전 학예연구관 강대욱
경기도 문화공보 담당관실



우리 고장의 인물



고 남광우 박사

난정(蘭汀) 남광우(南廣祐) 박사 국한혼용 주장, 고어 연구에 일생 바친 큰 스승

광주군 출신의 국어학자 남광우(南廣祐)박사가 지난 97년 12월 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서울대 문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어국문학회 대표이사 및 국어학회장, 한국어문교육연구학회장, 한국어문회 이사장, 한국한자능력검정협회장 등을 역임했고 경북대, 중앙대, 인하대 교수를 지내며 후진교육에 힘썼으며 국어교육 정상화와 고어·발음 연구에 평생을 바쳤다.

난정은 77세의 생을 사는 동안 일관된 목소리로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자교육 필요성의 근거로 선생은 우리의 전통문화가 한자문화요, 우리말의 70%가 한자어라는 엄연한 사실과 앞으로도 중요한 조어원(造語源)이 한자임을 인식해야 하며 한결음 나아가 한자가 중국글자가 아닌 우리말의 한 날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제창되고 있는 교육개혁은 국어교육혁신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국어교육혁신은 국한혼용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했다.

민족의 역사와 정서를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 우리민족의 혼이 베어 있는 우리말 연구에 정열을 불태워 한평생을 바치신 선생의 노력과 국어사랑에 고개 숙이며 겨레의 큰 스승으로 우리 가슴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저서로 「한국어 표준발음사전」「고어사전」「고금한자사전」 등 20여권을 남겼으며 학술원상, 5·16민족상, 서울시문화상, 국민훈장 모란장, 1993년 광주군 문화상(학술부문)을 받았다.

과학적인 우리한글과
조어력(造語力) 뛰어난 한자(漢字)
조화롭게 교육시켜
국어 빛내고 나라재건…

떠나는 늙은이가 기원합니다

국어교육 헌신 남광우(南廣祐)박사 「마지막 편지」쓰고 97년 12월6일 별세

고(高)총리 앞으로 보내

노(老)학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걱정하면서 학문적 정열과 소신을 잊지 않았다.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가운데서도 혼신의 기력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지론을 강조하는 글을 국무총리 앞으로 써보냈다.

「국한혼용(國漢混用)을 않으면 국민의 의식수준이 낮아져 IMF자금지원 같은 국치(國恥)가 되풀이 된다….」 그는 「늙은이가 혼미한 중에도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타들어가는 입술을 적시며 한 말씀 드린다」며 힘들게 글을 마쳤다.

"한글전용 안돼" 국회 청원 10여번
「한·중·일(韓·中·日)통용 한자(漢字)」 준비중 쓰러져

6일 오전 11시 40분, 삼성 서울병원에서 별세한 원로 국어학자 난정 남광우(蘭汀 南廣祐·77·수원대 대우교수)박사. 다시는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음을 감지했던 것일까. 그는 유고(遺稿)가 되어버린 「국한혼용을 통한 국어교육정상화를 촉구하는 글」을 5일 오후 고건(高建)총리 앞으로 보낸 지 19시간만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서울대 문리대를 나와 중앙대 인하대 수원대 교단에 섰던 남박사는 정부가 한글전용을 결정한 70년 이후 「국한혼용론」의 선봉에 서서 한글전용론자들과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했다.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구면서도 학문적 입장이 정반대인 허웅 한글학회이사장과 벌인 논전만도 수십차례. 한글전용법 폐기를 위해 장관실을 수 없이 드나들었고, 국회에 청원서를 낸 것만도 10여번이 넘는다. 남박사는 『모두 제자식에게는 「사회에 나가 문맹(文盲)이 되기 싫으면 한자를 공부하라」면서도 「자리」에 급급해 막상 한글전용법 폐기에는 소극적』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이같은 그의 노력에 힘입어 90년대 들어 조선일보(朝鮮日報)를 비롯한 일간지들이 한자칼럼을 신설하고, 기업체 입사 및 승진시험에 한자과목이 추가되는 등 한자교육붐이 일자 『이제 제 방향을 잡아간다』며 기뻐했다.

남박사의 몸에 「이상」이 온 것은 지난 10월 13일. 『황달기가 있는 것 같다』며 동네병원에 갔다가 간암임이 밝혀져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겼다. 그는 『마지막 과제는 한중일(韓中日) 3국의 상용한자를 통일시켜 명실상부한 한자문화권을 만드는 일』이라며 지난달 말 중국 소주(蘇州)에서 열린 「국제한자학술회의」에 발표할 원고를 준비했으나 결국 참석치 못했다.

97.12.7 조선일보 이한우 기자

고건(高建)총리 좌하

"국한문 혼용(國漢文 混用)교육으로 어문정책(語文政策) 바꿔야"

다난한 국정에 여념 없으실 고총리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라 살림이 어렵다는 소식에 병상의 이 늙은이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혼미한 중에 타들어가는 입술을 적시며 몇 글자 글월을 적는 것은 그래도 나라의 장래를 위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1일 유네스코는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世界記錄遺産)으로 지정하여 훈민정음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음문자(表音文字)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우수한 한글과 뛰어난 조어(造語)기능에 축약력(縮約力)·함축성(含蓄性)을 함께 지닌 한자의 조화는 우리 국어를 빛내주는 두 날개로써 우리 민족만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들게 된 근인(根因)은 잘못된 국민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복직후부터 지금까지 온 국민을 우민화(愚民化)하며 파행(跛行)을 계속해 온 한글전용정책은 국민정서를 황폐화시키고 극단적 개인주의를 만연시켰습니다. 돈이 있는이나 없는이나 일하지 않고 많은 댓가를 바라는 뒤틀린 심사는 한결같습니다. 국민의식이 이와 같다면 아무리 많은 IMF자금을 지원 받는다 해도 우리 장래는 암울할 뿐 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 늙은이는 평생을 국어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심 초사해 왔습니다. 한자교육을 통한 국어교육 정상화를 외치다보니 때로는 한글사용을 없애고 한자만 주로 쓰자는 사람으로 곡해(曲解)받기도 했습니다. 이 늙은이는 또한 평생을 국어학공부에 매달려 왔거늘 우리 국어에 대한 사랑이 어찌 남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한글만으로는 원활한 국어생활이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요 한자의 역사 또한 수천년이나 되어 우리나라 고전이나 역사전적(歷史典籍)이 한자로 되어 있으며 우리 문화어의 대부분이 한자말인데 이같은 현실을 무시하고서야 어찌 올바른 어문정책(語文政策)이 시행되고 올바른 어문정책이 행해질 수 있겠습니까?

도덕·도봉구·부자·부평·부천·화재 등은 첫소리가 모두 긴 소리인데 한글전용교육으로 발음교육을 무시하다보니 한자말이나 순 우리말이나를 가릴 것

없이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말의 중요한 요소인 장단(長短)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중 二·四·五는 긴소리요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아홉' 중 둘·셋·넷·열이 긴소리인데 국민의 표준언어생활을 선도해 주어야 할 아나운서들도 한글전용교육으로 인해 영어의 액센트나 발음은 중시하면서 우리말의 장단은 구분하는 이가 드뭅니다.

한자말이나 순우리말이나를 막론하고 세종시대의 국어가 우리의 전통국어요 표준국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란 어느 특정한 시대, 특정한 일부 사람들의 아집에 의해 함부로 만들어지거나 고쳐져서 왜곡되면 안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어문정책은 일부 한글전용 학자와 교육부 관료들에 의해 '한글전용만이 애국'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우리 젊은이들의 사고를 망가뜨려 왔습니다.

한자는 아무리 쉬운 글자라도 순간적으로 그 뜻을 숙고하고 읽게 됩니다. 이같은 반복사고(反復思考)는 자연스럽게 사고력의 깊이를 더해 주게 됩니다. 지금의 한글표기법은 훈민정음해례 종성해(終聲解)에 나오는 "여덟 받침이면 족하다(八字可足用)"는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정신마저 무시한 채 27개나 되는 받침을 만들어 국민 대다수로 하여금 제나라 국어조차 제대로 적고 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인들의 압제 속에서 우리말과 글을 지켜내고자 했던 선현들의 뜻은 훌륭한 것이요 그 정신의 맥을 후손대대로 이어가야 할 고귀한 정신이라 하겠습니다만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 사정 당시에는 자료도 충분하지 못했으며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럴만한 여건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종시대 저술들이 국한혼용이거나 한자와 훈민정음을 병용한데서 국한혼용을 염두에 두어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의 정신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대의 전통국어 회복으로 국가위기 극복에 진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펜을 놓습니다.

1997. 12. 남광우(南廣祐) 드림.

역사의 인물①

청사에 빛나는 불굴의 충혼들

세조가 등극하던 날, 집현전 학사 성삼문은 그날 마침 예방승지로서 당직 중에 있다가 그 장면을 당하였다. 그는 진작부터 수양대군의 위세가 날로 등등해짐을 보고 조만간에 탈이 날 줄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력한 그로서는 다만 가슴을 쥐어 뜯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마침내 수양은 보위를 빼앗고야 만 것이다.

그때 성삼문은 예방승지로서의 직책상 전국보를 수양에게 받들어 올리게 되었는데, 그는 하도 기가 막혀 그만 어보를 움켜쥔 채 통곡하다가 세조에게 빼앗기듯 전달했던 것이다. 세조는 불쾌한 눈초리로 그를 노려보았으나 자리가 자리였던만큼 모른 채 덮어 두었다.

박팽년(朴彭年)도 그날 마침 당직으로서 그 광경을 보고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퇴조할 때 경회루 앞 연못에 가서 빠져 죽으려고 하였다. 그러는 그를 성삼문이 붙잡고 만류하였다.

『영감! 공연히 죽기만 하면 어떡하오. 아직은 목숨을 보전하고 있다가, 틈을 보아 일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소 ! 』

그 말에 팽년은 눈물을 거두고 사례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로 동지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하위지(河緯池), 유성원(柳誠源), 이개(李塏), 유응부(柳應孚) 등을 차례로 심방하여 모의하기를,

『우리가 지금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서는 안될 것이니 각각 벼슬을 내놓지 말고 가까이 돌면서 기회를 엿보아 거사하기로 합시다』

하였다. 그후부터 그들은 아무런 내색없이 벼슬 자리에서 일을 하며, 틈틈이 모여서는 계책을 의논하곤 하였다.

얼마 안 있어 그들에게는 동지 한 사람이 더 동참하게 되었다. 그는 김질(金礩)이다. 어느날 김질은 성삼문의 사처로 찾아왔다. 주객 간에 수인사가 끝난 후, 김질은 조용히 삼문에게 말하였다.

『지금 온 조정이 모두 권세에 아부하고 이익을 탐하여 선왕의 대은 후덕을 저버리니 이 어찌 한심하지 않소이까. 내 비분한 심사대로 하면 벌써 죽었을

것이나 구차히 목숨을 붙여 사는 까닭은 후일을 도모하려 함에서외다. 그러나 동심 협력하는 사람이 마땅치 않소그려! 내 생각다 못해서 노형을 찾아왔지요. 형은 선조의 충신이며 당세의 명현이라, 심중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만한 터이므로 온 것이니 아무쪼록 힘을 합하여 대사를 이루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김질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하였다. 이충성이 지극한 말을 듣고 또 비분의 눈물을 보게 된 삼문은 감격하여 그의 손을 잡고 맞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 자리에서 삼문은 그에게 그동안 몇몇 동지들이 모의해 왔다는 사실을 낱낱히 털어놓았던 것은 물론이다.

그 뒤로도 그들은 자주 한자리에 모여 일을 의논하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유응부는 무장다운 태도로 일을 지체하면 위험하니 곧 결판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나, 성삼문의 신중론에 그의 주장은 좌절되곤 하였다.

그러한 그들에게 마침내 거사의 기회는 도래하였다. 그 무렵 명나라에서 온 사신이 돌아가게 되어서 세조는 상왕과 함께 그를 전송하는 의식에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성삼문 이하 동지들은 그 기회를 타서 거사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은 김질을 시켜 한명회로 하여금 세조에게 말하게 하여 성삼문 부친 성승과 총관 유응부에게 보검잡이를 시키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보검잡이란 임금이 전좌한 앞에 큰 칼을 들고 서는 이품관원인바, 이 기회에 성승과 유응부에게 보검을 잡게 하여 틈을 타서 세조를 베고 정인지, 권람, 한명회 등 그 심복들을 일제히 무찌르고 나서 상왕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자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일이 공교로이 되느라고 일껏 그리 하라고 윤허했던 세조가 막상 그날 그 자리에 임하여 뜻밖에 분부를 내리었다.

『오늘은 날씨가 덥고 장소도 협소하니 보검잡이는 들이지 말라』

이것은 성삼문 등의 거동을 수상하게 본 한명회가 가만히 세조에게 아뢰어 세조 또한 그럴싸하게 여기고 그런 분부를 내리었던 것이다.

성삼문 등은 한자리에 모여 서로 돌아보며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자리에서 유응부는 주먹을 휘두르며,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지체할 것 없이 이 길로 곧 들이치도록 합시다. 내 이 주먹 하나만으로도 일을 처리할 수 있소』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다시 성삼문의 신중론에 부딪쳐 제지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그 자리에 김질이 보이지 않았다. 일동은 저으기

의심이 들었으나 『설마…! 』하고 자위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설마」가 너무도 부질없는 억측이요 판단일 줄이야…….

김질은 그날 일이 여의치 못함을 보고, 결심을 바꾸어 동지들을 팔러 갔다. 한명회를 찾아간 그는 낱낱이 그동안의 경과를 밀고했으며 명회는 또 세조에게 주달하였다. 김질은 동지들을 팔 때 울면서 살려 주기를 간청했던 것이다.

중국 사신을 전별한 그 이튿날 세조는 먼저 성삼문을 불러 들였다. 그리고는 추상같은 호령으로,

『네가 너의 도당 여섯 사람과 공모하여 어제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게 사실이냐?』

하고 다그쳐 물었다.

순간 이것이 김질의 고발이었구나 하고 깨달은 성삼문은 태연스럽게 대답하였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이 대답하는 삼문의 태연한 태도에 세조는 대노하여 곧 금부도사를 시켜 삼문을 하옥케 하는 한편, 나머지 다섯 사람을 모두 잡아들이라 했다.

그리고 금부와 형조, 포청에 명하여 제반 형구를 갖추게 한 다음 한명회를 위관 삼아 친히 국문을 시작하였다.

먼저 성삼문을 끌어내게 하여,

『네가 나의 녹을 먹으면서 어찌 나를 배반하고 역적모의를 했느냐?』

세조가 묻자 삼문은 목소리를 가다듬어 대답하였다.

『나는 상왕의 신하로서 상왕을 복위시키고자 했던 것이오. 내가 나으리의 신하가 아닌 바에야 어찌 배반이니 역적이니 한단 말이오. 내 상왕을 멀리 떠나서는 일을 도모할 수 없겠기로 벼슬을 붙들고 있었거니와 그러나 나으리가 준 녹은 한 톨도 먹지 않았으니, 내 집을 수색해 보면 알 것이오. 그리고 평일에 나으리는 옛적 주공이 되겠노라고 하였고 또 책문까지 짓게 하였거늘-그래, 어떤 주공이 나으리 같은 행위를 했단 말이오. 나는 상왕을 위하여 죽을 뿐이니 어서 죽여주오』

세조는 대노하여 형리로 하여금 쇠를 불에 달구어 삼문을 단근질하게 하니 살은 튀고 힘줄은 탔다. 그러나 삼문은 안색을 변치 않고 말하였다.

『나으리의 형벌이 너무 참혹하외다. 아무리 해도 굴복할 내가 아니니 곧 죽

여줌이 어떻소.』

그리고 세조를 쏘아보는데 문득 신숙주가 세조의 곁에 앉아 있음을 본 그는 한껏 소리 높여 숙주를 질타했다.

『네 이놈 숙주야! 너는 세종의 옛 당부와 문종의 고명을 잊었느냐? 네가 이처럼 비겁할 줄은 몰랐구나! 네 장차 죽어서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선왕들을 비오려느냐?』

숙주는 그만 무안하여 얼굴을 붉히고 돌아앉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숙주가 벽제(높은 사람의 행차 때 사람의 통행을 금하여 길을 치우던 일) 소리도 요란히 자기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부인 윤씨는 뜻밖이라는 듯 의아한 눈초리로 그에게 물었다.

『아니 오늘 성승지, 유대감 등이 국문을 당한다 하기로, 필경 당신도 그들과 함께 순절하시려니 생각했는데, 이 어이된 일이오니까? 이제 첩은 당신의 뒤를 따를 양으로 죽을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는 중이온데, 어찌하여 그냥 나오시나이까?』

숙주는 풀기없는 얼굴을 차마 들지 못하면서,

『저것들 때문에……!』

하고 어린 자식들을 손가락질했다. 그러자 윤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니 무엇이오? 당신의 그 명망이 가석하외다. 에이 더럽소!』

하고는 숙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총총히 내실로 들어가 버렸다. 얼마 뒤 숙주가 따라 들어가 보니 부인은 들보에 목을 맨 채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다.

강희안도 그날 어느 누군가의 진술에 걸려 잡혀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불복하였다. 세조가 삼문에게 그와의 동모 여부를 물으니 삼문은,

『여보시오, 명사를 한꺼번에 모두 죽이면 나으리는 장차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다스릴테요. 희안은 우리와 동모한 일이 없으니 놓아 주시오』

하여 그는 방면되었고 뒤에 세조에게서 벼슬을 하였다.

삼문은 살가죽이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을 만큼 단근질을 당하다가 큰 칼을 쓰고 하옥되었고, 뒤이어 여러 동지들과 같이 수레에 실려 새남터 형장으로 나갔는데, 그는 태연한 기색으로 좌우 사람들을 돌아다보며,

『그대들은 새 인군을 도와 천하를 태평하게 하라. 나는 옛 인군을 뵈오러 지하로 간다』

그리고 형장에 이르러 참형되기 전에 읊은 시 한 수가 있는데 듣는 이로 하여금 눈물을 금치 못하게 한다.

북소리 목숨 앗길 재촉하는데
머리 돌려 바라보니 해도 저무네.
황천엔 객점 하나 없다 하거니
오늘 밤 뉘 집에 가 잠을 자리오.

그의 부친 성승을 비롯하여 다섯 아들과 동생 사촌들끼리 모두 연좌되어 죽고 부인은 관비가 되었다.

죽은 뒤에 그의 집을 뒤져보니 쌀 한톨 없고, 방은 오래 불기운이 없었던 듯, 냉랭한데 대자리 한 잎이 깔려 있을 뿐이었다고 하며, 또한 곳간에는 세조에게 받은 녹미가 고스란히 쌓여 있더라고 한다.

성삼문! 그는 본시 홍주군 적동리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출생할때 공중에서 귀신이 세번을 소리치면서 순산했느냐고 물었으므로 그의 이름을 삼문이라고 지었다. 성품이 침착 정중하고 재주가 뛰어나서 외양으로 보기보다는 그의 사람됨이 훨씬 더 무겁고 튼튼하였다. 세종이 특별히 그를 사랑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에 무려 열세 번이나 그를 요동에 귀양와 있는 황찬이란 중국의 어학자에게 내왕케 하여 음운에 관한 것을 밝혀오라 하였고, 각도에 흉년이 들면 그를 어사로 명하여 백성들을 구제케 하였다.

한번은 그가 어사가 되어 영남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태백산에 들어가 한 기인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 그 기인을 상대로 세상사를 의논해 본즉, 그는 미래사까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어 삼문이 지극히 존경하였는데 그후 을해년 거사를 앞두고 사람을 보내어 일의 성사 여부를 알아오게 하였던바 그 사람이 그 기인의 집에 이르러 보니 그는 간 곳도 없고 벽위에 글 한구가 적혀 있을 뿐이었다.

『천추를 피로 물들여 이름이 만고에 전할 것이니 내게 물어 무엇하리오』

갔던 사람이 그 글을 떼어 가지고 왔기에 삼문은 보고 찬탄하기를

『명수가 이미 정해 있도다』

하고 기꺼이 거사함으로써 사지로 들어갔던 것이다.

성삼문 다음에 국문을 받은 사람은 박팽년이었다. 팽년, 그도 문장과 재덕이 일세에 떨치던 명사로서 세조가 등극하던 날 비분에 못 이겨서 경회루 연못에 투신 자살하려다 삼문의 만류로 목숨을 이어 때를 기다리게 되었고 이어 충청

감사 형조참판의 지위에 올랐다. 그리하여 형조참판으로 있다가 이번 일로 국문을 당했는데 그 또한 삼문과 같이 세조를 나으리라고 부르면서 굴치 않았다.

『네가 나의 녹을 먹었고, 또 나에게 신이라 일컬었으니 너는 나의 신하인데 어찌하여 새로이 배반하려 했느냐?』

세조의 물음에 팽년은 언성을 높여 대답하였다.

『나는 상왕의 신하일 뿐 나으리의 신하가 아니거늘 어찌 나으리에게 신이라 일컬었으리오!』

이에 세조는 증거를 댈 양으로 그가 충청감사로 있을 때 올린 장계 두루말이를 들이라 명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신(臣)』자를 쓸 곳에 모두 『거(巨)』자가 쓰여 있었다. 원래 장계에는 『臣』자를 작게 쓰는 것이므로 세조는 기왕에 지나쳐 보았던 것이다.

세조는 그의 명성과 재주를 아끼어 가만히 사람을 시켜

『네가 마음을 돌리어 나를 쫓는다면 부귀 영화를 길이 누리리라』

하였으나 그는 끝내 박차고 악형을 당하다가 형장으로 나갔다. 그때 호송하는 금부도사 하나가 그를 보고,

『당신은 참 고집도 세십니다. 잠깐만 그 고집을 거두면 온 집안이 모두 살게 되고 평생 부귀를 누리실 터인데 무슨 고집을 그렇게 부리십니까?』

그러자 팽년은 분연히 대답하기를,

『더럽게 사느니보다 깨끗이 죽는 것이 나으리라』

하였다.

그도 또한 기꺼이 형을 받았고, 그의 아우 대년과 아들 헌이 모두 연좌되어 죽었으며 부인도 관비가 되었다가 절사하였다.

그의 둘째 아들인 순(殉)의 아내는 태중에 잡히어 투옥되었다가 남아를 분만하였다. 그런데 그집 여종이 자기 딸과 바꾸어 이름을 박부(朴婦)라 하고 길렀으므로 팽년의 혈통이 이어졌다. 성종때에 이르러 이 사실이 드러났는데, 특히 사면을 받고 일산이란 이름까지 하사 받았다. 그의 손자 계창 때에야 비로소 참봉벼슬를 했다 하는데 그가 선생의 기일을 당하여 제사를 지낼때 홀연히 신주에 여섯 분이 다 모여오므로 그뒤부터는 육신을 함께 모셔서 제사지냈다.

그런데 팽년과 삼문을 국문한 뒤 잠깐 하옥시키게 하였던 세조는 끝내 그들을 달래어 보고자 신하를 시켜 태종이 정포은에게 건냈던 노래를 적어보이게

하였던바, 팽년이 먼저 답하기를

가마귀 눈 비 맞아 희는 듯 검노매라.
야광명월이야 밤인들 어두우랴.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하였고, 이어 삼문은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할 제 독야청청하리라.

하였다.

세조는 이 노래를 듣고 길게 탄식하면서,

『지금엔 난신이라도 후세에는 충신의 이름을 들으리라』

하였다는 것이다.

그 다음 하위지는 사람됨이 과묵정대하여 미상불 흠 잡을 데가 없고 그릇된 행실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문종때 허다한 인재 중에서 그를 제일로 쳤던 것도 이 때문이었으리라.

세조가 왕위에 오른 뒤 그를 예조참판에 임명하매 부득이 일을 보았으나 역시 녹미는 한 톨도 먹지 않고 쌓아두었다고 한다.

그도 단근질을 당하면서 조금도 괴로워하는 빛이 없이 세조를 지켜보며,

『나으리는 무슨 의리를 그리 지켰다고 날더러 역적이라 하시오. 역적이면 죽일 뿐이어늘, 이런 악형으로 더 물을 것이 무엇이오』

그리고는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대답치 않다가 죽었다. 그때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이가 열 여섯살이고, 둘째는 열 네살이었다. 금부도사가 나와서 그들을 얽자, 두 아들은 그 모친 앞에 꿇어 엎드려,

『아버지께서 극형을 당하시는데 어찌 자식이 살기를 바라오리까. 이제 어머님을 영결하는 터이오니 어머님 부디 슬픔을 억제하시고 출가치 못한 누이와 함께 관비가 될 것이오나, 부도(婦道)를 지켜 의롭게 살아 주시기 바라옵니다』

그리고 두번 절한 다음 형리를 따라서 조용히 형틀에 올랐다. 선산 고방산에 선생의 무덤이 있으니 말할 것도 없이 의관총이다.

또 유성원은 강박에 못이겨 세조를 주공에게 비유하는 글을 짓고는 통곡했던 사람이다. 모의가 탄로되어 국문이 시작되던 날 대사성으로 성균관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영결을 고한 다음, 사당을 모

셔 놓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오래도록 나오지 않으므로 집안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 그는 관복을 입은 채 칼로 배를 갈라 죽어 있었다. 금부에서는 그의 시체를 가져다 형을 집행하였다.

이개 그는 여말의 이름난 유학자 목은의 증손이다. 세상에 태어난 지 두달만에 능히 글을 읽을 줄 알았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신동이라고 하였다. 장성하여 그의 뛰어난 문재를 인정받아 집현전의 학사가 되었는데 그는 몸이 너무 섬약하여 옷을 이기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국문을 당할 때 부젓가락으로 몸을 단근질 당하여도 그는 안색을 변치 않고 조용히 말하였다.

『나으리! 이게 무슨 형벌이오니까? 어진 사람은 이런 형벌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뒤에 딸이 관비가 되었는데 이문학관(吏文學官) 임수호(林垂胡)의 부친이 그녀의 자색이 뛰어남을 보고 맞아들여 수호를 낳아 문장으로 세상을 울리게 하였다.

유응부는 무반의 장수였으므로 기질이 용맹하고 활과 칼 쓰기에 능숙하였다. 일이 탄로되어 국문을 당할 때,

『너는 벼슬이 이품이어늘 무엇이 부족하여 역적모의를 했느냐?』

하는 세조의 물음에 그는 눈을 부릅뜨고 소릴 질렀다.

『내 인군을 위하는 것이 역적이라면 인군을 저버리는 게 충신이란 말인가? 나는 내 인군을 위하여 간신을 없애려다가 간사한 놈의 밀고로 이 지경이 되었으니 빨리 날 죽일 뿐이지 묻긴 무얼 묻는가?』

세조가 대노하여, 형리로 하여금 칼로 그의 살가죽을 벗기라 하며 공모자를 물으니 응부는 대답치 않고 삼문 등을 돌아보며 부르짖었다.

『썩은 선비들과는 큰일을 도모할 게 아니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그때 내가 칼을 시험코자 했더니, 너희들 썩은 유생들이 붙잡고 만류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통분하다.』

그리고는 세조를 향하여,

『여보 나으리! 물어볼 말이 있거던 저 썩은 유생들에게나 물어보오』

하고 입을 다물었다. 세조의 노기는 극에 달하여 형리로 하여금 부쇠로 그의 배와 불두덩을 지지게 하니 기름이 지글지글 끓고 살이 뭉청뭉청 떨어졌다. 그러나 응부는 조금 굴치 않고 지지는 쇠가 식으면 다시 불에 달구어 오라고 호통을 치면서 악형을 받다가 마침내 그 자리에 쓰러져 목숨을 거두었다. 그

는 지극히 효성스러운 사람이어서 평소에 그의 모친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드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았고, 거적문을 단 오막살이 속에서 자기는 죽을 먹으면서도 그의 모친 조석상에는 색다른 반찬을 떨구지 않고 차려 놓곤 하였다. 그의 집안도 모두 연좌되어 죽었다.

그날 혹독한 국문이 끝나고 나서, 여섯 신하들은 차례로 수레에 실리어 한강가 새남터 형장으로 나갔다. 그리하여 육시로 찢기어 참혹한 죽음을 당하였다. 때마침 노을이 비낀 형장은 그들의 피로 더욱 붉게 물들어졌다.

사육신! 그들은 이렇게 죽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킨 절개는 오늘날도 푸르르고, 그들의 그 장렬한 불굴의 의기만은 영원토록 불멸의 것이 될 것이다.

생육신(生六臣)

단종의 복위를 위하여 절사한 사육신처럼 비록 칼 아래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평생을 오직 한 마음, 절개를 지켜 살다가 죽은 사람이 또한 여섯 사람인데, 후세에 그들을 사육신에 비기어 생육신이라 하였다. 즉 김시습(金時習), 남효온(南孝溫), 이맹전(李孟專), 성담수(成聃壽), 원호(元昊), 조려(趙旅) 등을 말한다.

김시습의 별호는 매월당(梅月堂)이라고 한다. 그는 난 지 이레만에 능히 글뜻을 알아 세인이 그를 신동이라 하였다. 그가 다섯살 때에 임금 세종이 불러 보시고 삼각산이란 제목으로 글을 지으라 하였다. 그는 즉석에서 시 한 수를 지었다.

삼각산 높은 봉이 하늘을 뚫었고야,
올라가 북두성을 따 보리라.
뫼뿌리에 일어남이 구름과 안개뿐이랴.
능히 왕도를 만세토록 편안케 하리.

세종이 글을 보고 크게 기특히 여겨 상으로 비단 오십 필을 하사하시며 그의 슬기를 시험해 볼 양으로,

『네 능히 가져갈 수 있겠느냐?』

하시었다. 시습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비단을 풀어 끝과 끝을 매여서 오십 필을 한 끈에 이어 끌고 나갔다. 세종이 경탄하였음은 물론 그때부터 그의 명성이 일국을 뒤흔들어 모두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새라 하였다. 즉 다섯

살에 그런 재주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가 스물 한살때 삼각산 절에 들어가 공부하다가 단종의 퇴위를 들었는데, 그는 읽던 책을 모두 불사르고 사흘을 통곡하다가 중이 되었다. 그뒤 사육신이 새남터 형장에서 참혹한 형벌을 받았을 때 아무도 감히 시체를 수습하려는 사람이 없어 버려져 있던 것을 그가 밤중에 몰래 중들을 데리고 와서 그 토막토막으로 찢기운 시체들을 주워 모아 강 건너 언덕에 묻어 두었다.

오늘의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묘는 그렇게 하여 생겨난 것이라 한다. 그는 이내 비분강개한 세월을 보내다가 홍산 무량사란 절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가 죽은 지 삼년 만에 관을 열고 보니 그의 얼굴이 생시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는 문장과 필법으로써 이름이 높았을 뿐 아니라 천문, 지리와 의약, 음양술수에 이르기까지 통달치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때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가석할 뿐이다.

남효온은 별호를 추강(秋江)이라 하였는데 그는 김종직의 문하생으로 기상이 높고 깨끗하였으며 김굉필, 정여창, 김시습, 안응세 등 당대의 쟁쟁한 명사들과 교유하였다. 열 여덟살때, 소릉을 회복하라는 상소를 올렸으나 이루어지지 못하매, 그는 개연히 벼슬에의 뜻을 버리고 산림 속에 묻혀 살다가 평생을 마치었다. 그는 김종직의 제자였기 때문에 후일 연산군의 무오사화 때, 무덤을 파내어 시체를 찢기우는 형벌을 당하였다.

조려의 별호는 어계(魚溪)이다. 단종이 선위하던 날 명륜당에서 여러 유생들과 울며 작별하고 하향하였다. 그리하여 낙동강 기슭에 숨어 살면서 일생을 보냈다. 이맹전의 별호는 경은(畊隱)이다. 산형곡호 사람으로 그도 또한 세상이 그릇되어 감을 탄식하여 낙향하였다. 스스로 귀 먹고, 청맹인 체하며, 종신할 때까지 일체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

성담수의 별호는 문두(文斗)인데, 그는 교리로 있다가 벼슬을 내놓고 시골로 내려가 은거하였다.

원호의 별호는 관란(觀瀾)이다. 벼슬이 직제학에 이르렀던 것을 사퇴하고 낙향하였다. 단종이 위를 빼앗기자 조석으로 눈물을 흘리며 거적자리 위에서 지내었고, 승하한 뒤에는 영월로 들어가 3년을 시묘하였다. 죽을 때까지 매양 동편을 향하여 앉았다 한다.

역사의 인물 ②

충무공 이순신(李舜臣) 400주기



이순신(李舜臣) 1545～1598

조선 선조때의 명장

순국지 경남 관음포등서 다채로운 행사 벌여

1598년 12월 16일은 충무공 이순신(忠武公 李舜臣:1545～1598)장군 4백주기가 되는 날. 4백년전 이날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왜군 유탄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걸 알리지 말라』며 전투를 독려하다 숨졌다.

16일을 순국일로 잡는 것은 그해 서거일이 음력 11월 19일로 양력으로 치면 12월 16일에 해당하기 때문. 정부는 충무공 순국 4백주년을 준비하면서 탄신일을 양력(4월 28일 · 음력으로는 3월 8일)으로 기리고 있는 점을 감안, 순국일도 양력을 따르기로 했다. 충무공 4백주기를 맞아 순국지인 경남 남해 관음포를 비롯, 충남 아산 현충사, 한산점 등 충무공 유적지에서 그의 애국 정신을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독도박물관장이며 충무공 연구가인 이종학(李鍾學)씨는 서거 4백주기를 맞아 일제 조선총독부가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 충무공 유적비를 고의적으로 개명, 파괴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공개했다.

자는 여해(汝諧), 병조참의(兵曹叅議) 거(琚)의 증손, 정(貞)의 아들, 서울 출신. 1579년(선조 9) 무과에 급제, 함경도의 동구비보 권관(童仇非堡權管)에 보직되고, 이듬해에 발포수군만호(鉢浦水軍萬戶)를 거쳐 1583년 건원보 권관(乾

原堡權管)·훈련원 참군, 1585년 사복시 주부(司僕寺主簿)·조산보 만호(造山堡萬戶), 1589년 선전관(宣傳官)·정읍현감을 역임하는 등 미관말직만을 지내다가 1591년 유성룡(柳成龍)의 천거로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에 승진, 좌수영(左水營 : 麗水)에 부임하여 군비 확충에 전력했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최초로 옥포(玉浦)에서 적 수군 선견부대 30여척을 격파, 이어 사천(泗川)에서 거북선을 처음 사용하여 13척을 분쇄, 당포(唐浦)에서 20척, 당항포(唐項浦)에서 100여 척을 각각 격파하여 자헌대부에 승품되고 7월 한산도에서 적선 70여척을 무찔러(한산도대첩) 정헌대부에 올랐다. 다시 가또오(加藤)의 수군을 안골포에서 격파하고 8월 적군의 근거지인 부산에 쳐 들어가 100여 척을 부수고, 1593년 다시 부산과 웅천(熊川)의 적 수군을 궤멸(潰滅), 남해안 일대의 적군을 완전히 소탕하고 한산도로 진을 옮겨 본영으로 삼고, 그 후 최초의 삼도 수군통제사가 되었다. 이듬해 명나라 수군이 내원(來援)하자 죽도(竹島)에 진을 옮기고 이어 장문포(長門浦)에서 왜군을 격파, 적군의 후방을 교란하고 서행안으로 진출하려는 적 수군의 전진을 막아 왜군의 작전에 큰 차질을 초래케 하였다. 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가자 군사훈련·군비확충·피난민의 생업 보장·산업 장려 등에 힘쓰다.

1597년 원균(元均)의 모함으로 서울에 압송되어 사형을 받게 되었으나 정 탁(鄭琢)의 변호로 권율(權慄)의 막하에 백의종군(白衣從軍)했으나 정유재란(丁酉再亂)으로 원균이 참패하자 삼도 수군통제사에 재임, 12척의 함선과 빈약한 병력을 거느리고 명량(鳴梁)에서 133척의 적군과 대결, 31척을 부수는 대전과를 거두었다. 다음해 고금도(古今島)로 진을 옮기고 철수하는 적선 500척이 노량(露梁)에 집결하자 명나라 제독 진 인(陳璘)의 수군과 연합, 적군을 기습하다 혼전 중 유탄에 맞아 전사했다. 충성심이 강하고 전략에 뛰어난 용장으로서 임진왜란 중 싸움마다 승리했으며, 적 수군의 기세를 꺾어 제해권을 장악했고, 곡창지대 전라도를 방어함으로써 군량미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탱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 글에도 능하여 《난중일기 : 亂中日記》와 시조 등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1604년 선무공신(宣武功臣) 1등이 되고, 풍덕부원군(豊德府院君)에 추봉(追封), 좌의정에 추증(追贈), 1613년(광해군 5) 영의정이 더해졌다. 장지는 아산(牙山)의 어라산(於羅山), 왕이 친히 지은 비문과 충신문(忠臣門)이 건립되었다. 충무의 충렬사(忠烈祠)·아산의 현충사(顯忠祠) 등에 제향(祭享), 시호는 충무공(忠武公)이다.

(논)(단)①

다산(茶山)선생의 문학과 사상

문학박사 김지용(金智勇)
홍익대학교 대학원 강사

1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선생(1762~1836)은 조선조 후기의 실학을 대성한 고금에 드문 대 학자요, 작가이면서 대 저술가였다.

선생의 학문과 사상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애민우국(愛民憂國)의 정념으로 일관되었고, 부패한 당시의 사회제도를 개혁하여 국민들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려는 경륜(經綸)의 저술로 묶여져 있다.

선생의 저술전서인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를 종합 분류하여 보면, 문학적 저작으로 시문집이 25권 12책이요 유교전적으로 중국의 주자(朱子)와는 견해를 달리하면서 원전의 뜻을 살리고 우리 나라 현실에 맞도록 주해·강의한 저술이 경집(經集) 48권 24책과, 예집(禮集) 24권 12책이요, 음악서인 악집(樂集)이 4권 2책이며(「樂序孤序」), 정치·경제방면의 저술인 정법서가 「경세유표(經世遺表)」와 「목민심서(牧民心書)」 및 「흠흠신서(欽欽新書)」이른 바 1표2서라는 대저술 등이 39권 19책이고 지리서인 지리집이 8권 4책, 의학집(醫學集)이 6권 3책으로 도합 154권 76책이나 되는데, 특히 지리집과 의학집 및 시문중의 설(說) 18편등은 다산선생의 과학 방면의 저술이다.

2

이제 다산 선생의 시문과 작품 속에 깔려 있는 선생의 '경세제민(經世濟民)', 즉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면서 옳게 인도하려는 사상을 작품을 들어가며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말해 둘 것은 다산선생은 학자요, 작가이면서 또한 문학이론가 〈문학비평가〉라는 점인데, 선생은 약관시절부터 문체론〈文体論〉을 지었으니 이는 "문체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한다" 라는 문체변용이론이요, 문장론〈文章之學〉을 저술하되 "문장은 가슴속에 중화(中和)의 덕, 즉 윤리와 도덕으로 다져진 교양의 기초 위에 많은

것을 공부한 연후에 사물에 부딛칠 때 마음속에 감추어 둘래야 둘수 없이 터져나오는 것이 참된 문장" 이라는 것이었고, 시론(詩論)을 쓰되 "나라를 근심하고,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는 측은한 마음이 없이는 시는 못쓴다" 라는 이론에 철저한 시인이요 문장가라는 점이다.

「여유당전서」에는 시가 7권으로 거의가 장편시로 1,221편이 실려 있고, 산문이 4권으로 100여편이 실려 있으니 선생이 다작한 작가임을 알겠다. 선생은 14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여 20세까지는 82편, 20대에는 163편, 30대에 가장 많은 449편(그 중 암행어사를 지내던 시절인 34세때는 무려 103편의 시를 썼다) 40대에는 160편을 쓰고 있다. (그 후도 75세까지 썼다)

여기서 20대와 30대를 특히 거론하는 것은 가장 정열적인 시기에 줄기차게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의 불쌍한 모습을 그렸기 때문이다.

선생은 7세때 벌써 "작은 메가 큰 산을 가리었네. 아마 멀고 가까운 탓이겠지" 小山蔽大山 遠近地不同(소산폐대산 원근지부동)라고 써서 어른들을 놀라게 하였으니 일찍 공부도 많이 하고 시를 짓는 재능도 남다른 데가 있었음을 알겠다.

3

다산 선생은 청소년때부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인물〈지도자〉을 추앙하는 시를 썼다.

"신령스런 정치는 큰 바다 구정같고
그윽한 그 모습 제 홀로 아련하다
아깝다! 여기에 은자가 살지 않아
속세의 궂은 먼지 씻어내지 못함이요!"

은근히 나라 구할 덕망 높은 인사를 갈망하는 작품이다.

"꽃피고 진다한들 거들떠 보지 않고
구름이 흘날려도 고운한 마음
표범은 함께 놀자 옷소매 당기고
다람쥐 창틈에서 독경소리 엿듣네
산삼은 땅에 가득 캐는 이 없고
사슴들 겁도 없이 멋대로 뛰논다네"

지리산에서 도를 닦는 연담(蓮潭) 유일스님을 칭송하는 노래인데 머리는 백발이요 승복은 검정색〈승품을 초월함〉 솔잎 긁어 죽을 쒀서 목을 축이며, 칡줄기로 모자 엮어 머리 덮은 스님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노래하고 있다.

4

그러다가 다산선생의 우국(憂國)의 시가 20세부터 본격적으로 창작 되어 가고 있다. 선생이 나라를 걱정하는 근본 관점은,

"백대를 지나도록 어진 정치 없었고,
사해(四海)를 둘러봐도 선한 풍속 사라졌구나"

(原牧중에서)라고 개탄하는가 하면,

"백년 두고 조야의 정객은 경륜이 없고,
천리강산은 백성들의 슬픈 노래뿐,

그대가 문장재주 뛰어난들 무엇하리오.
시름겨워 밤마다 술마셔 얼굴 붉다"
(贈吳友國鎭 중에서)라고 하여 바른 정치 없음과,

"예악은2천년을 지나면서 어두워졌고,
풍습은 3만리를 건너면서 문란해졌다.
아찔한 이 근심을 뉘게 말하리
등잔불 마주앉아 홀로 새운다."
(十月十三日夜 중에서)으로 요약되는데, 그것은 당시 사회기강이 허물어지고 올바른 지도자가 없었음을 한탄하는 데서 기인되는 것이며 그래서 우국의 시를 줄기차게 쓰고 있다.

특히 다산의 20대 초반의 안목은,

"슬프다 이 나라 속인들 품성
주머니 속 갇힌 듯 궁색하구나
남의 것 모방에 급급하다가
어느 결에 제 것을 연마하려나
어리석은 무리들은 바보하나 떠받들고,
모두 함께 추앙하자 법석을 떠네"
(述志중에서 21세작)로 표현되었는데, 여기 '바보 하나'는 허수아비인 임금을 말하거니와 떠받드는 무리란 당시의 관료들로서, '백성을 위한 정치'는 뒷전이고, 제 정신과 민족 얼하나 없이 중국만 모방하며 허세부리는 꼴을 차마 보다 못해 젊은 울분을 토해 낸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패거리(당파)까지 지어가며 사색당쟁에 국력을 소모하고 민심을 현혹시키는 데는 '참을수 없는 분격'을 다산선생은 시로 엮었다.

"당파싸움 오래도록 그치지 않아
통곡할 이 일을 어찌하느냐
중국의 낙촉(洛蜀)때와 지(智)씨 보(輔)씨가 그 당과 성은 갈려도 싸웠단 말 못들었네"

다투는 기운은 맑은 하늘 가리우고
티끌만한 일로도 살륙을 일삼으니
약한자는 죽으면서 소리 한 번 못치는데
강한 자는 제가 되려 두 눈을 부릅뜨네"

여기 낙촉과 지씨와 보씨의 시구는 중국 송(宋)나라와 진(晋)나라때 당파와 후사문제로 사이가 안 좋아 두 성으로 갈리기는 했지만 싸운 일은 없다는, 즉 중국 역사에도 당파로 동족상잔(동족끼리 싸우고 죽임)은 없었다는 뜻이고, 약한 자와 강한 자를 원시에서는 새끼양(羔羊)과 승냥이 호랑이(豺虎)로 상징되었거니와 당파싸움은 나라를 망친 비극임을 시로 표현했다.

그러므로 다산선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웅다웅 싸움질 제각각 고집부려
객창에서 생각하니 눈물 흐른다.
산천은 옹색하여 삼천리 뿐인데
당쟁은 풍상풍우 이 백년을 넘기네"
다산의 이런 시를 읽으면서 우리들은 현재도 혼란스럽고 양두구육(羊頭狗肉)격인 정치판을 근심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

5

다산선생의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愛民)의 시는 더욱 처절하다. 선생은 백성들이 궁핍하게 살고 있는 현장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애민의 정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선생의 시 태반이 우국애민(憂國愛民)의 시이지만 몇 수만 들어보면

- 암행어사되어 적성마을 돌아보니 -

"농가 하나 뚝백이마냥 시냇가에 웁츠렸고
지붕 헐어 서까래가 북풍에 앙상하다.
묵은 재에 눈이 덮여 부엌은 싸늘하고
흰히 뚫린 벽틈으로 별 빛이 흘러든다.

방안은 쓸쓸하여 가진 거란 거이 없고
모조리 팔아도 칠·팔전도 못되겠네
개꼬리 같은 산조 이삭 세 줄기에
닭창자처럼 비틀어진 고추 한 타래

깨어진 항아리는 헝겊으로 때웠으며
찌그러진 선반대는 새끼줄로 얽었도다
구리 수전 벌써부터 이장이 뺏어갔고
무쇠 솥은 옆집 부자 빚돈대신 가져갔네.

검푸른 무명이불 오지 한 벌 뿐
「부부유별」그 윤리는 애당초 당치않네
어린 것은 옷이 헐어 어깨가 드러났고
바지나 버선은 애초부터 못꼬였다.

큰아이 다섯 살에 기병으로 등록되고
세 살난 작은 놈도 군적에 적혀있어
두 아들 군포세로 오백돈을 물고나니
제발 죽기 바라는데 옷이 다 무엇이랴

어허! 이런 집들이 온 천하에 가득한 데
구중궁궐 깊고 멀어 살피지도 못하누나
중국나라 옛 제도엔 직지사자(암행어사) 파견하여
이 천석 관리라도 직결처분 내렸건만

폐단과 어지러움 뿌리채 못뽑으면
공황이 다시 온들 어찌 이를 구제하랴
정협의 유민도를 넌지시 못내 잊어
이 시 한편 지어내어 임금께 드리노라."

다산 선생은 33세때 염찰사(암행어사)가 되어 경기도 일대를 염찰하다가 적성마을에 이르러 그 굶주린 백성의 참상을 보고 울면서 지은 유명한 시이다.

여느 암행어사라면 목에 힘을 주고 지방의 관찰사와 감사나 목사 등을 무릎 꿇리고 호통치면서 한밑천 단단히 챙겨가지고 돌아오던 그때 세태에 다산선생은 가난한 농가의 마당가에 앉아 그 굶주림의 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자 애썼다.

"마른 목은 삐죽하여 따오기 형상이요.
병든 피부 쭈글쭈글 닭살잦 같구나
우물은 있다만은 새벽물 긷지 않고
땔감은 있다만은 저녁밥 짓지 못해"

(飢民詩 중에서)라고, 수탈당해 이농

하는 유민의 모습과

"김매고 북돋는데 쟁이 연장 못쓰고
맨손으로 잠깐 사이 잡초를 뽑아내네
붉은 다리 거머리 붙어 선혈이 낭자한데
이 피를 그림그려 조정에 바쳤으면!"

(耽津農歌 중에서)라고 읊은 탐진 농민들의 고생하는 모습에서도 다산선생의 애민의 시선을 바라볼 수가 있다.

6

다산선생은 우국·애민의 우울하고 딱딱한 시만 쓰지는 않았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적인 정감을 미화하는 철학적인 시 또한 많이 썼다.

"삼경되어 담머리에 달은 지는데
어두운 죽란 앞들 풀벌레 울며 샌다
뜨고 지고 해는 가고 세월도 가는데
물 넘어 오고 가는 저구름 빠르구나"

다산선생은 어릴 때는 두보(杜甫)의 시를 좋아하며 공부했고, 21세때는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실학서적을 탐독하는 한편, 서울에 살 때는 집에 대로 엮은 정자 즉 죽란(竹欄)을 만들어 이 곳에 젊은 학자들이 모여 시를 지으며 공부했는데 이를 '죽란시사(竹欄詩社)'라 했다. 시동우회(동아리)인 것이다. 위의 시는 죽란에서 밤새워 공부하면서 쓴 시이다.

"봄 저녁 으스름, 맑은 강 유유히……
강언덕 나룻배 하나, 우거진 보리밭
사잇길, 사립문 기대서면, 정겨운 시골
정촌마을"

(宿汀村 중에서, 23세작)라고 읊기도 하고,

"멀리서 물은 유유히 흘러 정서롭고
식은 바위는 석양과 마주 앉아라
마른 등넝쿨은 마구간을 휘감고.
펄럭이는 낙엽은 나의 옷에 앉는다"

라고 자연을 입체적으로 짜서 철학적 사념으로 읊기도 하였다.



(논)(단) ②

옛문서에 관심을 갖자

성 창 수

역사의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옛기록을 정리하고 보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도 아직 옛문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더러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선진국이니 후진국이니 하는 기준의 요인은 여러 측면으로 가늠할 수 있겠으나 이 가운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록물의 축적량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역사를 중요시하며 기록물의 축적·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우리의 경우는 반만년의 문화민족국가라 하면서도 이에 걸맞는 옛기록물들을 올바로 전승보존해 오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문자화된 옛 문서들도 대부분 고려 이전의 것은 극히 드물고 조선시대 이후인 약 500년 안팎의 자료들이다.

이와같이 사료적 가치가 높은 귀중한 고문서와 옛책들이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인보다도 관리의 소홀로 말미암아 무수히 사라져 갔으며 그것이나마 오늘날 남아 있는 것들도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전국적 규모의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존(傳存)되어 온 옛문서는 일부 도서관이나 지방 박물관에 많이 수집되어 있으나 옛문서를 형태적인 면에서 일반도서와 별도로 취급하고 있으며, 미정리상태에 있거나 정리한 도서관이나 박물관도 정리체계가 서로 잘 정리되어 있는가 곤란을 빚고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문서학이 아니라 옛문서를 우리 문화,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데 기본이 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옛문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얻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옛문서 전반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傳存하는 옛문서의 소장처와 분량·비용 등을 파악할 수가 없다. 특히 개인 수장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옛문서 중에는 사료로서 가치가 매우 중요한데도 그들은 문서의 공개를 꺼리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문서를 체계적이고 조속하게 정리해서 활자하시켜야 하겠다.

대학의 도서관이나 박물관이 수장하고 있는 옛문서도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아직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자료의 경우는 입수, 구입할 때 묶어 놓은대로 방치되어 있다. 그 원인은 정리예산과 정리사서의 부족 및 옛문서에 대한 인식의 결여에 있다고 생각된다.

일제하 그리고 광복과 6·25동란을 겪는 중에, 또 그 이후에도 한국의 옛문서는 무더기로 소멸되어 갔다. 그 유형을 보면 초배지로도 써 버렸고, 과수원의 과일봉지로도 썼고, 물에 불려 이겨서 장판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옛문서를 표구하여 장식용으로 쓰는 것도 문제다. 古書店이나 골동품상을 통해서 몇장씩 흩어지는 것도 문제다. 여하튼 현재 전해지고 있는 옛문서나마 이 이상 소멸되지 않도록 강구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다음은 현재 소장되고 있는 옛문서에도 보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家門 전래의 옛문서도 대개 창고같은 곳에 상자 속에 뭉치로 방치되어 먼지와 습기는 물론 빗물과 풍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나 박물관의 경우도 방충 등 보전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옛문서의 조사, 정리, 활자화사업이 시급한 것은 물론이나 현재 옛문서의 인멸, 유실을 막고 보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현재 한국 옛문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외국으로 빠져나간 옛문서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일본 동경대학과 국립국회도서관에 가있는 자료와 불란서 박물관에 있는 옛문서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환청구를 추진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여의치 않으면 원본이라도 Micro film, Micro fiche로 복사해서 수집해야 한다.

현대사회가 정보화, 세계화시대라고 해도 그 토대는 옛문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 사실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늘 한번 쳐다보는 여유로 선현의 지혜가 살아 있는 옛문서에 관심을 갖자.



(논)(단)③

"전통문화 발굴 보존해야"



광주 문화원장 박용재

신임 박용재 문화원장(66)은 서울과 경기동부에서 충청지역까지 잇는 전통문화의 뿌리는 광주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피력한다.

『남한산성 맨위에 자리한 수어장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송파·하남·남양주·성남지역 모두가 광주문화권에 예속되 있다』고 강조하는 박원장은 백제의 시조 온조왕의 도읍지도 남한산성 터였다는 주장이다.

광주군 토박이로 남달리 광주문화를 사랑해 온 박원장은 특히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복귀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각 지역지역부터 내려오는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민속놀이부터 되살리는 것이 조상의 숨결을 느끼게하는 정신문화를 잇게되는 길이라는 것이다.

행정단위 마을이름 전통명칭 사용해야

또 박원장은 마을구분이 1리, 2리등 행정단위로 나눠져 우리의 옛 고유명칭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경안5리는「안골」7리는「갖골」장지3리는「절골」탄벌3리는「샛터」등의

고유이름이 있는데도 불구 행정편의로 1,2,3리등의 숫자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말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끌고 쟁기로 논과 밭을 가는 문화원장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자수성가했다고 자부하는 박원장은 예순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불구 지금까지도 아침6시면 소를 끌고 쟁기로 밭을 가는 농부가 직업이다.

『인류 문화의 뿌리는 농경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하는 박원장은 『농협조합장 재임당시 농업인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는 조합장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통문화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문화를 잃게 되는 것이지요』

광주문화 고유색 찾아 군민모두가 관심가질때

박원장의 고민은 당장 문화원이 옛 광주의 명성만큼이나 왕성한 활동이 있어야 하나 도시가 변해가면서 문화원에 대한 지역민들의 무관심이 팽배해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문화가 고유의 색깔을 되찾고 꽃을 피우려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그리고 예술인들의 자구노력, 주민들의 의욕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차로 저널지



(논)(단) ④

"율기의 윤리"

도척면 진우리 주진성

인간이 모든 생류의 영장인 까닭 가운데 하나는 질서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체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질서를 만들어 내고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질서를 만들어 내고 또한 그것을 위한 사회적인 통제 장치도 만든다.

이 점이 바로 본능에 의하여 살아가는 생류와 다른 점이다. 질서는 사회적 전통에 의하여 인습화된 것이든 또는 법체적인 의미로 제정된 것이든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작용한다.

하나는 작위성의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부작위성 측면이다.

전자는 무엇을 해야한다는 의미이며 후자는 어떠 어떠한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야 한다는 것은 권장 사항이며,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자제 사항이다. 권장이 요구되는 일을 게을리하면 의무의 해태라고 하고 자제 해야 할 일을 그대로 실행하면 탈선, 또는 범법의 결과를 빚게 된다. 모두가 당위성의 의무를 성실히 준행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생겨나는 질서 위반의 현상인 것이다.

질서란 쉽게 표현하면 윤리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윤리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위치에서 지켜야 할 선이기 때문에 그 선은 사람들이 지키든 안지키든 언제나 엄연히 존재하는데 마치 도로가 하나의 선으로 존재하면 모든 통행인이나 차량에게 각자의 가야할 정도를 제시해 주고 있는것과 같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지켜져야 할 선으로서의 윤리는 효이며 그 효를 실행하는 것이 질서로서의 효행이다. 국가와 국민 사이에는 충의 윤리가 존재하며 아울러 충성스러워야 한다는 질서가 뒤따른다.

그러므로 정치인에게 올바른(正) 행동(正)이 요구되고 기업인에게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승화 시켜야 할 책임이 뒤따른다. 윤리를 가리켜 질서의 내면이라고 한다면 질서는 윤리를 본질로 하는 외면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정연한 질서 문화는 언제나 뚜렷한 윤리관을 그 바탕으로 한다. 효가 무

엇인가를 뚜렷이 인식해야만 자녀의 노릇을 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간적인 성실성을 바탕으로 하여 발현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지켜져야 할 생활의 질서가 확연해진다. 내실이 없는 질서는 형식화 되기 쉽고 지속화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인기의 독점이라든가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하여 스스로를 위장하는 구두선적인 애국론등은 충성이라는 내실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수단이 될 뿐이며 생활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와같은 모든 폐해는 인간다워야 할 자신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또한 저 나름의 최적최선의 역할을 정의하려는 성의가 부족한 데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즉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윤리의 가치기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율기론에 관한 실천 방법을 제시한 학자가 있다면 그는 우리나라 실학자의 한 분인 순암 안정복 선생이 아닐까 생각한다. "임관정요"는 위정자로서 지켜야 할 바른길을 밝혀 놓은 책으로서 그의 위정자관이 잘 나타나 있다. 율곡 선생에는 시대에는 고금의 구별이 있지만 도리에는 고금의 구별이 없다고 한 바 있다. 순암 선생 율기론 역시 시대는 달라도 언제나 진리로 받아들일수 있는 명훈중의 명훈이다.

"임관정요"는 상 하속편으로 3대별되는데 상편은 "정어"의 내용으로 16개장으로 되어 있고 하편은 "정적"의 내용으로 5개장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속편은 21개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독창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명훈이 담겨져 있다.

여기서 논술하고자 하는 율기론은 바로 속편 제8장 어리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어리는 요즘의 말로 공무원 즉 관리를 통솔하는 바른 길을 밝힌 것이다. 순암 선생은 어리지도는 오로지 상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율기하는데에달려 있다고 밝혀 놓았다.

그렇다면 율기지도는 무엇인가? 순암 선생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서 논하고 있다. 첫째, 공평무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한 글자로 "공"이라고 표현하였다. 즉 공평무사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공평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가짐이 공평하면 사욕에 의해서 양심이 동요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청렴결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청렴결백하면 재화에 의하여 유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만 청렴결백 할 수 있는 것일까?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제욕해야 한다고 논하고 있다. 셋째 옳고

그른 것을 밝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누구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으면 남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기 쉽다.

다시 말해서 사리에 밝아야만 속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물과 사상을 살펴서 그 시비와 곡직을 가려낼 줄 알아야 한다. 넷째 위신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위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자신을 가장 바르게 유지하기 위한 "위격"의 보장을 의미한다. 위격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객관적인 자아인식의 가치기준을 말한다. 인격이 사람다운 품격을 말하는 반면 "위격"은 사회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위신을 말한다. 자존심을 짓밟히면 비 이성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게 되며 또한 사회적인 위신을 짓밟히면 비인격적인 언동도 불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까닭은 위신은 인격을 바탕으로 하여 유지되고 인격은 이성을 내용으로 하여 관리되기 때문이다.

천리와 인욕은 서로 병존할 수 없다. 때문에 진리나 사욕이 서로 충돌하게 될 때에는 서슴없이 사욕을 버릴줄 아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 그같은 용기가 없을 때 정치인은 독선적인 정치형태를 낳고 경제인은 독과점 내지는 비개방적인 기업경영을 하며 사회적으로는 민주화의 풍토가 성숙되기 어렵다. 민주화의 지름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율기지도일 것이다. 어떤 책임이던 그것은 남에게 전가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율기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논)(단) ⑤

광주군의 발전

1998년 6월 4일
11만 광주군민의 승리 ! 민주주의가 꽃핀 날
오늘의 영광의 주역 박종진 군수
그대는 참으로 우리의 자랑이오 자존심입니다

지난 3년간 그대가 행한 빛나는 군정의 실적은 한강물을 힘차게 다시 흐르게 하고 무갑산은 더욱 빛나게 솟아 올랐습니다.

하루를 3일로 3년을 6년으로 앞당겨 이른 새벽부터 뛰며 열중하신 덕택에 광주는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안도시계획 확정이란 찬란한 장을 연 것을 비롯 도로·교통·상수도·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군민의 복지 등 실로 헤아릴 수 없는 실적을 그대 아니고야 감히 생각하겠어요.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편에 서서 군민을 사랑하시며 군정을 펴신 그대
억울한 일 없도록 그들편에서 같이 울고 웃으며
노력하신 모습을 11만 군민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훌륭하고 빛나는 전원도시가 될 것입니다.

광주는 박종진님의 열과 성으로 화려했던 400년간의 옛백제의 도유지로 다시 꽃피울 것입니다.

오! 위대한 새 날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광주의 앞날은 분명 밝아오고 있습니다.
훌륭한 큰 머슴
착하고 헌신적인 아내의 내조
11만 효의 빛나는 광주군민
우리모두 영광의 춤을 춥시다.
민주주의 승리의 축배를 듭시다.
여도 야도 없는 광주군이 하나되어 손에 손잡고 힘차게 힘차게 나갑시다.

1998. 6. 4
홍 광 석

황 진 이

퇴촌면 관음2리
구름재 박 병 순

어른님 내가 되어 이 밤으로 가고 싶다.
봉(峯)과 봉 물과 물 눈보라 속이라도,
서렸던 가슴을 풀어 굽이굽이 펴리라.

멋진 여인치곤 동서고금 진밖엔 더 있는가!
천추에 고운 홍안 빼어난 시·가·금을!
번지는 시조의 가락과 자락 온 가슴을 울린다.

한을 멋으로 다스린 북녘 들에 핀 참꽃 한 송이,
불타는 정열 못 다한 평토로 사라진 여인……,
거슬러 가슴에 여울져 피는 영원의 참꽃 넌 황진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허리를 분진 슬기!
춘풍 이불 서린 한을 그 아니면 누구 알리?
어른님 당신이 되어 어서 빨리 날아오오.

시

낙 엽



광주종고
교사 박 장 수

가을에는
내 안에서 내가
찢기어 나가는
소리의 끝을 알아야 한다.

열정이 충만한 고비마다
산새는 울어 주었고

나와 내가 밀착하여
겉바람은 굳이 마다한 채

내밀한 그늘 아래
서로를 인식해 주던
그 날의 의미로움도 빛났건만

계절이 꼬리마저 움츠리고
하늘이 닫히는 문턱에서

나와 나 사이에는
담배씨 만한 추억이라도 남았는가.

가을에는
흔들리다 추락하는
소리의 끝을 알아야 한다.

시

고 찰

광주읍 송정3리 이 명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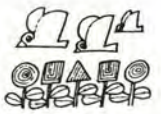
고요를 깨뜨리는 풍경소리
천년 리듬으로 쌓이는 뜨락에
여승같은 모란이 피고
모란같은 여승이 웃는다.

그 다스운 웃음 흘러도
나비는 오지 않고
빛 바랜 벽화들만 낮하늘에 별로 뜨고
봄을 줍는 산새들만 반야경을 외운다.

뜨락은 산을 보며 푸르고
산은 하늘을 보며 짙은데
햇빛은 모란을 태우고
모란은 5월을 태운다.

시

어느 봄날의 일기



퇴초면 관음1리 이 종 남

내 안에 당신이 피 듯
들판에 꽃이 핍니다

꽃피우느라 고단했던 지난날의 고통은
촛불처럼 꽃 속에서 저리 타고 있는데
머잖아 꽃이 진 자리 잎새가 돋아나듯
나 당신을 지운 뒤에도 푸르를 수 있을지
왜 당신 앞에선 늘 눈물이 되는지
번번 이별을 생각하다 종내는 죽음을 떠 올리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울어도 다 울지 못하는 그 어떤 슬픔과
태워도 다 타지 않는 그 무엇이 남아있어
내 안에서 이리도 출렁이는지
꽃이 기쁨이다가 슬픔이 되는
초록이 이별처럼 두려워지는 봄날
나는 끝도 없는 그리움속에서서
또 이 봄을 다 놓치고 맙니다
꽃은 다 지고 있는데
내 안의 당신을 아지 지우지 못하고

축시(祝詩)

너른 고을 큰 문화

실촌면 곤지암리 최 언 진

무갑산 영봉에 꽃구름 피어나고
남한산 넘나드는 온갖 산새들이
광주 문화원 뜨락까지 날아와
숨결 더운 잎새들을 흔들어 대며
경사스런 오늘을 노래하고 있더이다.

아득히 단군의 숨결이 들리고
백제의 찬란하 호흡이 흐르는 곳
실학 선열의 얼을 받아
여기 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한
새로운 장 열렸노라 하더이다.

박경득 원장님이 닦아 놓으신 터전
광주문화의 선봉이 되실 박용재 문화원장님
아름다운 저 자연과 함께
박종진 군수님을 앞세운
우리 군민 모두 어울려
축하의 꽃다발 올립니다.

광주의 얼을 되찾고
광주의 맥을 다시 세워
문화의 꽃 만발하고
문화의 노래 널리 퍼지고
문화의 물결 덩실거리는
문화의 광주가 될 수 있다면…

아 아
문화의 선구자로서
광주 정신 문화의 횃불 높이 드시어
깊고 큰 뜻 너른 고을에 펼치소서.

시

진달래 산



최월면 도평리 박 병 선

산이 불게 물들고 있다.

앞산이 물들면
뒷산도 붉은 채색으로
넓게 번지고 있다.

밝은 햇님도
어두운 달님도
산과 산 사이를 지나며
붉게 익어가고

꽃물 풀어헤친 산속에
발목 묶인채 헤매이던
내 마음도
이산 저산 주워 담으며
불길이 솟는다.

수필

통일 전망대

초월면 도평2리 이 정 자

가본곳이라 별로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시간관념이 부족하여 코리아타임 이라는 부끄러운 별명이 붙은 우리네 사정을 생각한다 해도 너무나 짜증이나 집으로 발길을 돌려야 겠다고 마음먹고 있을때 차는 내 엉덩이를 붙잡고 출발신호를 울렸다. 차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왠지 모르게 을씨년 스러웠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내손을 어루만질때 고개를 돌려 창밖 하늘을 보니 화사하리 만큼 맑고 깨끗한 날씨에 갈까말까 망설였던 내 마음을 봄눈 녹듯이 일시에 쏵— 하고 녹아 내리면서 흥이나기 시작했다. 이왕 나섰으니 기분좋게 보람되게 하루를 보내자 라고 마음을 먹다보니 벌써 자유의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다.

전에도 이곳을 지나갈때 가슴이 쩡— 하면서 친정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린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가슴이 저렸다.(함경도 원산 1.4후퇴때 부모님 일가친척분을 뒤에 남겨두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고향땅을 바라보며 사시다가 끝내 가보지 못한채 돌아가셨다)

자유의 다리밑으로 눈길을 돌렸다. 물이 빠져나가 갯펄만이 남아 있고 그 옆에는 하얀 연기를 토해내며 달리던 철길이였는데 지금은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기둥이 몇개 있을 뿐이었다. 자유의 다리를 건너 통일 전망대 앞에 도착하였다. 북적대는 많은 인파속에 실타래처럼 엉켜 내 동료를 기다리고 찾기에 분주함을 막기위해 삼삼오오 짝지어 구경하고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굴비엮듯 줄지어 표끊어 전망대 위에 올라와 북녘땅을 바라보았다. 화창한 날씨 탓으로 선명하게 보였다. 우리는 여유가 있어 흥청망청 버리고 쓰고…

500원 짜리 동전이 아까운줄 모르고 망원경에다 쏟아 붓는데 망원경에 비치는 그곳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니 내 가정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내 아들은 먹을것에 욕심이 없어 젓가락 몇번 움직이다가 숟가락 놓고 이것저것 골고루 먹어야 하는데 편식하고 과자를 먹다 남으면 아까운줄 모르고 버리고 학용품

또한 아껴쓸줄 모르고 무엇이든지 돈으로 사서 쓰고 맘에 들지 않으면 버리고 또 사면 된다는 풍족한 사회에서 사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나 또한 음식을 먹을만큼 만들지 않아 음식물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재활용 조차 하고 있지 않으니 나부터 아끼고 실천하여 내동포 도우는데 앞정서야 겠다고 마음 먹으며 전망대를 내려와 식당에 가보니 벌써 식사들을 거의 마칠 무렵이 되어 미안함을 내색하고 간단히 점심식사를 마친후 제3땅굴을 보러갔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우리가 도착 되었을 땐 청소년 연맹단체에서 견학을 와 현역군인이 땅굴의 내력과 주의사항을 들려주고 있었다.

전번에도 와 보았지만 제3땅굴을 보러 들어가기는 처음이었다. 어두웠기에 전기불을 켜놓아 둘러보는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천장에 돌틈사이로(강물밑을 판 것이라)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옆벽을 보았다. 북에서 남으로 파들어온 굴이라고 말하듯 '정' 박은 자리가 선명한데도 북에선 우리가 땅굴을 파 놓은 것이라고 우기며 억지를 부린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뿐이었다. 지금 이북 실정은 자본부족과 경제성장의 부진으로 인하여 생활필수품이 부족하고 가뭄까지 겹쳐 식량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2년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권력을 계승하지 않고 새로운 정책없이 김일성 유훈에 의해 통치를 계속해오며 철저히 조직화 되고 폐쇄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내 동포를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속히 대화의 장을 열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것 처럼 우리도 그런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굴밖을 나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버스에 몸을 내맡겨 집으로 향했다.



수필

회 갑 연

광주읍 경안3리 최 영 옥

화사한 봄날!

온 세상이 분홍빛으로 봄의 나래를 펴는데, 몇날 몇칠 마음이 오락가락 생각이 많아진다.

괜스레 서글퍼 지기까지 하다가 골똘히 상념에 빠진다.

그러나 현실은 내 앞에서 어김없이 충실함을 요구하기에,

새벽부터 서둘러 탄벌리에 올라가 아침식사를 준비했다.

화사한 봄날 아침은 잔칫날 날씨로 손색이 없었다.

오늘은 아버님(시숙부님)의 환갑일이다.

대전에서 올라오신 당숙님, 고모님 모두함께, 둘러앉은 아침식사상이 대식구 잔치상이다.

잔치는 별도로 뷔페에서 하기로 하고 식구들 간의 아침상이 여느집 잔치상과도 같았다.

아침식사를 하는 도중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말씀하였다.

"잔치 할 때 절을 너희가 제일먼저 해라" 하시기에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 드리니 "다른 집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는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한다"

무엇이든 먼저 하고 부모님 업을 때 "아범이 아버지를 업고 수경(첫째)이가 어머님을 업으라고" 하신다.

우리는 장조카로써 모든일을 추진하고 준비하는데 정성된 맘으로 했으나 한발 물러서서 시동생들을 돋보이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님의 남다른 배려에 "예" 하기로 마음 먹었다.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눈가에 이슬을 보고 울먹이시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

만수무강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회갑 잔치가 시작되어 남편과 함께 잔치상에 "홍"과 "청"에 촛불을 밝히우고 부모님께서 믿고 의지하시는 바 대로 맨 처음에 절을 올렸다.

감회가 새로웠다.

깊으신 부모님 사랑에 흠뻑 젖어 큰절로 삼배를 드렸다.

아버님의 약력이 소개되는 사회자의 감동어린 사연은 진정 아버님과 남편이 겪어낸 인간 승리의 삶 그대로였다.

6.25를 겪고 남편이 백일 되었을때 그 전쟁으로 아버님을 여의고 할아버님, 작은 아버님과 아픔을 달래고 애틋한 정으로 똘똘 뭉쳐 사셨던 세월!

우리의 절을 받으시며 흘리시던 눈물에서 헤아려 볼 수 있었다.

"너희가 큰 아들이고 큰 며느리이다" 하시던 그 말씀이 지금도 귓전에 맴도는 듯하다.

시집 가던날부터 "아버님" "어머님" 이라 부르며 차림에 올라 갔다가 저녁에 내려 오가던 길—

숯가마골 길—

남편을 키워 주시고 결혼해서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사람에 큰 절로 모든 것을 대신할 뿐이었다.

미흡함과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넓으신 사랑으로 맏이의 위치에 똑바로 서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햇살이 온 누리에 영명하게 쏟아져 내리는 날에 감동을 온마음 다해 간직하며 아들 며느리로써의 효를 다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기행문

옛길 찾아 도보 탐방대회

광주문화원 이사 이 재 경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 지난지 며칠, 창밖의 새벽 공기는 제법 차갑다. 지난 달 장수산악회가 포천군 일동면 청계산을 등산할 때에 박용재 문화원장님이 제안을 했다. 조상님들이 도보로 걸어다니던 옛길을 찾아 걸어보며 조상의 얼을 되새기고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여 밝은 미래를 설계해 보는 것은 뜻있는 일로 생각해서 본 행사를 마련하겠으니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98년 11월 12일 9시 파발교 고수부지에 고희(古稀)를 넘긴 노인을 비롯해서 40대 여성까지 80여명이 모였다. 옷차림 모자며 등산화 각양각색 등산 가방을 멘 사람, 지팡이를 짚은 사람 등산 경험이 많은 만큼 폼도 좋아 보였다. 인자요산(仁者樂山) 지자요수(智者樂水) 어진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탐방대회 일정표를 받아 보았다. 09 : 00~10 : 00 파발교 고수부지 집결 오전리까지 버스로 이동 10 : 00~12 : 00 오전리 주차장 출발—새우개—회덕리—농업기술센터 12 : 00 중식으로 되어 있었다. 아침 09 : 30경 오전리 주차장에 버스가 도착하였다. 남한산성 골짜기 아름다운 단풍은 절정을 이루고 있다. 오늘 산행코스는 그리 힘들지 않아서 좋다. 내가 광주초등학교 3학년때 선생님 인솔하에 학우들과 함께 소풍 가던 길이다. 50여년이 지난 지금 옛 추억에 잠겨 본다. 포장된 도로를 따라 20여분 걸어서 오전리 마을입구에 도달하니 김창섭 노인이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옆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새우개 산마루에 오르니 앞서 온 일행이 성황당 돌더미 옆에 앉아서 쉬고 있었다. 언덕위에 하얀 안내판이 서 있다. 이곳을 지나던 행인이 마을의 수호신인 성황당에 돌을 던지며 마을의 무사 안녕과 소원을 빌었다고 한다. 1917년 군청소재지가 산성에서 경안으로 이전하였다. 이길을 따라 조선시대 주민들은 군청에 일도 보고 이웃과 다툼이 있을 때 광주 유수앞에서 재판을 받기도 하였다. 성황당 앞에는 천하대장군은 쓰러져 누워있고 지하여장군만 외로이 서서 마을을 지키고 행인의 안녕을 지켜주고 있다. 먼저 도착한 두 여인이 정성스

레 장승에 절을 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가정의 평화 자손의 발복 국태민안과 극심한 IMF 경제난을 조속히 극복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듯 매우 진지해 보였다. 우리 일행은 정상에서 기념 사진 촬영을 하였다. 최종현 전사무국장이 찍었으니 틀림없이 잘 나올 것이다. 안내판 주위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노인 특유의 "유모어"로 주위 사람을 웃긴다. 오륜삼강을 배우지 않아 버릇이 없다는 농담이다. 풍수지리를 하는 이용태 후배는 음양 오행설과 청용 백호 명단논에 열을 올린다. 장수산악회는 다음달 산행은 이곳 세우게 고개를 지나 군월산으로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상의 발자취를 따라 산에 오르면서 잠시 생각에 잠긴다. 이곳을 오고간 많은 사람들 병자호란때 청나라 군사와 목숨걸고 싸우다 전사한 사람 얼마였든가. 300년전에 이중환이 쓴 택리지(擇里志)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광주는 사람 살만한 곳이 못된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가 되어 적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거나 많은 희생을 당하였다고 한다. 이책에는 백제시조 온조가 남한산성에 도읍을 정하고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곳이다. 1636년 12월 병자호란이 일어 났을때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한 삼학사(홍익찬, 윤집, 오달제)는 낯선 심양에 끌려 가서 가진 고생 끝에 형장에서 참형에 처하게 되었다. 광주는 충절의 고장이다. 현절사에는 삼학사와 김상헌 정온 선생 위폐가 모셔져 있다. 병자호란이 터지자 예조판서 김상헌은 당당히 싸울 것을 주장한 강경파였다.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우리의 출병을 요구했을 때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상소를 하여 1640년 심양으로 잡혀가게 되었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보자 한강수야 아! 언제 이몸이 아름다운 조국의 산천을 다시 대할수 있을까』 하염없이 흐르는 두줄기 눈물은 막을 길이 없었으리라. 임금도 가고 주전파도 가고 주화파도 가고 조선왕조도 가고 이제 김상헌의 시 한수가 남아 그 시대와 환경과 처지를 말하여 주는구나. 정든 고향산천을 등지고 끝없이 가는 나그네! 나도 나의 길을 가야만 하겠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야 겠다. 조상들이 지켜온 내 조국을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복된 사회를 물려주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임이다.

청응 김상현이 낯선 땅 심양을 향해 볼모로 잡혀가며『가노라 삼각산아 다시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올동 말동 하여라』는 시구를 생각하며 산을 내려왔다. 어쨌든 오늘의 옛길 찾아 도보 탐방은 상당히 뜻 있고 보람있는 행사였다. 광주문화원의 지속된 발전을 기원한다.

기행문

문화유적 답사를 다녀와서

—비무장지대 제3땅굴, 자운서원, 행주산성—

너른고을문학 회원 허 정 분

오랜 옛적 백제의 고도였던 광주가 행정구역상 여러곳으로 분할된 작금, 광주문화원이 설립된후 우리지역 문화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신 문화원 원로님 및 회원님들과 파발교 고수부지에서 두대의 버스에 올랐다.

제3땅굴 도라전망대 자운서원과 행주산성을 답사하는 문화유적답사가 목표였다. 버스안은 명성과 안면으로 익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었지만 문화원 회원 새내기인 나로써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어색한 자리였다. 백발이 성성한 문화원 이사님들은 격동의 한세대를 꿋꿋이 살아오신 연륜답게 중후한 인품으로 유서깊은 내 고장의 문화를 사랑하는 애향심과 자긍심이 드높으셨다.

박용재 문화원장님의 명쾌한 인사말씀, 소탈하고 성품만큼 서민적이고 따뜻하고 한 지역문화를 이끌어가실 원장님께 기대하는 마음도 크다.

차창을 스쳐가는 풍경이 깊어가는 가을색으로 계절의 말미에선 쓸쓸함이 베어난다. 강변도로를 지나서 버스는 어느 지점부터인지 북쪽으로 향했다.

고향땅을 지나서 통일로로 접어들자 곧이어 유유한 임진강 물줄기가 나타났다. 임진강! 남과 북을 흐르는 강!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고귀한 생명을 담보로 건너던 강! 자유를 향한 열망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던진 강, 유구한 세월동안 강물은 말이 없고 어둡게 내려앉은 강폭만 하구로 갈수로 넓게 펼쳐져 보인다. 임진강을 가로지른 자유의 다리를 절반쯤 건너자 다리 곳곳을 바리게이트로 차단한 검문소가 나타났다. 출입허가증이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 하다는 설명에 이곳이 바로 사상이 다른 민족비극의 현장이구나 하는 생각에 바짝 긴장되었다. 민간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 비무장지대안은 키큰 은사시나무와 오리나무가 보초를 서듯 빽빽히 들어서 있고 도로 양쪽에 끝없이 쳐놓은 철조망과 함께 〈지뢰〉라는 빨간 표식판이 섬뜩한 경계심이 들게 한다. 우리 일행은 국군의 안

내를 듣고 제3땅굴로 들어섰다. 1978년 우리국군의 시추공 탐사로 발견해 낸 땅굴중 서울을 코앞에 두고 비수처럼 뻗어있는 총길이 1635m의 제3땅굴은 북한의 무력침공 야욕이 그대로 드러난 천인공노할 전쟁망상의 현장이다. 성인 두사람 정도가 겨우 통과할수 있는 폭과 높이로 지하 300m지점까지 파내려간 땅굴로 시간당 3만여명의 무장병력이 이동할 수 있다니 그 가공할 목적에 오싹한 전률이 온몸에 인다. 고무밧줄로 이어진 지하굴을 얼마나 내려갔을까 산소조차 부족한 누습한 굴속에서 몇십미터 앞에 적군을 두고 경계를 서는 우리의 국군이 있었다. 말없이 총을 겨눈채 북쪽을 주시하는 보초병들이 안쓰럽기만 하다. 으스스한 한기가 느껴지는 암반층을 뚫은 굴을 조심스럽게 올라오자 온몸이 굵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우리 일행은 도라전망대에 도착해서 그곳에서도 국군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눈앞에 멀리 보이는 북한땅을 바라 보았다. 여러대의 망원경으로 북한을 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었는데 그들이 대남선전용으로 가꿔논 기정동 마을이 바로 눈앞에 있듯 훤히 보였다. 야채작업을 하는 북한주민들, 몇층씩 지어논 획일적인 주택들, 요란한 구호들 우리나라 어느 농촌을 가도 그곳보다 더 운치있고 개성있는 주택들이 많은데 선전용치곤 썰렁한 폐광촌 같은 북한을 바라보며 아직도 그들이 시대착오적 오판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이없는 웃음만 웃을 수 밖에 없었다. 날씨가 맑을때는 개성과 송악산이 한손에 잡힐듯 보인다고 한다. 38선을 기점으로 동족끼리 총뿌리를 맞댄 이념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건만 바람은 자유롭게 비무장지대를 넘나들며 가을날의 정취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민주주의 노선을 택한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우리의 국군은 얼마나 고마운지 고요한 정적이 감돌지만 보이지 않는 생사의 기류가 흐르는 38선은 그대로 반공교육의 산실이었다.

그곳을 떠나 다다른곳은 유명한 율곡선생의 기념관이 있는 자운서원이다. 조선중기 위대한 철학자며 경세가이던 선생은 본적이 이곳이었다 한다. 아버지 이원수공과 우리나라 현모양처의 대명사인 신사임당을 어머니로 모신 선생은 칠남매중의 3남이셨다. 조선조 가장 뛰어난 학자인 선생은 아홉번의 장원급제와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거의 도맡다시피 왕의 신임이 두터웠다. 선생은 관직에 계시면서도 학술과 교육 숱한 저서를 남길만큼 국가에 혼신의 열정을 다 하셨다. 백성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수 있는 실학으로 앞날을 예견하는 안목으로 여러가지 체계적인 계획을 왕에게 간곡히 진언한 충신이었지만 당파싸움으로 일관하던 당시의 정세는 선생의 뜻을 반대만 했고 선생은 49세의 나이로 돌아가시니 애석

할 따름이었다.

파주시 자운산 기슭에 세워진 자운서원에는 율곡선생 일가의 친필 및 그림 어머니 신사임당의 초상과 율곡선생의 초상이 걸린 기념관이 있고 묘소, 신도비, 제각이 있었다. 여러기로 나뉘어진 묘소들은 서열에 관계없이 집안식구들이 묻혀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율곡선생의 봉분과 등을 맞댄 형태로 쓴 봉분이 눈길을 끌었다. 선생이 돌아가신후 자결한 부인의 무덤을 그자리에 썼다고 누군가가 설명을 하자 이구동성으로 감탄하는 일행의 감탄사가 이어진다.

자운서원을 벗어나 뉘엿뉘엿 지는 해를 따라 행주산성에 도착했을때는 노을빛으로 물든 저녁해가 서산마루에 걸린 무렵이었다.

임진왜란때의 명장 권율장군이 이곳 덕양산에서 왜군을 물리친 행주대첩으로 유명한 행주산성은 서울을 지키는 요새였다. 적의 수중에 떨어진 서울을 탈환하고자 이곳에 목책으로 성을 쌓고 명나라의 원군을 기다리던중 명나라군이 벽제에서 변변히 싸우지도 못하고 왜군에게 대패한후 행주산성은 고립되고 말았다. 왜군은 1593년 2월 12일 새벽 6시경 3만여명의 병력을 이끌고 행주산성을 여러겹으로 포위한 채 맹렬한 공격을 가해 왔다. 이에 장군은 겨우 2천 300여명의 관군을 이끌고 죽음을 무릅쓴 결사의 항쟁으로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 왜군의 8할을 전사시킨 이 싸움은 12시간동안이나 치열하게 전개되어 아군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속에서 아낙네들도 치마를 짧게 잘라 만든 앞치마에 돌을 날라다주어 사기가 오른 아군들이 돌을 무기로 적군을 물리치는 혈전이 되었다. 이에 행주치마 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행주대첩은 이순신장군의 한산대첩 김시민장군의 진주성 싸움과 함께 왜군을 물리친 빛나는 전과를 세운 임진왜란 3대 전투중의 하나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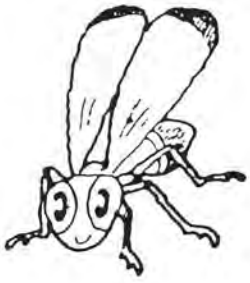
당당한 풍모로 선 권율장군의 동상앞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충정을 다한 그분의 기백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속설도 있건만 IMF 사태이후 수백만에 이르는 실업자가 고통을 받고 가정이 기업이 파산되는 지경에 이르러 외국에 원조를 구하는 현실이 영웅이 나기는 커녕 파렴치한 정치인들이 판치는 불신시대로 전락하고 있는건 아닌지 씁쓸해진다.

관군, 승병, 의병, 여성까지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않은 대리석 동판의 조각과 글을 읽노라니 새삼 선열들의 호국정신에 숙연한 마음이 든다.

한강이 굽이도는 산성의 정상에 세운 행주대첩이다. 그날의 전투를 재연한 슬라이드 영화를 마지막으로 일행은 귀가길에 올랐다. 짧은 일정으로 중요한 역사

의 현장을 둘러보자니 아쉽고 소홀한 점도 없진 않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처럼 눈으로 보고들은 모든 유적지가 바로 귀중한 산 교육의 현장이었다. 무사히 광주에 도착해서 집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반갑고 낯익은 불빛들이 정겹다.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문화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한 글로 고마움을 대신한다.

(시인 : 시집으로 〈벌열미 사람들〉 간행)



〈학생문예〉
산성문화제 백일장 〔대상〕

가을 빛



경화 여자중학교
제3학년 정반
김 유 림

그늘진 돌계단의 모퉁이에 앉아 무심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시리도록 푸른 하늘 빛이 쏟아져 내린다.

뜬구름 한점 없는 마음이 이리도 시리다니—

스치는 바람마저도 차다

사람에게는 각각 느껴지는 빛이 있다. 밝고 어두움의 정도 말고도 이미지에 따라 보는 사람 보는 시각에 따라 떠오르는 색이 다들 다르다.

"이 개나리색 가위를 보니까 현정이가 생각나지 않니?……"

이렇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나리색 가위와 현정이를 하나로 묶는 식으로 하나하나의 물건에 짝을 붙여주고 나면 색마다 저마다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가을 빛깔은 무슨 색이라고 해야 할까?

아! 가을 빛깔은 저 하늘빛이 분명하다. 단풍나무의 붉은 빛도 은행나무의 노란빛도 논두렁 끝에 서서 보는 황금빛도 아닌 이 시리도록 푸른 빛이 가을 빛이 맞다.

그래서 가을이면 이 빛을 따라 이렇게 춥도록 시린 마음 하나가 덩그라니 남는구나 한다.

언제부터인지 내 시야에 학 한마리가 들어왔다.

청도자기의 흰 학—

물기어린 까만 눈을 치켜들고 하얀 목을 내밀어 하늘을 본다.

아! 푸른 빛을 향해 날개를 편다. '가버리면 안돼!'

어쩐지 시린하늘과 잘 어울려 그 푸른 빛에 사라져 없어질 것만 같다.

눈을 감기가 무섭다.

내 눈에도 학처럼 물기가 어렸을 때 학은 내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나무 그림자와 내 그림자 그리고 학 한마리가 하나다.

돌의 찬 기운이 내 몸으로 전해져 으스스하다.

어디 나도 한번!

그래서 일어섰다. 물을 먹은 눈동자에 하늘의 푸른 빛이 돈다.

두 팔을 길게 벌리고 심호흡을 한번 후—하면 시린 마음도 따라 나가 하늘에 닿겠지!

이제 옆으로 한 걸음을 옮겨 나무그늘을 벗어났다.

앗! 여전히 하늘에선 푸른 빛이 쏟아지는데도 그 푸른 빛 한가운데서 작게 빛나는 무엇이 나를 감싼다.

따사로운 빛—

가을의 따사로운 빛—

어쩌면…… 가을 빛은 이 푸른 하늘의 시린 빛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



〔금상〕

가을을 느끼며…

광일 중학교 2학년
이혜인

가을은「고독의 계절」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을은 새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봄부터 한 계절이 지날 때마다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서도 또다른 계절이 올때면 새로운 마음으로 즐거워 한다. 그러나 가을만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한 생일을 맞는다.

가을이라는 변해 있는 자연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가을이면 사람들의 일이 모두 달라진다. 그중 농부 아저씨들의 가을은 한없이 밀려오는 세월따라 바빠진다. 아버지라는 직업과 농부라는 직업을 가진 우리 아버지. 그 이름만 들어도 위대한 아버지는 가을이 되면 왠지 모르게 얼굴에 밝은 빛이 맴돈다. 개미같이 부지런히 일하고 얻어 온 농작물은 아버지의 손에서 자라나 기쁨을 준다.

이 모든 일들은 가을이 꾸민 일이 아닐까?

나무가 그동안 사람들에 의해 때묻은 푸른 옷을 벗고 노랑, 빨강, 자주 등 자신들만의 독특한 옷으로 갈아 입을 때 가을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 주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하나씩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더욱 쓸쓸해 한다.

가을은 나에게 있어서 훌륭한 선생님이다.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헌신적으로 받쳐 일하는 가을. 자신을 '고독' 이라 하고 '쓸쓸함' 이라 하여도 매년 찾아와 주는 인내심과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명상을 빠지게 해 주는 명상의 가을. 누군가 잊고 살았던 사람을 되새겨 보게 하고 독서의 폭을 넓혀 지식인으로 만들어 주는 가을은 말로 해주는 스승보다 행동으로 보여 주는 스승보다 마음으로 느끼고 감동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스승인것 같다.

내가 자라면서 외모가 많이 변했듯이 가을도 초가을 때부터 늦가을 때까지 너무도 많이 변해 있다. 가을을 인생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초가을이라고 할 때가 아동기때의 모습이고 조금 더 지나면 청소년기 그 다음 성인기 늦가을이 되면 노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 공부하듯

이 어린 가을도 세상을 변하게 할 준비를 한다. 조금 더 세월이 지나 성인이 되면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싶은 마음에 이마에는 파란 분을 바르고 얼굴에는 노랗고 빨간 분을 발라 치장을 한다. 뜨거운 태양 아래 반짝이는 모래는 가을의 악세사리이다. 이런 성인기를 마쳐 노인이 된 가을은 이제 쇠약해진 몸으로 낙엽을 더 이상 치장하고 있을 힘이 없어 땅으로 떨어 뜨린다. 이럴 때에면 힘 없이 멀리서 나를 바라 보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가을을 더 쓸쓸히 느끼나 보다.

가을의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 쓸쓸해지는 가을이 아닌 나의 인생 선생님으로서 가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은상〕

추억만이…

광수 중학교 1-1
한상연

고추잠자리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 가을은 아버지에겐 바쁜 나날들이 계속 됩니다. 농사를 짓지만 여름보단 가을이 더 바쁜 아버지. 콤바인으로 남의 집 벼를 베어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보기가 힘이 듭니다. 벌써 마흔이란 나이를 가지신 아버지를 보고 가을이 더욱 더 아버지를 힘들게 했구나. 그래서 흰 머리가 벌써 보이는 구나 하는 안타까움에 가을이 미워지기도 합니다. 우리 4남매를 키우시느라 이런 고생을 하신다 생각하니 차라리 가을이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때는 참 어렵습니다.

"아빠 나 이거 타 봐도 돼?"

"그럼!"

하고 흔쾌히 나를 콤바인에 태워주시고

"이건 벼고 이건 논이야"

라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던 아버지고 내가 이양기를 비행기라고 했다며 곧 잘 놀리시던 아버지 였는데…….

"아빠! 나 업어줘"

"자!"

그때 아버지의 등은 왜 그리 넓었는지 그 등이 영원한 것 같았는데…….

그때…… 그때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등에 엎힌 날이었습니다. 그 뒤로 가끔씩 아버지의 팔에 팔짱을 껴 보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고지식한 분이셨습니다. 천방지축 어린시절에는 그런걸 몰랐죠. 편하기만 했으니까요 아마도 제 동생들은 지금 그런가 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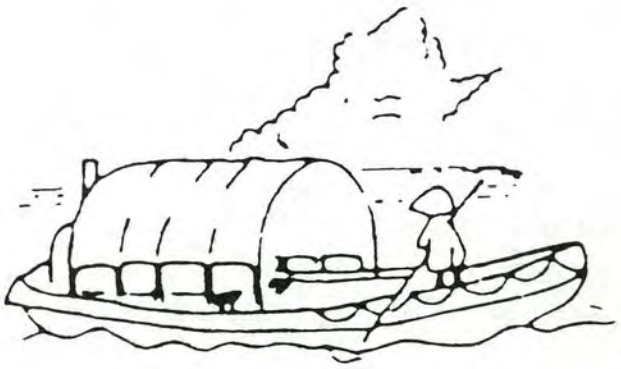
생각해 보니 이 모든 추억들이 가을날이었습니다. 우연처럼…….

지금 아버지는 너무도 변했습니다. 아니 제가 변한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너무 무뚝뚝 하셔서 제가 답답할 때도 있지만 이런 저희를 위해서 묵묵히 일을 해주시는 아버지가 불쌍하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성격이 밝고 활발했더라면 지금

쯤 아버지와 나 사이는 이징도로 어색해 지지 않았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요즘 들어 더 절실해 집니다.

화를 잘 내시는 아버지께 저는 우리에게 화는 많이 내셔도 좋지만 제발 엄마에게는 화를 내 주시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을이 되면 항상 떠오르는 아버지를 세상 누구보다도 앞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지금쯤 아버지는 또 어느집 논에서 벼를 베어주실 겁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은상〕

은주에게

경화 여자중학교
제3학년 신반
배 주 영

은주야. 안녕!

설마 날 잊지는 않았겠지? 나 주영이 말이야!

파란 하늘 아래에서 난 문득 네가 떠올랐어. 너와 함께 소풍갔던 그때가 생각났거든. 그래서인지 매년 가을이면 네가 떠올라. 단풍나무 아래에서 함께 그림 그리던 그때가 말이야.

넌 가을이랑 참 잘 어울렸던 것 같아. 맑은 가을 하늘 아래에서 하늘같이 맑게 웃던 모습이 정말 잘 어울렸던 것 같아. 난 너의 그 맑은 표정과 가을하늘을 쳐다보며 네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 너의 맑은 눈망울, 맑은 웃음을 쳐다보노라면 어느 새 내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았거든. 나도 너처럼 다른 사람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는 사람이 되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다. 친구와도 많이 싸우고 학교에서도 올바른 생활을 못한 것 같아. 그런데도 내가 지난 번에 선행상을 받은 거야 너무나도 부끄러웠어 나보다도 선행상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많은 데 말이야.

넌 말이야 얼굴 표정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을하늘을 닮았었어. 나누어 주는 것도 무척 좋아했지 난 너가 준 인형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차마 버릴 수가 없더라고 이 나이가 되어서도…….

난 너와 함께 간 가을 소풍을 잊을 수가 없어. 지금까지도 말이야 함께 단풍잎들을 줍기도 하고 떨어진 단풍잎들 속에서 그 위에 앉아 위로 위로 던졌던 단풍잎들……. 허수아비를 보고 웃었던 기억들……. 그때가 참 좋았던 것같아 난 아마 평생 너와 함께 한 시간들을 못 잊을 것 같아. 넌 나에게 가을하늘에 대해 알게 해 주었거든. 맑은 가을하늘에 대해서 말이야. 그리고 내가 가을하늘을 닮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어 주었거든. 너를 통해 알게 된 가을하늘의 의미 그 전에는 하늘에 대해 관심도 없던 내가 가을하늘을 좋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너가 있었기 때문이야. 지금은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지만 난 항상 이 가을하늘을 쳐다

보며 너의 얼굴을 그려본다.

새해 첫 날 1월 1일 넌 우리집에 찾아 왔었지. 하지만 넌 우리집에서 가구 하나도 볼 수 없었지. 비록 우리의 만남은 이런 허무한 이별로 끝났지만 넌 나의 마음속에 그리고 저 푸른 가을하늘 속에서 볼 수 있어서 난 참 기뻐! 그리고 매년 가을이 기다려져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지?

그늘이였던 이곳도 가을의 따가운 햇살이 내리찌는구나! 그럼 이만!

안녕…….



꽁트

서울 쥐 시골 살다

남종면 귀여리 신 은 자

Ⅰ. 수영장인지 쓰레기장인지

오래 입은 옷처럼 익숙해진 도시를 떠나 산 지도 벌써 한 해가 지났다. 서울 시청을 기점으로 반경 40㎞가 되지 않는 귀여리. 그러나 강을 따라 꼬불 꼬불 좁은 길을 돌아 들어오다 보면 여기는 사고방식이나 사는 모습이 영락없는 시골이다. 사실 살아보니 내가 꿈에 그리던 시골처럼 순박한 정서는 없었지만 다마고찌와 전자 오락에 노출되어 꽃이 피는 시기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 아이들에게 엄마가 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이「전원이 주는 풍요함」이라고 생각했기에 시골행을 감행하게 되었다.

이백년이 다 된 집을 고치면서 나는 나에게 사치 하나를 허용했다. 무수히 많이 그리던 정원의 설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물'의 이미지. 마당의 우물물을 이용하여 타원형의 작은 수영장을 만든 것이다. 이것은 말이 수영장이지 유치원생 이상 들어가면 거인이 돼버리는 자그마한 웅덩이이다.

작은 웅덩이에 불과했지만 우리집에 놀러온 꼬마들이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기엔 그런대로 괜찮은 공간이었다. 그런데 우물물을 끌어 담아 놓으니 물이 너무나 차가와서 오래 들어가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가족의 끊임없는 관리가 있어야 깨끗이 유지할 수 있음을 깨달았는데, 바로 위의 살구나무 잎이 떨어져 썩는 바람에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우리의 주말 일과는 수영장 청소가 되었는데, 마당의 배수관 높이보다 20㎝정도 수영장이 더 깊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물을 퍼내야만 했다. 맨 처음엔 토요일 마다 아빠가 반 바지를 입고 들어가 청소를 하고, 나는 옆에 있다가 통 가득 퍼 주는 물을 버리면서 몇번 성실하게 청소를 했다. 그러나 주말엔 언제나 다른 할 일도 많아서 미루다보니 점점 꾀가 났다. 이제는 손님이 온다고 하면 그 전날 들어가 닦아내곤 했다. 우리 아이들도 또래 손님이 와야 재미가 있는지 평소 저희들끼리는 잘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겨울이 되고, 바닥의 물이 얼어붙자 미끄럼을 타느라 가끔 들어가곤 했다.

내가 그리던 그림같은 집의 요소 중 마지막 카드로 위안을 삼았던 수영장은 그렇게 낙엽 쓰레기장이 되면서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게 되었다.

II. 희준이가 잡아준 꺽지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아이들과 산책을 나갔다. 마을 안쪽의 우리 집에서 호수까지 걸어 가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아이들은 엄마가 같이 가니까 신이 나는지 하진이는 저만치 뛰어 갔다. 다시 엄마 옆으로 왔다 가면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슬희는 연신 내 옆에서 재잘거리면서 보조를 맞추어 걸어간다. 우리의 채플린은 전봇대마다 킁킁 냄새를 맡아 보고 자기 흔적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다. 태어난 지 한달 밖에 안돼서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잘 알지 못할텐데도 강아지란 본능적으로 전봇대를 알아보는가 보다. 찔끔거리며 돌아 다니는 것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건지 신기하기만 하다.

"엄마 형아 낚시하고 있어"

저만치 달려가던 하진이가 소리친다. 바라보니 시멘트 길에 소년 하나가 앉아 있다. 슬희는

"희준이 오빠네!" 하고 아는 체를 하더니 쪼르르 달려간다.

"뭐 좀 잡았니?"

그 애가 앉아 있는 폼이 도대체 낚시하는 아이랑은 거리가 멀다. 그저 심심해서 앉아 있는 모양으로 심드렁하게 대답도 없이 우릴 본다. 낚시 중이라는 증거로 작은 대막대의 끝에 달린 줄이 물 속으로 들어가 있을 뿐이었다. 그저 앉아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애가 건져 내는 걸 보니 고기처럼 부드러운 가짜 미끼가 달려있다.

"그 걸로 고기가 잡혀?"

옆에 앉은 우리들은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

"엄마. 나두 저번에 경진이랑 낚시해 봤다!"

"뭘루?"

"이 동네 고기들은 멍텅구리야, 실뭉치에 단추를 달아서 물 속에 넣어 놓았는데, 진짜 고기가 와서 단추를 먹으려고 툭 툭 건드리는 거 있지?"

"고기가 그렇게 많아?"

"응. 잘 보면 물 속에 돌아 다니는 게 보여"

나는 주변을 걸어 다녔다. 정말 물 속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 돌들이 보이고 작은 고기떼들이 헤엄쳐 다니는 게 보였다. 그러다가 저만치서 아니 손바닥만한

고기가 서너 마리 유유히 헤엄쳐 오는 걸 보았다.

"어머, 진짜 큰 고기도 있네! 이쁘다. 희준아 이거 붕어 맞지?"

나의 호들갑에 희준이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에이 그거 붕어 아니에요. 맛두 없구요 다른 물고기 다 잡아먹어요"

심드렁한 희준이 말이었지만 난 그래도 그 고기가 이뻤다.

"희준아 저 물고기 잡히면 아줌마 줘라."

"그래도 우리집 웅덩이에 놓아서 기르게 잡으면 꼭 줘라!"

십분 쯤 지났을까. 희준이가 드디어 한마리 낚았다. 반짝 반짝하는 가짜 미끼에 달려든 녀석은 꺽지였다. 이 이름도 그애에게 들어서 처음 알았다.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물가의 어린이라 고기잡이에 대해서 박사 같았다.

희준이는 하진이랑 슬희가 하두 신기해 하니까 꺽지를 우리에게 줬다. 나는 우리 집에서 키우려는 일념으로 꺽지를 받아 들고 뛰었다. 손안에 쏙 들어간 까무잡잡하고 매끈 매끈한 물고기가 과연 집에 갈 때까지 물도 없이 견디겠는지 자신이 없었지만 뛰었다. 처음에 손아귀에서 빠져 나가려고 힘을 주던 고기는 집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얌전해졌다. 죽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났다. 그러나 어쩌랴. 내 딴에는 최대한 빨리 뛸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대학입시 체력장에서 17점을 넘지 못하던 느린 내 다리가 원망스러웠다.

집에 와서 웅덩이에 넣어 놓으니 죽은 듯 하던 꺽지는 휙하고 몸을 뒤채면서 분수대 밑 쪽으로 헤엄쳐 갔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하진이와 슬희도 헐떡이며 뒤따라 뛰어와서,

"어디 있어?" 하고 물어 보았다.

"저기 돌 틈으로 들어 갔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은 꺽지가 우리집에 사는 게 신이 났나 보다. 우리집 연못에 꺽지가 산다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해서 분원에 사는 친구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몽땅 놀러와 구경을 하고 갔지만 잡아다 놓은 그날 이후 정작 우리는 꺽지의 지느러미 하나도 구경하지 못했다. 난 걱정이 되었다.

"아마도 그 날 낚시 바늘에 꿰인 자리가 성치 않아서 죽은 거 아닐까?"

염려가 되었다.

III. 사라진 꺽지

어느 날 꺽지의 안부가 궁금해진 아이 아빠와 나는 연못의 물을 빼고 청소를 했

다. 전에 물 뺄 때 쓰던 수중모터는 분수를 설치하느라고 돌틈에 들어가 있어서 배수관 아랫부분의 물은 통으로 떠서 버려야 했지만 우리는 꺽지 시체라도 찾아볼 셈으로 열심히 청소를 했다. 그러나 꺽지는 나오지 않았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니,

새 물을 받아 넣으면서 우리는

"꺽지가 죽어서 녹아버렸나?" 생각했다.

전원에 산다고 너무 많은 죄를 짓는구나. 자유로이 놓아 기른다고 어린 강아지를 잃어 버렸지. 먹이를 잘못 주어서 토끼도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죽었지. 또 창고 안의 종이 봉투에 빠진 땃쥐도 집을 만들어 주고 치즈를 먹여줬지만 밖으로 나가려고 뛰어오르기만 하다가 죽었지. 세상에 아이들 자연 공부시키려다가 본의 아니게 자꾸 무덤만 늘어가니, 이러다가는 생명에 대해 하찮게 여기게 생겼구나.

그 후로 우리는 무얼 기르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함을 느꼈다. 뒤켤 나무 밑에 죽은 동물들을 한 마리씩 묻어줄 때마다 슬희는 작은 나무를 가지고 십자로 엮어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줬다.

그 곳은 처음에는 기억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져 버리고 풀들이 덮여져서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어쨌든 꺽지는 사라졌는데 이후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게 이상했다.

그후 작년에 캠프를 왔던 학원에서 올해도 놀러오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다. 우리가 살고 있으니 살림살이가 많아서 오라고 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걱정이 되었지만 마루와 방 하나만 쓰면 된다고, 꼭 오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오라고 했다.

분수를 멋지게 틀어 주려는 생각으로 모처럼 만에 연못을 청소했다. 청소를 하고 나서 햇볕에 소독을 하려고 바닥에 물을 채우지 않았다.

다음날 물기없이 깨끗한 하늘색의 연못 바닥 위에 까만 물체가 하나 있기에 무심히 들여다 보다가 난 깜짝 놀랐다. 바로 그 꺾지였다. 두 달 전 호수에서 여기까지 달려올 때 내 손안에서 꿈틀대던 그 녀석이 덩치가 두 배는 커서 나와 죽어 있는 거였다. 그 동안 한번 이라도 연못안을 돌아 다니는 걸 봤으면 살아 있으리라는 추측을 했으련만 물을 빼고 청소할 때에도 돌틈에 숨어 있다가 이번 청소에 바닥의 물이 완전히 말라버리자 나와서 죽은 거였다.

"지난 번에 청소하는 즉시 새 물을 넣어줘서 죽지 않는 거였구나"

꺽지는 사람을 피해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나는 내 눈을 꺽지가 보이지 않는다

고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포기하다니 참을성 없는 건 바로 나였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내가 생명이 다했다고 생각하는 동안 꺽지는 저렇게 열심히 살아 있었구나."

하나의 물고기가 정녕 나보다 나았다. 사람의 눈을 피해 밤에만 나와서 돌아다니며 저렇게 두 배가 되도록 잘 자라고 있었나니. 보이지 않는다고 그의 생명을 무시했다는 자책으로 가슴이 아팠다.

또 하나의 무덤이 늘었다. 이번에는 양말 케이스에 넣어 땅에 묻어 주었다. 꺽지가 정말 죽은 것을 알게 되니 연못이 더 허전해졌다.

Ⅳ 낚시연습

우리집 연못에서 민물고기가 잘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고 나니 본격적으로 고기를 키우고 싶어졌다. 뭘 모르고 죽여 버린 꺽지에 미안함도 있어서 이번엔 잘 키워 봐야지 하고 생각했다.

나는 분원에 있는 어부네 가게에 가서 고기가 들어오면 못 생긴 거 몇 마리를 사겠다고 했다. 거기는 술희네 반 아이 부모님이 하는 가게였다. 연락처를 받아적고 연락을 주겠다고 얘기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전화가 없었다.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가 잡아봐?" 하는 생각으로 갔다.

"그래 잡아서 연못에 놓아 기르면 되잖아. 하진이와 아빠도 호숫가로 이사 왔으니 고기 잡이도 괜찮은 거지."

생각을 굴리고 어느날 아빠는 낚시대를 하나 사왔다. 덕소를 지나 오면서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파는 아저씨에게서였다. 슬희 아빠나 나나 낚시에 대해 문외한이니까. 그저 다루다가 망가지는 아깝지 않은 저렴한 것을 일단 사보자는 생각으로 거기서 파는 것 중에 싼 것을 사왔다. 그런데 그 낚시는 그냥 줄을 드리우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었다. 부품을 꺼내놓고 낚시 판매상에게 들은대로 나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는 슬희 아빠는 진지하기만 했지만, 그 설명을 들은 나는 "복잡해서 엉켜 버리겠다" 는 생각밖에 안났다.

도대체 초보가 던져가며 풀렀다 감았다를 계속해야 하다니 아니 아빠는 안방에서 마루로 뻗어 놓고 감는 연습을 하고 있었지만 자꾸 엉키기만 했다.

심지어 만지다가 낚시 바늘에 찔리기도 하니 이 걸로 물고기를 잡기 전에 사람부터 잡을 것 같았다. 아들과 같이 하겠다고 구상을 세웠으면서 호기심에 다가가는 하진이에게는

"위험해. 저리 가!"

소리밖에 안 하니 과연 이걸로 고기를 잡게 될까?

의심스러웠지만 공휴일이 되었고 우리는 한강에 나가 연습을 해 보기로 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시간이라 연휴를 얻은 사람들로 길이 복잡했지만 우리는

"고기를 잡으러 한강으로 갈까 ♪♪♬"

씩씩하게 더위를 무릅쓰고 한강 둔치로 갔다.

한강 둔치에 차를 세우고 깔개와 파라솔대용으로 쓸 우산을 챙겨들고 낚시꾼이 되어보니 주변에 먼저 온 사람들이 잡아놓은 고기들이 눈에 띄었다.

"와우! 고기가 있나보다"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자리를 잡았다. 물에 발을 담그고 나는 고동을 찾았고, 아이들은 문수제비를 뜬다. 아빠는 처음에 몇 번 엉키다가 그래도 열 번쯤 던져 보더니

"와! 할만한데 한번 해 볼래?" 하며 내 쪽을 봤다.

난 도무지 실 푸는 것과 감는 것을 해 낼 자신이 없었다. 내 운동신경으로 하다가는 줄이 마구 엉켜 버릴 것 같아 그만 두고 구경만 했다. 아빠 폼이 점점 꾼같이 능숙해졌다.

"그런데 고기는 언제 잡혀?" 심심해진 나의 우산속으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있었다.

"고기? 고기가 물리면 더 문제다. 문제 그걸 어떡하지?" 남편은 빙글거리기만 한다.

아마 고기가 걸려줘도 징그러워서 못 만질거다. 집에서 생선요리를 하면 거의 손이 가지 않는 남자가 낚시터에 앉았으니 이건 잡자는 건지 팔운동이나 하자는 건지. 한 시간 쯤 되었을까? 아이들은 물수제비에 싫증이 났는지 이제는 예쁜 돌, 신기한 돌을 줍기에 여념이 없다. 하진이는 주로 신기하고 특별한 빛깔의 돌에 관심이 있고 슬희는 작으면서 앙증맞은 돌에 관심이 많았다. 어디에 풀어놓아도 재미있는 놀거리를 만들어내는 아이들은 과연 창조주의 아이들이다.

"이제 가자"

따분하고 더위에 지친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빠는 연습이 좀 되었는지 순순히 도구를 챙기며 떠날 채비를 하는데 아이들은 아직 집에 가기 싫다고 한다. 그러다가 집에 가려면 모아놓은 돌을 다 가져가야 한다고 우기기에

"각자 하나씩 만!" 을 선언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딜가나 뭘 들고 오길 좋아한다. 주머니가 불룩해서 뒤져보면

돌멩이, 표창 딱지, 녹슨 병뚜껑들이 들어 있기 일쑤여서 세탁기에 넣기 전엔 꼭 확인해야 한다. 드럼 세탁기가 돌아갈 때 유리창에 부딪치는 장난감 때문에 조마조마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특히 하진이 옷은 필히 검사를 하고 세탁기에 넣어야 한다.

하나씩만 가져가야 한다고 했지만 안된다고 불만인 아이들이 모아 놓은 돌들을 보니 다 버릴 수 없는 이유들이 한 가지씩 있었다.

"이건 물에 들어가면 회색빛이 반짝거리고, 저건 동그랗고, 또 저건 권총같이 생겼고…"

아이들은 제각기 내게 설명을 해 주었지만 그 소중한 이유들이 집에 가지고 가는 순간부터 사라지고 마는 걸 나는 안다. 단지 소유했다는 한 가지 포만감만 빼고 다른 이유들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채 잊혀져 버린다. 방안 어딘가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청소하는 내 손에 의해 화단 구석으로 쫓겨가는 돌멩이가 되고 만다.

그러나 물 밑에서 반짝이고 있는 것을 찾아낸 그 순간을 어떤 보석보다 의미있는 돌들인 것을 또한 이해한다. 난 단호하게

"안돼 하나씩만 가져 가!" 라고 했다.

하진이는 자기 머리만한 돌을 집어 들었다. 슬희는 재빨리 작은 돌멩이 서너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더니

"이건 작으니까 돼죠" 하고 당연한 듯 말했다. 다행히 하진이가 별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눈감아 주었다.

낑낑거리고 자기 돌을 들고 온 하진이는 차에 타자마자 차 바닥에 돌멩이를 내동댕이 치는 것 아닌가? 덜컹 부딪치는 소리가 났고 벌칙으로 아빠에게 좀 혼나고, 애써 가져온 돌멩이는 창 밖 먼곳으로 버려졌다. 슬희 것만 집까지 고이 왔다.

V. 낚시를 할꺼나?

저녁이 되자 우리들은 낮에 연습한 것을 써먹고 싶어졌다.

"호수에 갈까?"

아빠의 눈이 반짝거렸다.

"진짜?"

"가자!"

영문을 모르고 차에 탄 아이들과 같이 호수로 갔다. 여름이었지만 밤 8시 30분

은 어두웠고 보이는 게 없었다.

"그래도 낮에 던지는 연습을 해 봤으니 괜찮겠지" 생각했다.

호수로 내려가 농로를 따라 끝까지 차를 몰고 가니 웬걸 거기가 연밭인 줄 이제껏 몰랐었다. 봄에 봤을 때는 거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할 수 없이 차를 돌려 나오다가 중간 부분에서 멈춰섰다. 저 앞에 어떤 소년이 노란 플라스틱바께스를 들고 논을 가로질러 가는 게 보인다.

"누굴까?" 우리 아이들은 거기 남겨진 자전거 두 개 중 하나를 알아 보았다.

"승훈이형 거다!"

그럼 왜 승훈이 형은 바께스를 들고 이 어두운 수초길을 헤쳐 들어간 걸까? 그 애가 들어간 저쪽 연못 귀퉁이에서 두런 거리는 소리가 났다. 우리 아이들도 다른 한 자전거는 알아보지 못했다. 추측만 할 뿐이었다. 그 사이 남편은 물만 내려다 보았다. 낚시를 하자니 어색하고 이상한 듯 차에서 꺼내지도 못한다.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고 해봐"

"그럴까?"

쭈볏 거리며 꺼내든 남편은 물에 던졌고 감아 올리다가 이내 어딘가에 걸렸다. 도무지 빠지지 않아 고생하고 있는 사이 아까 저쪽으로 들어간 노란 바께스의 소년이 나왔다. 승훈이랑 중학생쯤되어 보이는 남자애였는데 그물이 묵직했다.

신기한 마음에 다가서서 보다가

"얘! 잡고기라도 키우게 좀 줄래?" 라고 했더니

"그런데요 엉켜서 지금은 못꺼내요. 집에 가서 골라서 줄 수는 있는데…"

하는 거였다. 우리가 낑낑대며 낚시와 씨름하는 걸 보더니 유유히 조정해서 꺼내 준다. 낚시끝엔 수초가 잔뜩 매달려 있었다.

그 애는 한 마디 충고를 해 주었다.

"그런데요 지금은 너무 어두워서 고기들이 미끼를 못봐요. 안 물어요!"

우리가 수초를 낚시에서 떼어내는 사이 승훈이와 형아가 자전거를 타고 가버렸다.

VI. 고기를 얻으러 간 아이

왕 초보인 우리는 그냥 낚시를 거둬 들고 집으로 향했다. 고기가 안 문대니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런데 오다가 생각하니 아까 그 형아한테가서 그 애에게 쓸모없는 고기라도 얻어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키우기엔 좋을테니까. 얼핏 본

큰 형아는 아마 경진이 오빠 같았다.

"하진아 형아가 고기 준댔으니까 얻어올래?" 하진이는 좋아라 했고 고기를 받아 오겠다고 그릇을 들고 내렸다.

"경진네 맞지?"

"응!"

"엄만 차 갔다놓고 걸어 나올께"

나중에 물어보니 하진이는 그 형이 경진이네 형이 아닌 줄 알았지만 엄마가 경진이네로 가라고 하니까 거기 고기가 있나부다 생각하고 갔다고 한다.

차를 집에 주차시키고 슬희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며 아랫말로 내려가는데 저만치서 하진이가 "엄마 조개 많이 주셨어" 하면서 그릇을 들고 신나게 뛰어오는 거였다.

난 동네가 시끄러워서

"조용해!" 하면서 다가가니 웬 걸. 그릇 속에 물고기는 없고 조개가 가득한 것 아닌가?

"웬 조개니?"

"응! 아줌마가 고기는 없대. 조개만 남았대!"

그러는데 뭔가 이상했다.

집에 오니 남편이 웃으면서

"방금 경진이 엄마가 전화했어. 하진이 극기 훈련시키느냐고!"

"무슨 소리야?" 난 경진이 엄마에게 전화를 해 보고서야 아까 그 형이 다른 집 형인 걸 알았다.

세상에 한밤중에 어린 아이가 머리에 그릇을 쓰고 돌아와

"고기 주세요!"

했으니 개들은 놀라 짖어대고 그 집 아빠는 분명히 담력키우느라고 극기 훈련 삼아 보냈다고 생각해서 마치 며치 전 홍천강에서 잡아온 조개가 있길래 담아 보내줬다고 했다. 갑자기 동네애가 고기를 달라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경진이 엄마와 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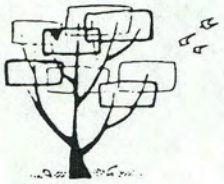
"그래도 애가 숫기도 좋지. 조개라도 얻어오긴 얻어오네요" 하면서 웃었다.

이렇게 해서 첫번째 낚시 이야기는 끝났다. 조개는 미역국을 끓여서 잘 먹고 다음날 희준이와 하진이는 된장을 풀어 미꾸라지 한 마리와 피라미 한 마리를 잡아 와서 지금까지 아주 활기차게 잘 살고 있다.

낙 엽

레미드 구르몽

시몬
나뭇잎 저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욱 소리가
낙엽의 빛깔은 부드럽고
그 소린 너무 조용하다
낙엽은 땅위의 가엾은 표류물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욱 소리가
해질녘 낙엽의 모습은 쓸쓸하고
바람에 흩어지며 낙엽은 정답게 외친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욱 소리가
발길에 밟히며 낙엽은 영혼처럼 울고
날개 소리 여인의 옷자락 소릴낸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욱 소리가
오라! 우리 또한 낙엽이 되리라
오라! 이미 날은 저물고 바람이 우릴 휩쓸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욱 소리가.....



세월이 가면……

박 인 환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잇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은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살구꽃 핀 마을



이 호 우

살구꽃 핀 마을은
어디나 고향 같다

만나는 사람마다
등이라도 치고 지고

뉘 집을 들어서면은
반겨 아니 맞으랴

바람 없는 밤을
꽃 그늘에 달이 오면

술 익는 초당 마다
정이 더욱 익으리니

나그네 저무는 날에도
마음 아니 바빠라

문화상식

대한민국 50년, 문학 50년







이문열(李文烈)작품 1천만부 팔리다

한국 출판 사상 처음으로 10만부 넘게 팔린 책은 1954년 출간된 정비석의 「자유부인」, 50만부 넘게 팔린 책은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1974년)이었으며, 1백만부 시대를 연 것은 김홍신의 「인간시장」(1982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책이 많이 팔린 이문열(1천만부) 조정래(9백만부), 김진명(6백만부)씨 등이다. 이 같은 사실은 조선일보와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김경희. 金京熙)가 최근 공동 조사한 「건국 50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밝혀졌다.

1948년 이후 매년 그해의 베스트셀러를 선정한 결과, 2종 이상의 베스트셀러를 낸 출판사는 정음사 신태양사 김영사 민음사 현암사 문학과지정사 등으로 나타났다. 1백만부 이상 팔린 책은 이 밖에 「천년의 사랑」(양귀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유홍준) 「아버지」(김정현) 「사랑과 성공은 기다리지 않는다」(조안리) 「일본은 없다」(전여옥)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김우중) 「영원한 제국」(이인화) 「반갑다 논리야」(위기철) 「소설 목민심서」(황인경) 「소설 동의보감」(이은성) 「소설 토정비결」(이재운) 등이다.

◇ 건국이후 베스트셀러 50선

연도	저 자	책 명	출 판 사
48년	김 구	백범일지	국 사 원
49년	유 진 오	고난의 90일	수 도 문 화 사
50년	권 덕 규	조선역사	정 음 사
51년	藤 原 貞 (정광현 옮김)	내가 넘은 삼팔선	수 도 문 화 사
52년	김 소 운	마이동풍수첩	고 려 서 적
53년	최 현 배	우리말본	정 음 사
54년	정 비 석	자유부인	정 음 사
55년	김 래 성	청춘극장	청 운 사
56년	한 하 운	보리피리	인 간 사
57년	이 희 승	벙어리 냉가슴	일 조 각
58년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박남중 옮김)	의사 지바고	야 원 사
59년	홍 성 유	비극은 없다	신 태 양 사
60년	이 어 령	지성의 오솔길	동 양 출 판 사
61년	최 인 훈	광장	정 향 사
62년	石坂洋次郎 (이시철 옮김)	가정교사	문 광 사
63년	박 경 리	김약국의 딸들	을 유 문 화 사
64년	이 윤 복	저 하늘에도 슬픔이	신 태 양 사
65년	전 혜 린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중 앙 출 판 공 사
66년	三 浦 淩 子 (이시철 옮김)	빙점	한 국 정 경 사
67년	이 어 령	하나의 나무잎이 흔들릴 때	현 암 사
68年	川 端 庸 成 (김용제 옮김)	설국	동 민 문 화 사
69년	파란츠 카르카 (김정진 옮김)	성	삼 중 당
70년	안 병 욱	아름다운 창조	삼 육 출 판 사
71년	정 연 희	고죄(告罪)	중 앙 출 판 공 사
72년	박 대 인	감과 겨울과 한국인	범 서 출 판 사
73년	생 텍쥐페리 (김현 옮김)	어린왕자	문 예 출 판 사
74년	최 인 호	별들의 고향	예 문 관
75년	시몬드 보봐르 (오증자 옮김)	위기의 여자	정 우 사

연도	저 자	책 명	출 판 사
76년	이 청 준	당신들의 천국	문화과지정사
77년	한 수 산	부초	민 음 사
78년	조 세 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문화과지정사
79년	임국희·최양묵	바구니에 가득한 행복	전 예 원
80년	김 성 동	만다라	한국문학사
81년	황 석 영	어둠의 자식들	현 암 사
82년	김 홍 신	인간시장	행림출판사
83년	레오 버스카글리아 (양정현 옮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김 영 사
84년	정 비 석	소설 손자병법	고 려 원
85년	김 정 빈	단(丹)	정신세계사
86년	유 안 진	우리를 영원케 하는 것은	현대문학사
87년	이 문 열	사람의 아들	민 음 사
88년	서 정 윤	홀로서기	청 하
89년	김 우 중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김 영 사
90년	박 완 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삼 진
91년	오쇼 라즈니쉬	배꼽	장 원
92년	발타자르 그라시아 (두행숙 옮김)	세상을 보는 지혜	둥 지
93년	위 기 철	반갑다 논리야	사 계 절
94년	김 진 명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 냄
95년	이 명 박	신화는 없다	김 영 사
96년	파트리크 쥐스킨트 (유혜자 옮김)	좀머씨 이야기	열 린 책 들
97년	잭 캔 필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 레

〈한국출판연구소 제공〉

◇ 건국이후 뛰어난 소설 53선

순위	제 목	작 가	구 분	년도
1	토지	박경리	장 편	1969
〃	광장	최인훈	〃	1969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연작장편	1976
4	당신들의 천국	이청준	장 편	1976
5	관촌수필	이문구	연작장편	1972
〃	장마	윤흥길	중 편	1973
7	무진기행	김승옥	단 편	1964
〃	태백산맥	조정래	장 편	1983
9	장길산	황석영	〃	1976
10	삼포 가는 길	〃	단 편	1973
11	객주	김주영	장 편	1979
12	엄마의 말뚝(연작)	박완서	단 편	1979
〃	죽음의 한 연구	박상륭	장 편	1975
14	북간도	안수길	〃	1961
〃	서울 1964년 겨울	김승옥	단 편	1965
〃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윤흥길	연작장편	1977
〃	잉여인간	손창섭	단 편	1958
〃	취우	염상섭	장 편	1952
〃	혼불	최명희	〃	1990
20	봄날	임철우	〃	1984
〃	분례기	방영웅	〃	1967
〃	불의 제전	김원일	〃	1980
〃	비명을 찾아서	복거일	〃	1987
〃	외딴방	신경숙	〃	1995
〃	유년의 뜰	오정희	단 편	1980
〃	카인의 후예	황순원	장 편	1953
〃	황제를 위하여	이문열	〃	1980
28	동경	오정희	단 편	1982
〃	등신불	김동리	〃	1961
〃	만다라	김성동	장 편	1978
〃	비오는 날	손창섭	단 편	1953
32	강	서정인	〃	1968
〃	금시조	이문열	〃	1981
〃	남과 북	홍선원	장 편	1987
〃	낯선 시간속으로	이인성	중 편	1980
〃	달궁	서정인	장 편	1985
〃	마당 깊은집	김원일	〃	1988
〃	미망	박완서	〃	1985
〃	소나기	황순원	단 편	1959
〃	순이 삼촌	현기영	〃	1978
〃	요한시집	장용학	〃	1955
〃	풍금이 있던 자리	신경숙	〃	1992
〃	효풍	염상섭	장 편	1948
44	객지	황석영	단 편	1974
〃	나무들 비탈에 서다	황순원	장 편	1960
〃	불꽃	선우휘	단 편	1957
〃	사람의 아들	이문열	장 편	1979
〃	사반의 십자가	김동리	〃	1955
〃	새벽출정	방현석	단 편	1989
〃	아버지의 땅	임철우	〃	1984
〃	오발탄	이범선	〃	1959
〃	저녁의 게임	오정희	〃	1978
〃	회색눈사람	최 윤	〃	1992

◇건국이후 뛰어난 시인 49인

순위	이 름
1	김수영
2	고 은
〃	김지하
〃	서정주
〃	신경림
6	김춘수
7	정현종
〃	황동규
9	신동엽
10	박재삼
11	김광섭
〃	유치환
〃	황지우
14	박목월
〃	조지훈
16	박두진
17	김현승
〃	이성복
19	오규원
20	김종삼
〃	천상병
22	박노해
23	강은교
24	박용래
〃	정희성
〃	기형도
〃	이형기
28	구 상
〃	김기림
〃	김명인
〃	최승호
32	김광균
〃	김남조
〃	김남주
〃	박인환
〃	백무산
〃	송 욱
〃	이성부
〃	장정일
〃	조정권
〃	최승자
42	김용택
〃	김혜순
〃	마종기
〃	박남수
〃	이시영
〃	정진규
〃	조병화
〃	한하운

98.7.31 조선일보

대한민국 50년, 영화 50년

◇ 한국영화 베스트50

순위	제 목	발표년도/감독
1	오발탄	61 / 유현목
2	만다라	81 / 임권택
3	하녀	60 / 김기영
4	만추	66 / 이만희
5	서편제	66 / 임권택
6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89 / 배용균
7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61 / 신상옥
8	피아골	55 / 이강천
9	마부	61 / 강대진
10	길소뜸	85 / 임권택
11	우묵배미의 사랑	90 / 장선우
12	그들도 우리처럼	90 / 박광수
13	바보들의 행진	75 / 하길종
14	삼포가는 길	75 / 이만희
15	바보선언	83 / 이장호
16	바람불어 좋은 날	80 / 이장호
17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92 / 박종원
18	안개	67 / 김수용
19	티켓	86 / 임권택
20	마음의 고향	49 / 윤용규
21	하얀전쟁	92 / 정지영
22	개그맨	88 / 이명세
23	칠수와 만수	88 / 박광수
24	남부군	90 / 정지영
25	초록물고기	97 / 이창동
26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96 / 홍상수
27	파업전야	90 / 장산곶매
28	박서방	60 / 강대진
29	영자의 전성시대	75 / 김호진
30	돌아오지 않는 해병	63 / 이만희
31	깊고 푸른 밤	84 / 배창호
32	씨받이	86 / 임권택
33	갯마을	65 / 김수용
34	낮은 목소리	95 / 변영주
35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87 / 이장호
36	꽃잎	96 / 장선우
37	8월의 크리스마스	98 / 허진호
38	짝코	80 / 임권택
39	피막	80 / 이두용
40	비무장지대	65 / 박상호
41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95 / 박광순
42	별들의 고향	74 / 이장호
43	시집가는 날	56 / 이병일
44	물레야 물레야	83 / 이두용
45	강원도의 힘	98 / 홍상수
46	한줌의 시간속으로	94 / 백일성
47	꼬방동네 사람들	82 / 배창호
48	로맨스 빠빠	60 / 신상옥
49	장마	79 / 유현목
50	성춘향	61 / 신상옥

◇ 영화인 베스트50

순위	이 름	분야
1	임 권 택	감독
2	신 상 옥	감독
3	유 현 목	감독
4	김 기 영	감독
5	김 승 호	배우
6	안 성 기	배우
7	김 지 미	배우
8	이 만 희	감독
9	김 수 용	감독
10	신 성 일	배우
11	이 장 호	감독
12	이 태 원	제작
13	최 은 희	배우
14	김 진 규	배우
15	하 길 종	감독
16	정 일 성	촬영
17	유 영 길	촬영
18	강 수 연	배우
19	박 광 수	감독
20	장 선 우	감독
21	배 창 호	감독
22	정 지 영	감독
23	이 우 석	제작
24	강 우 석	감독
25	곽 정 환	제작
26	황 기 성	제작
27	이 두 용	감독
28	허 장 강	배우
29	이 규 환	감독
30	이 명 세	감독
31	송 길 한	각본
32	신 영 균	배우
33	정 영 일	평론
34	배 용 균	감독
35	김 호 선	감독
36	박 철 수	감독
37	정 진 우	감독
38	최 무 룡	배우
39	이 강 천	감독
40	황 정 순	배우
41	박 노 식	배우
42	문 성 근	배우
43	홍 상 수	감독
44	엄 앵 란	배우
45	김 희 갑	배우
46	문 정 숙	배우
47	장산곶매	
48	김 동 호	행정
49	신 철	제작
50	김 현	편집

98.7.31 조선일보

규 장 각

연세대 교수 최 정 호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 1989년 완공한 새 건물로 이전한 오늘의 규장각(奎章閣)은 조선시대 후기 문화의 자랑스런 「기록」의 보고(寶庫)이자 「보존」의 보고이다.

가령 의궤(儀軌). 조선조의 왕실이나 국가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일의 전말, 경과, 비용, 인원, 의식절차, 행사후 논상(論賞)등을 후세에 참고하도록 그림과 함께 기록하여 놓은 책을 의궤(도)라고 한다.

서양에도 물론 예전에 궁정화가들이 왕실의 중요한 행사 장면을 그림으로 남겨 놓은 것은 많다. 예컨대 프랑스 고전주의 회화의 거장 다비드가 18세기초 조세핀 황후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나폴레옹을 그린 「대관식」은 그러한 그림의 대표작중 하나이다. 물론 다비드의 「대관식」은 회화 작품으로선 걸작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역사적 사건의 「기록」으로서는 조선시대의 의궤에 비해서 그 정보가치는 훨씬 떨어진다.

「대관식」보다 10년 앞서 사도세자의 빈(嬪)이자 정조의 모후인 혜경궁 홍씨의 수원에서 베푼 회갑연을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3권〉, 또는 1800년 정조의 국장 절차를 정리한 「정조국장도감의궤」(正祖國葬都監儀軌) 등을 보면 행사 당일의 엄청나게 긴 반차도(班次圖·어떤 의식에서 늘어서는 차례를 적은 그림)를 다채색으로 그린 기록화 뿐 만이 아니라 행사에 관한 일체의 과정을 날짜에 따라 소상하게 서술 해 놓고 있다.

이러한 의궤는 어람용(御覽用)으로 1부, 의정부 예조 춘추관 강화부, 기타 태백산 오대산 적장산 등의 사고(史庫) 보관용으로 1부씩 9부 내외를 필사본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선 2부만 만들기도 했다.

컬러로 그린 군현지도 산수화 보는듯 의궤 189종은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탈취, 귀중한 책-목판들 통풍도 안되게 방치

어람용의 정본(正本)과 그 밖의 부본(副本)의 의궤 사이에는 양식과 장정에 차이가 있다.

특히 초록운문대단견(草綠雲文大段絹)으로 표지를 입히고 놋쇠로 책 등을 싸서 거기에 금칠한 쇠고리, 박을정(朴乙釘) 국화동구(菊花童具)로 장식한 호화장정의 어람용 의궤 정본은 전세계의 비블리오필(bibliphile·희귀미관본수집가)들이 침을 꿀꺽 삼킬만한 일품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약 250여책의 의궤가 소장되고 있으나 부본이 많고 상당수의 정본은 프랑스 파리의 국립도서관이 간직하고 있다. 병인

양요(1866년)때 강화도를 침범한 프랑스군이 당시 강화부 소재의 외규장각(外奎章閣)에 보관된 각종 전적을 훔쳐간 결과이다. 그때 탈취해간 340여 책 중에서 의궤만 189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우리나라 소장본과 중복되는 것도 있으나 단독 소장본도 많다니 분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것을 되찾아 오는 일은 21세기에나 실현을 기대해야 될 우리나라 대불(對佛) 외교의 숙제라 할 것인지…….

물론 의궤만 규장각에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옛 지도…….

우리 한민족은「역사」를 기록한 세심한 작업만이 아니라「지도」를 제작한 빼어난 능력에 있어서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전통을 이어온 민족이었음을 규장각은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공동체적 삶의 시간적, 공간적 좌표를 확인하려는 민족의 자아의식의 발로라고나 할 것인가.

예컨대 태종 2년(1402년)에 만들었다는「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强理歷代國都之圖)는 17세기에 마테오 리치의「곤여만국지도」(坤輿万國地圖)가 들어올 때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가장 훌륭하고 오래된 세계지도로 알려지고 있다. 세종에서 세조에 이르는 동안에는 삼각 측량기구라 할 인지의(印地儀), 10리마다 자동적으로 북을 치는 기리고차(記里鼓車) 등 과학적인 지도작성을 위한 기구 등이 개발되었다. 이런 오랜 지도제작의 경험과 전통위에서 조선조 후기에는 정상기(鄭尙驥)의「동국지도」(東國地圖), 김정호(金正浩)의 16만분의 1 축적지도인「청구도」(靑丘圖),「대동여지도」(大動與地圖)같은 걸작이 나온 것이다.

규장각은 바로 그러한 우리나라 옛 지도의 최대 수장처이기도 하다. 나 개인적으로는 서울대 규장각의 전시실에서 가장 매료된 것은 조선시대의 군현(郡縣) 지도들이다. 전주, 경주, 진주, 남원 등 옛 고을을 그린 이 군현지도를 보면 산은 산답게 푸른 빛을 띠고 있고, 길은 길답게 붉은 빛을 띠고 있고, 강은 강답게 파란 물이 흐르고 있고, 도성은 도성답게 검은 기와집과 노란 초가집이 어울려 있다. 마치 진경산수화법으로 그린 산수화를 보는 듯한 이 컬러풀한 군현지도는 조선시대에 발달한 인문지리학의 수준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가령 고활자의 고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30~40년 앞선 조선시대 최초의 금속활자로 태종 3년(1403년)에 주조한 계미자(癸未字). 이 계미자로 찍은「십칠사찬고금통요」(十七史纂古今通要·국보 148호)와「송조표전총류」(宋朝表牋總類·국보 150호)가 규장각에는 있다. 그 밖에도 6·25때 창경궁 장서각에 보관중인 적상산본(赤裳山本)을 북한이 가져간 뒤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정족산본(鼎足山本·1천181책)을 중심으로한「조선왕조 실록」1천229책(국보 151호),「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과「의정부등록」(議政府謄錄·총 273책, 국보 152호), 왕의 일기를 기록한「일성록」(日省錄·총 2천329책, 국보 153호)도 규장각이 소장하

고 있다. 한편 조선시대에 만들었던 활자의 족보라 할 수 있는 「신정자수」(新訂字藪) 「규장자수」(奎章字藪), 「실록자수」(實錄字藪) 등등 당시 동서양에 유례가 없었던 「자보」(字譜)의 거의 전부도 이곳에 소장하고 있어 세계 인쇄문화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도서 17만5천여책, 고문서 5만여점, 책판 및 기타 1만8천여장의 국학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규장각을 이렇게 일일이 살피다간 한이 없겠으니 그만 두기로 한다.

규장각은 원래 왕실도서관으로서 1776년 조선왕조 22대의 군주인 정조(正祖)가 즉위하던 해에 설치되었다. 규장각의 「규」(奎)는 고대 중국의 별자리를 총칭한 이십팔수(二十八宿)의 하나로 문장을 주관하는 규수(奎宿)에서 따온 것. 중국에서는 황제의 글씨를 「규장」이라 했다.

정조가 즉위하면서 새로 설립한 규장각은 그러나 단순히 선왕들의 글씨, 글, 옥새, 옥보 등을 보관하는 서고의 구실에 그치지 않고 각종 서적의 수집과 출판에도 큰 몫의 기여를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규장각은 정조가 추구한 혁신정치의 중추로서 그의 친위세력을 확대하려는 장치로 기능했다는 것도 알려진 대로이다. 그렇기에 정조의 죽음으로 규장각이 입은 타격도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장각은 정조의 재위 중이나 사후에나 일제의 강점시대와 6·25전쟁시대를 뚫고 우리 문화재의 정리와 보관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서울대학교의 새 터에 자리잡은 오늘의 규장각을 구경하고 나면 한편으론 자랑스러움으로 마음이 뿌듯해지고 다른 한편으론 부끄러움으로 마음이 씁쓸해진다. 저처럼 삶의 모든 흔적을 소상하고 철저하게 기록, 보존했던 조선시대의 한국인과 귀중한 책자를 찍어낸 목판들을 예산과 인원이 모자란다 해서 통풍이 잘 되도록 세워둘 공간도 마련해 주지 못해 쌓아둔 채 방치해둔 현대의 돈 있고 힘있는 한국인들이 도대체 같은 핏줄의 한국인인지 의심이 가기조차 한다.



옛날 이야기 ①

남이(南怡)장군 분면귀(粉面鬼)로 인하여 장가들다

전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장
강암(江巖) 최덕곤(崔悳坤)

남 이(南 怡)는 의령 사람으로 의산군(宜山君) 휘(暉)의 아들이며 태종의 외손자이다. 그는 체격이 크고 건장하며 성격이 호방하여 매인데가 없었다. 소년시절 어느날 거리에서 놀고 있었는데 조그마한 아이가 작은 상자를 보자기로 싼 것을 지고 가는데 그 보자기 위에 얼굴에 흰 분을 뽀얗게 바른 여자 귀신이 붙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남 이가 마음 속으로 괴이쩍게 여겨 그 상자를 지고 가는 아이의 뒤를 쫓아 가보니 한 재상의 저택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얼마간 그 대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그 집에서 갑자기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 이가 물어보니 그 집의 작은 아가씨가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었다. 남 이가『내가 들어가보면 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집에서 처음에는 수긍하지 않다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였다. 남 이가 방안에 들어가니 분면한 귀신이 낭자의 가슴에 걸터 앉아 있다가 남 이를 보고는 곧 피해 달아나니 낭자는 다시 살아났다. 남 이가 방문을 나오면 낭자가 다시 죽고 남 이가 다시 방에 들어가면 낭자는 다시 살아났다. 남 이가 묻기를『작은 아이가 지고 온 상자 속에 든 것이 무엇이요?』하니 홍시라고 하였다. 낭자가 그 홍시를 먼저 하나 집어 먹고 숨통이 막혀 쓰러졌다는 것이었다. 남 이는 자기 소견을 말하고 사숭약(邪崇藥 : 귀신들린 병에 쓰는 약)으로 다스려 살아나게 하니 그 낭자는 좌의정 권 남(權擥)의 넷째 딸이었다.

권 남이 그 일을 기이하게 여겨 남 이와 정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하여 점치는 사람을 시켜 점을 쳐 보니『이 사람(남 이)은 출세는 하되 반드시 죄로 인해 죽으리라』고 하였다. 자기 딸의 명운을 점쳐보니 점치는 사람 말이『이 사람의 명은 극히 짧고 또한 자식이 없으나 복을 누리면서도 남편의 화(禍)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사위를 삼아도 좋겠다』고 하였다. 권 남이 그 말을 쫓아 남 이를 사위로 삼았다.

남 이는 나이 17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세조의 극진한 총애를 받았다. 그는 굳세고 용감하며 날쌔기가 남이 따를 수 없을 만큼 뛰어났었다. 길주 사람 이시애(李施愛)가 군사를 일으켜 반란하였다. 조정에서는 귀성군 준(龜城君俊)을 도총사, 호조판서 조석문(曺錫文)을 부총사, 허종(許琮)을 함길도절도사, 강 순(羌純), 어유소(魚有沼)를 대장으로 임명하여 토벌케하였다. 남 이는 이때 출전하여 홍원과 만령에서 싸워 용맹을 떨쳤으며 반란군을 대파하고 이시애를 사로잡아 목을 베어 개선하였다. 그 뒤 만주의 건주위(建州衛)에서 이만주(李滿住)가 명나라 조정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니 명나라에서 우리 조선에 원군으로 협공해 주기를 청해왔다. 우리 조정에서는 강 순을 정서주장(征西主將)으로 어유소를 좌대장에, 남 이를 우대장으로 임명하여 정병 일만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서 길을 나누어 건주위의 동북방면으로 쳐들어갔다. 남 이는 선봉이 되어 적진에 쳐들어가 적병을 종횡으로 무찌르고 저강 올미부(猪江 兀彌府)의 요새들을 함락시켰으며 적병이 둔취하고 있는 부락을 완전 소탕하였다. 그리고 승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큰 나무의 한 쪽을 쪼개어 『모년 모월 모일에 조선 정서주장 강 순, 좌대장 어유소, 우대장 남 이가 건주위 올미부를 토벌했다』는 전첩내용을 써서 목비를 세웠다. 조선은 정토군을 회군 개선하여 세조에게 승전 보고를 하였다. 왕은 장군들의 전공을 위로하여 봉군(封君)하고 적개공신 훈일등(敵慨功臣 勳一等)에 책록하였다.

남 이가 북쪽에서 회군할 때 시를 지었는데 이 시가 너무도 유명하다『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 다 할 것이요, 두만강의 물은 말이 마셔서 없어질 것이라, 남아로 태어나서 나이 20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한다면 후세에 누가 그를 대장부라 일컬으리오』(白頭山石磨刀盡, 豆滿江水飮馬無 男兒二十未平國, 後世誰稱大丈夫)하니 그 기개가 높고 뛰어남이 이와 같았다. 그는 나이 26세에 병조판서를 배하였다. 세조가 승하하고 예종이 즉위하니 그때 혜성이 나타났다. 남 이가 대궐 안에서 수직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혜성이 나타나는 것은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펴는 기상이라』하니 유자광(柳子光)이 이것을 몰래 듣고 이에 부연하고 허구의 말을 날조해서 남 이가 모반한다고 고변하고 또 공주와 증(蒸 : 손윗 사람과의 不倫관계)했다하여 무옥(誣獄)을 일으켰다. 선왕때부터 남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예종은 이것을 기회로 남 이를 제거하고자 유자광의 무고를 더욱 신임하였다. 남 이가 국청에 나아감에 강 순이 영상으로서 국청에 들어와 참여하였다. 남 이는 이미 혹독한 고문과 악형을 받아 정강이뼈가 부러져 있었다. 드디어 남 이가 강순을 끌어들이며 『강 순이 나에게 시켰습니다』고 자백하였다. 강 순은 『신은 본래 공명있는 집안으로 영명하신 성상의 총애를 입어 인신으로서는 최고로 높은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나이 이미 70을 넘었으니

여기에 또 무엇을 얻고자 남 이를 시켜서 모반토록 교사했겠습니까』하였다.

남 이는 다시『왕께서 아첨하는 말을 믿고 면해주신다면 어떤 사람이 죄인이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하니 왕이 다시 강 순을 국문토록 명하였다. 강 순이 연로해서 혹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여『그렇게 했노라』고 자복하고 말았다. 남 이가 웃으며 강순을 보고『내가 이때까지 자복하지 않는 것은 뒷날을 기약할 수 있을까 희망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정강이뼈가 이미 부러져서 병신으로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으니 살아서 무엇할 것인가? 나같이 나이 젊은 사람도 항차 죽음을 애석히 여기지 않는데 머리가 희 늙은이가 죽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 그래서 내가 고의로 교사 연루되었다고 한 것이오』하였다. 강 순도 또한 남 이와 함께 참형에 처하게 되었다. 강 순이『남 이야, 네가 나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 나를 끌어들여 무고하였느냐?』하고 울부짖었다. 남 이가『억울하기로 말하면 나와 당신이 같은 것이오. 당신은 한 나라의 수상으로서 나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한 마디 구원의 말도 아니하니 당신 역시 원통하게 죽음이 마땅한 것이오』하였다. 강 순이 뒤를 돌아보며『아이들을 친하면 이같은 화가 있기 쉬운 것이라 반역이라는 죄가 어떤 등급의 죄악인데 서로 희롱하듯 한단 말인가』하고 한탄해 마지 않았다. 이 옥사에서 연루된 자와(실제로는 이들과 친분있는 사람들) 그들의 처자를 다 죽이고 가산을 전부 정부에서 몰수하였다. 남 이의 나이는 이때 28세였다. 권 남의 딸인 부인은 수년 전에 먼저 죽었으니 남편의 화를 보지 못하였으며 자신도 그 끔찍한 화를 당하지 않았다.♠



옛날 이야기 ②

도둑이 양민으로

초월면 도평리 김 재 순

신라시대 어느 고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고, 한편으로는 소문난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선비는 날마다 책만 보고 있어서 조석 끼니거리가 없어서 냉수로 연명하며 살아갔습니다. 한편으로 소문난 부잣집 아들은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도둑질을 생활화 하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 자식이 도둑질을 하지 않고 착한 사람으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매일 쓸 돈을 나귀에다 실려주며 늘 타이르며 애원하였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나날을 도둑질로 일삼아 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안 들어간 집이 없어 다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훔쳐왔습니다. 도둑에게도 양심은 있는지 두 번씩은 또 들어갈 수 없어서 하루는 빠진 집이 없나 하고 생각해 보니 너무 가난한 선비의 집이라 훔칠것이 없었던 선비의 집이 생각나서 책이라도 가져올 생각으로 저녁 어두움을 틈타서 이 집 벽장속에 들어가서 선비가 잠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는 책을 보고 부인은 바느질로 서로가 말없이 밤을 새우는 것이었습니다.

벽장 속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 어느덧 첫 닭이 울고 두 홰가 울고 새벽 먼 동이 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때 부인이 조심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더니 얼마후에 돌아온 부인은 부엌에서 불을 피우더니 잠시후에 무엇을 가지고 와서 선비에게 하는 말이 "밤새도록 책 보시기에 피곤하실터인데 이것이라도 마시세요" 합니다.

그 냄새가 구수하게 도둑의 코에도 들어왔던 것입니다. 선비는 그것을 들고 한 모금 마시더니 방바닥에 살며시 내려놓고 "이것 어디서 구해왔소"하니까, 부인의 대답이 "오늘도 또 굴뚝에 연기를 내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이 또 오늘도

굶는군 하며 비웃을 것이니까 물을 길어다 솥에 붓고 굴뚝에 연기라도 낼려고 물을 길러가는데 우물 길에 보리이삭 세 개가 떨어져 있기에 아깝기도 해서 그것을 주워다가 볶아서 차를 끓인 것입니다."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비는 토막(목침)을 내어놓고 "여기에 종아리를 걷고 올라서시오"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한 마디 반항도 없이 종아리를 걷고 올라섰답니다.

선비는 부인의 종아리를 세 대를 딱 때리고 나더니 하는 말이 "내가 부인의 종아리를 왜 때렸는지 아시오"하며 하는 말이 "그 보리이삭이 비록 땅에 떨어져있다 하나 이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의 피땀으로 지은것인데 우리는 조금도 거들어 주지않고 있었으니 이것은 농부의 것인데 우리가 갖다 먹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오. 그러기에 부인의 종아리를 때린 것이오."하더랍니다.

그러니 이 부인의 "네" 하며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하는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벽장속에 있던 도둑은 그때서야 스스로 깨달으며 자신의 행동을 용서받지 못할 이 세상에서 가야만 하는 신세라고 느끼고 곧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자리에 누워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는 자식의 행동을 보는 부모가 자식에게 그 사유를 물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자식이니까 원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도 대답이 없더니 사흘만에 하는 말이 나는 이제는 저승으로 가서 죄를 용서받고 다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착한 일을 하고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부모들은 몇년동안 그렇게 말려도 고치지 못하던 도둑질이 하루 아침에 스스로 반성하고 결심하다니 너무나도 뜻 밖이라 당황하는 한편, 그 곡절을 물은 즉, 그 선비 집에서 보고 느낀 그 광경을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땅에 떨어진 보리이삭 세 개를 주워왔다 해서 종아리를 때리는 선비와 또 말없이 맞고 있는 부인의 감동적인 눈물이 자신에게 뉘우침의 원동력에 마치 기름과 같고 땅에 떨어진 것이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등등을 보고 듣고 느낄 때, 나는 마땅히 몇번이고 죽어도 그 죄값이 싸다고 생각되기에 "내가 사죄할 것은 오직 죽어야만 합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기로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하면서 두 눈에서 참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것을 지켜 본 그의 부모는 무릎을 치며 "이제는 됐다. 내 자식이 다시 탄생했고 우리 집안에 영화가 왔도다."하며 자식을 위로해 주고 일어나서 목욕하고 식사를 하게 하고 이 자식을 선비가 아니면 다시 탄생 시킬 수 없었음을 깊이 감사하

고 자기들 재산 반을 나누어서 나귀에 싣고 자식을 데리고 선비댁에 가서 선비님께 절 세번하고 가지고 간 재산을 내놓으면서 자기 자식의 행동과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선비님이 아니시면 우리 자식은 영영 버려져진 자식이었다면서 깊이 감사하다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이 재산으로 잘 살아가자고 하며 끝내 잘 살았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목전에 승리하고 영구적인 행복은 없다지만 선하고 착한 자는 최후의 승리를 하고 끝내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진리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부디 모두가 착하게 살아 가야만 할 것입니다.





친구다운 친구
-이런 친구 하나면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친구자랑으로 입에 침이 말랐다. 매일 술이 취해 들어온다. 어제는 누구와 술을 마셨고 오늘은 아무개와 놀았다며 자랑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친한 친구를 대보라고 했다. 어디 아무개, 누구 누구하며 이름을 줄줄대는데 끝이 없다.

아들도 되묻는다.

"아버지께서는 친구가 그렇게도 없으십니까?"

"나야 아무개 한분뿐이지."

듣고 있던 아들은 어이없다는 투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집에서 기르던 돼지를 잡아 거적에 둘둘 말아 싸고 새끼줄로 단단히 묶었다. 흡사 죽은 송장 싸듯이 했다.

날이 어두웠다. 때는 겨울이라서 밤바람이 차다. 아들에게 잡은 돼지를 짊어지게 하고 친하다는 아들의 친구를 찾아갔다. 문앞에 지게를 세워 놓고는 아들은 친구를 불렀다.

"이 야심한 시각에 웬일이지."

밤중에 별안간 찾아온 것이 퍽 의아스런 눈치다.

지고 온 짐을 보더니 혹시 쌀섬이라도 가지고 왔나 해서,

"아, 뭘 이렇게 가져 오느라 애를 쓰나."

하면서 반색이다.

"그게 아니구, 도와줘야겠네. 이웃사람과 싸우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다퉜는데 그만 기절을 하고 죽었어. 날이 밝기 전에 치워야겠는데 자네가 나를 좀 도와 줘."

친구는 들은체도 않는다. 다시 애걸을 했다.

"나좀 살려 주게나, 친구 좋다는 게 뭔가. 어서 삽이나 가지고 나오게. 어디 남 안보이는 데로 묻으러 가세. "

"이사람 큰일날 소리를 하네. 자네가 사람을 죽여 놓고 왜 내게 덤태기를 씌우러드나. 나 참 별꼴 다 보네."

하더니 대문을 꽉 닫아 걸고 들어가 버린다.

아들과 친하다는 또 다른 친구집을 밤이 다 새도록 찾아 다녀봤지만 모두 똑같이 등을 돌린다.

한 친구도 동정은 커녕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몰라라다. 나몰라라가 아니라 아예 살인죄에 연루될까 냉큼 가라고 야단들이다.

다음날 밤이 되었다. 이제는 아버지 차례다. 아버지가 짐을 지고 친하다는 침구네 집으로 찾아 갔다. 아버지의 사연을 들은 친구는,

"어쩌다 자네같은 착한 사람이 그렇게 되었어. 다른 사람이 알면 큰일이니 어서 묻으러 가세."

하더니 삽을 찾아서 들고 나온다.



겸손하고 교양있고 예의바른 세계인이 되는길

글로벌 에티켓 시대

20세기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문턱에 우리는 서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세기의 중반에, 세계를 향한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1년 전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회각계의 뼈아픈 노력끝에 최근들어 위기는 어느 정도 수습되기 시작한 듯 합니다. 우리는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궤도에 재진입하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졌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시선은 아직도 싸늘합니다. 우리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아직 완전한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는 우리를 겸손하지 않고 예의도 바르지 않으며, 세계인으로서의 품위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은 무례와 거짓말이 통하는 나라로 우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는 한국 노동현장의 외국인 차별을 고발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듣던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최소한의 예의와 양식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례(無禮)와 편법(便法), 작은 이익에 사로잡혀 헐뜯고 싸우는 이기심, 나 아닌 남은 모두 적으로 여기는 불신, 차 몰기가 겁나고, 오가며 눈길 한번 마주치기가 두려운 사회—이런 모습이 거울에 비친 요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번영과 퇴보의 되풀이는 역사의 냉혹한 법칙입니다. 많은 나라가 허영을 누리다가 고통을 받게되고 거기서 제도의 개선과 철저한 국민적 반성을 통해 다시 일어서곤 했습니다. 「어글리 아메리칸」이란 말을 듣던 미국도, 「이코노믹 애니멀」이란 말을 듣던 일본도 이제는 더이상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글리 코리안」의 불명예를 벗으려면 우리 자신을 고쳐서 글로벌 에티켓을 갖춘 교양있는 세계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생각입니다. 구조와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기에서 벗어나 진

정한 강국, 진정한 선진국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이 칭찬하는 우리, 외국에 나가서 존경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찾아온 외국인들이 칭찬하고, 외국에 나가서도 존경받는 한국인

조선일보는 겸손하고 예의바르고 교양있는 세계인으로 나아가는 운동을 2002년 월드컵까지 이어가려 합니다. 2002년, 우리는 월드컵에서 GNP로 우리의 10배, 근대화로는 우리보다 50년 앞선 일본과 함께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88년 서울올림픽때보다 더 원숙한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기획은 독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기자들의 경험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외국에서 듣고 보고 겪었던 참된 사람, 참된 사회의 모습들을 전해주십시오. 작은 외침이 큰 메아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외침과 메아리가 뭉쳐지면 나라를 바꾸는 커다란 변화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편지 : 100-756,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조선일보 편집국「글로벌 에티켓」담당자 앞／E-mail : newsroom@chosun.com／Fax : 02-724-5329, 5359, 5279)

──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1998.12.9 일자 ──





상례(喪禮)

□ 조상(弔喪)과 문상(問喪)

상(喪)은 「없어진다」「죽다」의 뜻이고 조(弔)는「슬퍼한다」는 뜻의 글씨이다.

그러므로 조상(弔喪)은 「죽음을 슬퍼한다」는 말이어서 죽은 이에게 그 죽음을 슬퍼해 인사하는 것이고, 문상(問喪)은 「죽음을 묻는다」는 뜻이어서 상주에게 상을 당한 것에 대한 위문의 인사를 하는 것이다.

고례(古禮)에 의한 조상과 문상을 하는 법은 죽은 이를 생전에 알았으면 죽은 이에게 조상하고 상주에게도 문상하지만, 죽은 이를 알지 못하고 상주만 알면 죽은 이에게는 조상하지 않고 상주에게만 문상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의 내외(內外)법이 엄격해서 죽은 이가 남자인 외간상(外艱喪)에는 빈소(殯所)에 조상하고 상주에게도 문상을 하며 그 때에 쓰는 손님의 방명록을 조객록(弔客錄)이라고 한다.

그러나 죽은 이가 여자인 내간상(內艱喪)의 경우에는 상주에게만 문상을 하며 그 때에 쓰는 손님의 방명록을 조위록(弔慰錄)이라고 한다.

또 조상이나 문상을 하는 시기도 성복을 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었다. 성복하기 전에는 상주가 총망중이며 시신도 완전히 갈무리하기 전이므로 조상이나 문상을 할 수 없고, 다만 손님은 호상소에 대신 인사하는 것이다.

○ 조상 · 문상하는 시기

고례(古禮)에는 상주가 성복하기 전에는 호상소에 인사하는 것으로 족했고, 성복후에라야 빈소, 즉 죽은이에게 조상도 하고 상주에게 문상도 했다. 그러나 현대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영좌에 조상하고 상주에게 문상한다.

○ 조상 · 문상의 대상

고례에는 외간상에는 빈소에 조상하고 상주에 문상했으며, 내간상에는 상주에게만 문상하는 것으로 족했다. 그러나 현대는 내,외간상을 가리지 않고 영좌에 조상하고 이어서 상주에게 문상한다.

○ 조문시의 주의사항

— 남의 상가에 조문하는 사람은 복장을 현란하게 입으면 안된다. 가급적이면 악세서리나 밝은 색깔을 피한다.

— 상가에서는 흉사시의 공수, 즉 남자는 오른손, 여자는 왼손이 위로 가게 두 손을 앞으로 모아 맞잡아야 한다.

— 상가에서는 죽은 이의 평소의 일화나 상주들의 효성을 화제로 삼아야지 가무음곡이나 잡담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 상가에서는 근엄. 애도하는 마음과 표정을 갖는다. 희희락락하거나 남과 즐기는 일을 삼가한다.

○ 상가와 상주의 주의사항

— 호상소에서는 손님을 맞이하여 안내하고 대접할 준비를 소홀하지 않게한다.

— 상주들은 지극히 슬퍼할 뿐 손님을 마중하거나 전송하기 위해 상차(喪次 : 영좌앞)를 떠나서는 아니된다.

— 남자손님은 남자상주가 있는 상차로 안내하고 여자손님은 여자상주가 있는 상차로 안내해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한다.

○ 조상(弔喪)하는 법

— 손님이 상가에 도착하면 먼저 호상소로 가서 자기가 누구라고 통성명(通姓名)을 한다.

— 호상소에서는 상주에게 『누가 왔다』고 먼저 전한다.

— 상주들이 영좌앞에서 일어나서(여자는 엎드려서) 극진히 곡한다.

— 손님이 안내받아 빈소로 들어가 공수하고 서서 극진히 곡하고 빈소를 향해 두번(여자는 4번) 절 한다.

— 죽은이가 아랫사람이면 곡만 하고 절은 하지 않는다.

— 손님이 빈소를 나온다.

요사이는 곡을 하지 않고 빈소앞에 차린 분향소앞에 꿇어앉아 세 번 분향하고 일어나서 잠시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고 절한다. 역시 죽은 이가 아랫사람이면 분향. 묵념만 하고 절은 하지 않는다.

○ 문상하는 법.

— 상주가 먼저 손님에게 절한다. 다만 손님이 맞절을 하지 않을 정도의 아

랫사람이면 상주는 절하지 않는다.

— 손님이 상주의 절에 답배한다. 상주가 아랫사람이면 손님은 답배하지 않으며 상주가 웃어른이면 손님만 절한다.

— 상주와 손님이 마주보고 꿇어 앉는다.

— 손님이 문상, 즉 위문의 말을 하고 상주가 대답한다.

- 부모의 상 : 손님이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상사말씀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대고(大故)의 말씀을 무엇이라 여쭈리까?" 라고 인사하면 상주는 "오직 망극할 따름입니다."라고 대답한다.

- 남편의 상 : 손님이 "천붕지통(남편이 죽은 슬픔)을 무엇이라 여주리까?" "상사말씀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인사하면 미망인은 "그저 하늘이 무너진 듯 하옵니다." "눈 앞이 캄캄하옵니다." "살아있는 것이 죄스럽기만 합니다."라고 대답한다.

- 아내의 상 : 손님이 "고분지통(아내가 죽은 슬픔)을 무엇이라 여쭈리까?" "상배말씀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인사하면 남편은 "그저 땅이 꺼진 듯 합니다." "앞날이 막막하옵니다."라고 대답한다.

- 기타의 상을 당한 복인에게 : 손님이 "복제말씀 무엇이라 여쭈리까?" "복제말씀 여쭐말씀이 없습니다."라고 인사하면 복인은 "오직 슬플 따름입니다."라고 대답한다.

- 아랫사람의 상을 당한 어른에게 : 손님이 "얼마나 가슴아프십니까?"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위문의 말씀 여쭐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상을 당한 어른은 "그저 제가 박복한 소치입니다." "인사 받기도 부끄럽습니다."라고 대답한다.

— 인사말이 끝나면 다시 절하는 것이 고례였으나 현대는 다시 절하지 않는다.

— 문상이 끝난 손님은 일어나서 밖으로 나온다. 공연히 상주앞에 앉아 상주를 피곤하게 하지 않게한다.

— 호상소에 들러 서로 도울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서 일을 돕는다.

— 호상소에서는 손님을 대접한다.

○ 부의금과 부조(賻儀.扶助)

— 사람의 죽음은 돌연한 일이므로 서로 최선의 부조를 하는 것이 예의이다.

— 부의금(품)은 영좌에 올리거나 상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조문이 끝난 다음에 호상소에 전달하는 것이다.

— 부의금은 봉투에 넣고 물품은 따로 물목을 적어 봉투에 넣어 전한다. 그 서식은 다음과 같다.

— 호상소에서는 모든 조문객의 이름을 조객록이나 조위록에 적는다.

— 부의금(품)을 전달한 사람은 부의록에 이름과 금(품)의 수량을 적는다.

— 부의금은 금전출납부에 올려 관리하고 부의물품은 물품수불부에 올려 관리한다.

◎부의금봉투·물목을 넣은 봉투(앞면)

賻儀 ○ ○ ○

◎부의금의 내지서식

弔慰(弔조 謹근 慰위)

賻儀金(賻부의금) ○○○○원

年 月 日

○ ○ ○(哭拜곡배)

◎부의물품의 물목서식

弔慰(弔조 謹근 慰위)

賻儀品目(賻부의품목)

一、白紙(백지) 一卷(권)

一、양초 一匣(갑)

年 月 日

○ ○ ○(哭拜곡배)

○ 제문을 지어 읽기도 한다

— 손님은 빈소에 간략한 주과포를 자기가 차려서 올리거나 아니면 주과포를 차리지 않더라도 죽은 이를 애도하며 기리는 제문.조사(祭文.弔辭)를 지어 읽기도 한다.

— 제문의 서식은 일반 축문의 형식을 준용하는 바 다음과 같다.

"아뢰나이다(고합니다)

○○년○월○일에 (적당한 자기소개)는 ○○○○○(죽은이의 표기)영전에 감히(삼가) 고하나이다"

서두를 위와 같이 쓰고 애도 추모하는 내용을 간절하게 쓰면된다. 끝의 문장은 "삼가 술과 과실을 차려 드리며 간절히 애모하옵는 예를 드리옵니다. 흠향하시옵소서"라고 맺는다.

□ 문상(聞喪)과 분상(奔喪)

아들이나 딸이 집을 떠나 객지나 시댁에 있으면서 부모의 상을 당하는 일도 있다. 그런 경우에 부모의 상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을 문상(聞喪)이라 하고. 소식을 듣고 부모가 돌아가신 곳(집)으로 달려가는 일을 분상(奔喪)이라 한다.

더러는 부모의 상을 알고서도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옛날이라면 전쟁터에 있거나 귀양가서 적소(謫所)에 있거나 멀리 사신으로 가서 있으면 상을 당해도 가지 못할 것이었고, 외국에 있거나 기타 피하지 못할 사정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다.

○ 상을 알면 곡한다. 문상(聞喪)

— 인편에 부모의 상을 알게되면 먼저 그 곳을 향해 극진한 슬픔으로 곡을 한다.

—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묻고 다시 곡한다.

— 현란한 옷을 벗고 소복으로 갈아 입으며 머리를 풀고 다시 곡한다.

— 현대도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즉시 넥타이, 악세서리 등을 풀고 화장을 지운 다음 우선 집이 있는 곳을 향해 묵념을 한다.

비록 전화나 전보로 소식을 들었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 죽음을 슬퍼하는 자식의 도리이다.

— 시집간 딸이 친정부모의 죽음을 듣더라도 그렇게 한 다음에 남편과 시부모에게 사실을 알리고 뒷일을 상의할 것이다.

○ 서둘러 집으로 간다. 분상(奔喪)

—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갈무리해 남에게 맡기고 길을 떠난다.

— 고례(古禮)에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밤길을 가지말고 새벽부터 어두울 때까지만 가라고했다. 우선 몸을 보전하는 것이 효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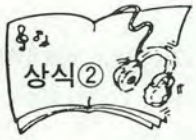
— 현대에도 그 정신을 살려 무리한 교통편을 이용하면 안되며 지나치게 서둘러도 옳지 않다.

— 중간에서도 슬픔이 북받치면 슬프게 곡한다. 현대에도 애써 슬픔을 참을 일은 아니다. 슬프면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아름답다.

— 집에 도착하면 먼저 시신을 모신 방으로 가서 재배(여자는 4배)하고 극진히 곡한다. 기타는 초종의 예에 따른다.

— 만일 장례를 치른 후에 알고서 돌아오게 되면 묘지로 먼저 가서 절하고 곡한 다음에 집으로 와서 상복을 챙겨입는다.

— 다른 사정으로 집에 돌아오지 못할 때는 있는 장소에서 상례의 예에 따라 근신하며 애도해 홀로라도 자기가 상주로서 행할 절차를 한다.



성격파탄의 주범은 과잉보호다

강사 : **최 남 규**
('엄마 만큼만 크는 아이')저자

□ 과잉보호형 부모

① 철두철미한 완벽주의
② 자녀에 대한 사랑과 의무감이 강함
③ 집안일도 잘하고 자녀의 생활을 일일이 계획하고 지시하며 가족관리를 완벽하게 해 간다.
④ 자녀에 대해 지나친 관심과 걱정을 하며 소심하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을 말린다.
⑤ 자녀를 과대평가 한다.
⑥ 자녀의 사고와 행동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도 못하고 자녀를 가장 잘 기르고 있다고 자만한다.
⑦ 자녀의 욕구는 경제적으로 다소 무리가 되어도 불편없이 만족시켜 주고 자녀의 모든 일을 대신해 주며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
⑧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을 기뻐한다.

□ 과잉보호의 결과

① 자기중심적, 이기적이며 효심도 부족하다.
② 의지가 약하고 투지력이 부족하며 안일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한다.
③ 독립심이 부족하고 판단력과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지적, 신체적 발달이 뒤짐.
⑤ 소심하고 인내심과 자재력이 약하여 욕구와 감정관리를 잘 못한다.
⑥ 사고력과 창의력이 부족하며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암기하고 모방한다.

⑦ 남을 이해하려는 도량이 부족하고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모두 적대시한다.
⑧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원만하지 못하여 소외감과 열등감을 갖는다.
⑨ 정서적으로 동요되기 쉽고 묵비권도 행사한다.
⑩ 무기력, 무절제하다.

□ 과잉보호를 하지 않으려면

① 부모 자신이 마음이 크고 대범하여 용기와 담력이 있어야 하고 모험이 필요하다.
② 주는 사랑과 함께 자르는 사랑이 필요하다.
③ 지나친 보호와 걱정과 간섭을 말 것.
④ 실패와 시행착오의 경험을 겪으며 배우게 해야한다.
⑤ 자녀의 사고와 행동영역을 침범하지 말 것.
⑥ 참고 기다리며 견디게 해야한다.
⑦ 부모가 그린 인간형에 맞추어 기르려 하지 말 것.
⑧ 성장과정속에 적당한 장애와 고통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

□ 자녀와의 대화기법

① 청유문(請誘文)을 많이 사용
② 긍정적인 표현과 대안제시
③ 현재의 문제로만 문제로 삼을 것
④ 나 메시지(I Message)…간단한 글로 부모의 생각을 전달
⑤ 행동표현 메시지(Do Message)



건강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10가지 방법

1.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난다.

매일 출근 시간에 쫓겨 허둥대지 말고 10분 일찍 서둘러 본다. 훨씬 여유로운 하루를 준비 할 수 있다.

2. 힘들수록 멋을 낸다.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크면 클수록 반대로 외모에 신경을 쓴다. 산뜻한 헤어스타일, 새옷, 다소 과감한 엑세서리 등은 주위사람의 기분도 상쾌하게 해준다.

3. 거울을 보며 마음을 비운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는 명상을 통해 털어버린다. 자기만의 공간에서 거울보면서 자신감을 불어 넣는 자기 암시법도 좋다.

4. 조깅 등 운동을 한다.

이른 새벽 상큼한 공기를 마시면서 달리면 체력도 좋아지고 삶의 의욕도 생긴다. 또 축구, 배구등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운동은 건강한 피로감을 안겨준다. 운동 후 목욕하고 잠자는 것은 스트레스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5. 개인차를 인정한다.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거나 매사에 서로 비교하는 태도는 스트레스만 가중시킨다. 나름대로 소신 있게 행동하는 의연함이 필요하다.

6.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에게나 의논한다. 터놓고 의논할 친구를 만나면 큰 위안이 된다. 대화도 좋고 연극이나 영화를 보는 일도 좋다.

7. 적극적으로 발산한다.

고민거리나 속터지는 상황은 그때 그때 풀어버린다. 스트레스는 소리지르고 접시를 깨서라고 확실히 발산시킨다.

8.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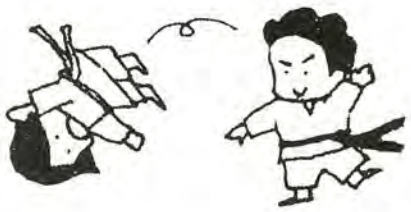
배꼽이 빠지는 우스운 코메디나 슬픈 영화, 공포영화 등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9. 가끔 도심을 탈출한다.

도심을 떠나 땅과 풀내음이 있는곳으로 가면 닫힌 마음이 열리고 사소한 일에 대한 집착도 떨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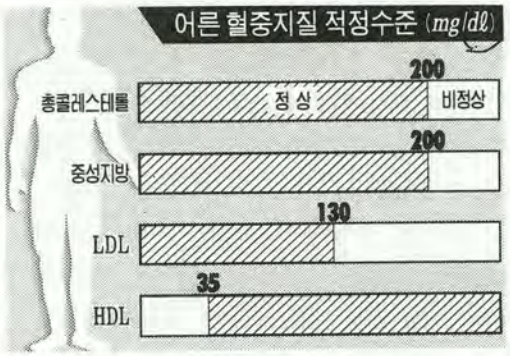
10. 우선 순위에 따라 행동한다.

걱정거리를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종이에 구체적으로 적어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높으면 성인병위험 적게 먹고 술 삼가해야……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 보면 총콜레스테롤치는 정상인데 고밀도 콜레스테롤(HDL)이나 중성지방이 비정상적이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림의대 한강성심병원 윤종률(尹鍾律·가정의학과) 교수는 『이 때도 높은 총콜레스테롤치와 마찬가지고 심장질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성지방=중성지방은 일종의 저장 에너지다. 음식을 통해 섭취해 쓰고 남은 에너지는 중성지방의 형태로 보관되며, 운동할 때 1차적으로 소모된다.

따라서 중성지방이 너무 높은 경우엔 각종 성인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으며, 심장질환 위험도 높하진다.

중성지방은 200mg／dℓ 이하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이 높게 나타난 경우엔 우선 검사 12~14시간 전의 식사-음주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홍선관(洪聖寬·내분비내과) 교수는 『중성지방은 음식, 특히 밥과 같은 곡류에 의해 매우 만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도 식사 12~14시간 이전에 검사를 하면 중성지방이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중성지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엔 우선 술을 절제하고 소식(小食)을 해야한다. 서울의대 박영배(朴永培·순환기내과) 교수는 『중성지방은 약물치료를 하지 않고도 비교적 쉽게 떨어뜨릴수 있다.』며 『금주와 소식,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갱년기 여성이 갑자기 중성지방이 높아진 경우는 폐경이 중요한 원인이다. 여성호르몬 대체요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을 분해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진 인슐린이 제 역활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

있을 때도 중성지방이 올라간다.

◆고밀도 콜레스테롤=「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HDL은 말초조직이나 혈관 등에 있는 지방을 간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결국 지방의 분해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HDL은 35㎎／dℓ이상인 게 정상이며 높을수록 좋다. HDL이 낮은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역시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과 관계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두잔의 음주가 HDL수치를 다소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영배교수는 『HDL을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상인도 '약물치료'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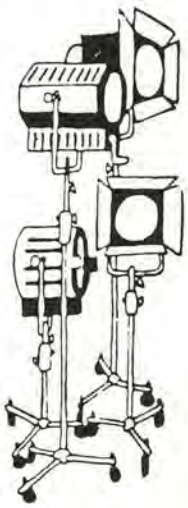


정상인이라도 총콜레스테롤치가 조금이라도 높을 경우 약물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의학협회지(JAMA) 최신호는 정상인도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스태틴(statin)계약물을 복용할 경우 심장질환 발생이 40% 정도 감소한다는 「공군-텍사스주 심장-동맥경화예방 연구」 결과를 실었다. 미국 텍사스주 주민 6,605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 따르면 총콜레스테롤치가 180～260㎎／dℓ(정상범위에 가까운 정상인)인 사람을 대상으로 5년간 스태틴계 약물을 투여한 결과, 그렇지 않은 비교그룹에 비해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급사등의 발생이 약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상인의 가장 좋은 총콜레스테롤치 범위는160～200㎎／dℓ로 알려져 있다.

경희대병원 송정상(宋政相·순환기내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정상인이라도 콜레스테롤치가 최적치를 상회하는 경우 스태틴계 약물을 복용하면 허혈성 심장질환을 크게 예방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여서 주목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상인이 모두 약물 치료에 매달릴 경우 엄청난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므로 전문의사가 치료대상을 잘 선별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혈 압 조 절

가벼운 고혈압 환자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만 혈압이 올라가는 「경계성 고혈압」 환자는 먼저 식이조절-운동요법 등의 비약물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혈압약은 한번 복용하면 평생 복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 내과 이원로(李元魯) 교수는 『경계성 고혈압 환자는 대부분, 경증 고혈압 환자는 20% 정도가 약물없이 혈압조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식이요법의 핵심은 저염식(低鹽食)-저열량식-저지방식. 염분이 혈압을 상승시킨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 염분 섭취를 하루6g이하로 제한한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비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중도 줄여야 한다. 지방은 직접 혈압을 높이지는 않지만 고혈압으로 초래된 동맥경화증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지방의 섭취도 줄여야 한다는 게 경희대병원 내과 배종화(裵鍾華)교수의 지적이다.

오전시간 피해 유산소운동을

고혈압 환자에게 적당한 운동은 걷기와 달리기, 등산, 에어로빅, 수영, 자전거타기 등의 유산소운동이다. 골프도 좋다. 그러나 역기를 드는 등의 웨이트트레이닝은 순간 수축기 혈압이 350mmHg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좋지 않다. 서울중앙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진영수(陳英洙) 교수는 『운동량에 따른 혈압과 맥박의 변화를 체크한뒤 운동법을 처방받아야 한다』며 『수축기 혈압이 180mmHg 확장기 110mmHg 이상인 사람은 반드시 혈압약으로 혈압을 낮춘 뒤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오전 7~10시는 혈압이 높아져 심장 부담이 늘어나는 시간이므로 이 때는 운동을 피하는 게 좋다』며 『운동을 할때는 매회 30분 이상씩, 적어도 주 3회 이상 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환자는 커피 자제해야 5잔 마시면 5mmHg 상승

고혈압 환자는 커피를 피하는 것이 좋다.

의학전문지 「심신의학」최신호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더함 소재 듀크대학 정신과의 제임스 레인교수는 19명에게 하루 5백㎎의 카페인(커피 4~5잔에 해당)을 알약 형태로 섭취하게 한 결과 1백㎎(커피 한잔에

해당)을 섭취하게 한 사람들 보다 혈압이 평균 5mmHg 상승했다고 밝혔다. 레인 교수는『15분 간격으로 체크한 결과 혈압은 카페인 섭취 한시간 이내에 상승, 하루 종일 지속됐다』고 말했다.

현재 혈압 5mmHg 상승은 최소한 뇌졸증 위험 34%, 심장질환 위험이 21%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험대상자는 37세 전후로 정상혈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밖에 이들은 삼장박동수가 분당 3회 정도 증가했으며 더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 매

최근 치매도 초기에 빨리 치료할 경우 어느 정도 증상개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치매치료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경희대병원 장대일(張大一・신경과)과)교수의 도움으로 치매 발병 초기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 10가지를 소개한다.

①전화번호나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②며칠전 들었던 얘기를 잊어 버린다.
③이미 한 일을 잊어 버리고 다시 한다.
④가스 불 끄는 것을 잊거나 음식을 태운 일이 있다.
⑤남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⑥갈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⑦신문-잡지를 읽고도 줄거리를 파악하지 못한다.
⑧TV에 나오는 이야기를 따라하기가 힘들다.
⑨자주 보는 친구나 친척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다.
⑩물건을 항상 두는 장소를 잊어 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찾는다.

우유-치즈 등 예방에 도움

뇌 노화 억제 식품



나이 들어 알츠하이머에 안걸리려면 엽산과 비타민 B12,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다.

영국 옥스포드대학 연구팀은 신경학 학술지 「아카이브스 오브 뉴롤로지」 10월호 발표 논문을 통해 알츠하이머 환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호모시스테인」의 혈중 농도가 정상인에 비해 훨씬 높은며, 엽산 비타민 B12는 크게 낮았다고 보고했다. 알츠하이며 환자 76명과 정상인 108명을 3년간 관찰한 이 연구에서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높을수록 뇌 조직이 많이 위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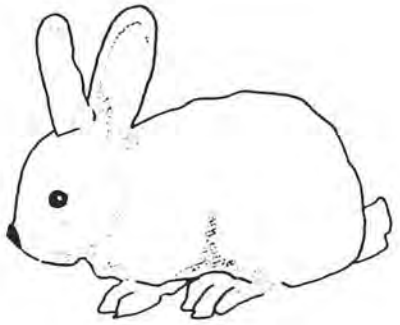
연구자들은 『호모시스테인이 알츠하이며의 결과 호모시스테인의 농도

가 높아졌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호모시스테인은 최근 동맥경화나 뇌졸증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규명됐으며, 엽산이나 비타민 B 12를 투여하면 줄일 수 있다.

한편 최근 「미국 노인학회지」에는 비타민 E가 뇌의 노화를 억제하며, 인식능력을 높힌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50~75세의 성인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체내 비타민 E농도가 높을수록 인식능력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전에 매일 2,000 ㎎의 비타민 E를 복용하면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지연시킬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엽산은 푸른 잎 채소, 우유, 치즈 등에 많다. 비타민 B 12는 육류와 우유, 저린 생선, 굴, 새우, 게 등에 많으며, 비타민 E는 식물 씨앗과 우유, 계란 노른자 등에 풍부하다

조선일보에서 발취



건강⑤

수돗물 불화사업의 필요성

광주군 보건소

먹는물에 불소이온이 결핍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적당한 량의 불소이온이 함유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치아건강이 훨씬 좋다.

이는 먹는물에 적당량의 불소이온이 함유되어 있으면 이 불소이온이 치아우식증(충치)의 발생을 막기 때문이다.

수돗물불화사업이란 수돗물에 불소이온을 적정한 수준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이다.

개인의 경제수준이나 교육수준 사회적 지위등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충치예방효과를 가져오는 보건사업에서 가장 효과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불소자체는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고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며 지각에서 13번째로 형석 빙정석 및 인회석 등의 광물질에 고체형태로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원소이다.

수돗물에 함유된 불소이온이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작용은

첫째, 입안으로 들어온 불소이온이 위장관에서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턱뼈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치질과 결합하여 충치에 강한 치질을 만들어 준다.

둘째, 입안에 들어온 불소가 치아에 직접 작용하여 미세하게 생긴 충치를 원상회복시켜 준다. 즉 탈화된 치질을 재석회화 시킨다.

셋째, 치아우식증에 관여하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위의 3가지 불소이온의 작용으로 충치의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수돗물불화사업은 치아우식예방효과가 50-65%로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1995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학생 100명당 치아우식증(충치)등 치아질환자가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시력, 충농증의 순이었다.

년령이 많아질수록 고가의 가공의치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주로 치아우식증(충치)과 치주병(잇몸병) 때문이며 우리나라 사람에서 치아를 뽑는 원인으 약87%가 치아우식증 때문이라 한다.

1981년 진해시가 그리고 1982년에 청주시를 시발로 경기도에서도 과천시 남양주시가 기히 수돗물불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우리 광주군도 1998년 12월 11일 불소화시설을 완료하여 4개읍면 65천여명이 불소화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현재 추가 증설되고 있는 6만여톤의 정수시설에도 불소화를 추진할 것이다.

수돗물불소화사업은 국제보건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와 대한치과의사회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개인의 구강관리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 광주군은 예방효과가 확실하고 경제성이 높으며 보건사업중에서도 공공성이 높은 수돗물불화사업을 추진한 계기가 되었다.



건강⑥

늙으면 설치지 말고…

늙은이가 되면 설치지말고
미운소리 우는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릴랑 하지도 말고 조심조심 일러주고
알고도 모르는 척 어수룩 하소. 그렇게 사는것이 평안하다오.

이기려하지 마소
져 주시구려.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라오.

돈, 돈 욕심을 버리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 가졌다 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
많은 돈 남겨 자식들 싸움하게 만들지말고
살아 있는 동안 많이 뿌려서 산더미같은 덕을 쌓으시구려. 언제나 감사함을 잊지를 말고 어디서나 언제나 고마워요.

그렇지만 그것은 겉이야기. 정말로 돈을 놓치지말고 죽을때까지 꼭 잡아야 하오.
옛 친구 만나거든 술한잔 사주고 손주보면 용돈 한푼 줄 돈 있어야
늘그막에 내몸 돌보고 모두가 받들어 준다나. 우리끼리 말이지만 사실이라오.

옛날 일들일랑 모두다 잊고 잘난체 자랑일랑 하지를 마소.
우리들의 시대는 다 지나갔으니 아무리 버티려고 애를 써봐도
이몸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소.
그대는 뜨는 해
나는 지는 해.
그런 마음으로 지내시구려.
나의 자녀 나의 손자 그리고 이웃 누구에게든 좋게 뵈는 늙은이로 살으시구려.
멍청하면 안되오
아프면 안되오.
늦었지만 바둑도 배우고 氣(기)체조도 하시구려.
아무쪼록 오래 오래 살으시구려.

삼성경제연구소
대표이사 최 우 석

내고장 소식

'98민선자치 제2기 광주군정 추진 주요성과

○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종합분석 결과 전국 군단위 1위
-12만 광주군민 모두가 알뜰한 살림살이로 이루어낸 성과-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2만 광주군민을 위한 의견이 수렴된 성과-

○ '98 광주분원 왕실도자기 축제의 성공적 개최(60만명 입장)

○ 100년 대계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경안 4배, 곤지암5배증가)

○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13억원 3만명)

○ 소하천 정비사업. 전국 최우수

○ 경기도 시·군 도시행정평가 최우수

○ 경기도 시·군 물가관리 평가 최우수

○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정리. 우수

○ 경기도 세무조사 실적평가. 우수

○ 경기도 옥외 광고물 관리평가. 장려상

1998년도 광주군 문화상 수상자

구분 / 부분	성 명	주 소	공 적 요 약
예 술	이강세 (남53)		-초월면 대쌍령리 도예연구소(우출요)를 설립하여 26년간 도예연구 및 개발로 광주도자기 발전에 기여함. (현재는 태천요) -광주군 도예협회 구성 및 발전에 기여함. -프랑스 파리에 동양미술연구소를 설치하고 한국 도자기 기술과 한국의 발전상등 홍보. -경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객원교수로, 도예학을 전수 -전시회 40여회 개최.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군정과 면정시책에 적극호응하고 헌신 참여.
지 역 사 회 봉 사	박광식 (남40)		-95년도 회덕리 이장에 취임한 이래 부락 발전에 남다른 노력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소신껏 임무를 수행. -경로 효친 사상이 투철하여 노인정과 불우노인들을 수시로 방문하여 불편한 점을 개선해 드리고 있으며, -매년 5월8일 어버이날에는 관내 웃어른 300여명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4년째 실시해 오고 있으며, -최근 인근도시의 행락객들이 급격히 몰려들어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으므로, 매월 1회씩 노인회원 50여명과 함께, 자연정화활동을 계속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진력하고 있으며, -반상회시에는 이웃 주민들을 초청하여 소박한 저녁상을 함께 나누며 가정,이웃간의 친목을 통해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비가 올 때는 부락을 2-3회씩 순찰하면서 피해예방에 힘써 부락의 파수꾼의 역활을 하는 등 봉사정신이 투철함

구분 / 부분	성 명	주 소	공 적 요 약
교 육	남기춘 (남64)		-광주읍에서 출생하여 45년간을 광주지역 초등학교에서 2세 교육에 헌신함. -교육연구 및 연찬에 정진하고 아름다운 학교가꾸기와 학생체육 및 영어교육에 특단의 노력을 기우려 옴. -도곡초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인간교육의 기본이 되는 인성교육에 노력하여 큰 성과를 거두어, 동교를 경기도 지정 인성교육 시범학교로 육성하는데 헌신함.
체 육	이용관 (남53)		-1984년도부터 14년간에 걸쳐 경화여자 정보산업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체력증진과 특기양성에힘써 왔으며, -학교에 테니스부를 창설하고 탁월한 지도능력으로 우수한 팀을 육성하므로써, 테니스 명문교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게 하는 등 체육진흥에 크게 기여함. -지역사회 체육행사 때마다 희생적으로 협조 봉사하여 지역체육발전에 기여함.
효 도	이분재 (여46)		-1978년도에 신학승과 결혼하여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며 남편과 3남매의 뒷바라지를 극진히 하여 화목한 모범 가정을 이룩함. -80세가 넘은 시아버님이 노인성 질환인 신경통과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생계가 넉넉치 못한 환경속에서도 지극 정성으로 모시며 친부모님처럼 공경하여 경로효친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남편 내조에도 힘쓰고 이웃에는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는 모범적인 주부임.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명단

□국회의원

－정영훈, 국민회의 하남광주지구당 위원장 사)761-2727
자)765-1010

□도의원

－임 성 균 광주읍 경안리 1-10 764-4626, 3786～7
－박 혁 규 실촌면 곤지암리 444 763-2701, 764-4769
－류 덕 선 오포면 신현1리 150-7 (0342) 719-2083

□광주군의회 의원

구분 / 직위	선거구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비고
의원	광주읍	구이모(具利謨)				
의장	오포면	최정민(崔正旻)				
의원	초월면	조억동(趙億東)				
의원	도척면	김학서(金學書)				
의원	퇴촌면	양승균(梁承均)				
의원	남종면	김성일(金成一)				
부의장	중부면	김영옥(金榮玉)				
의원	실촌면	성기선(成基善)				

❑ 문화원 5대 사업 실적 개요

사 업 명	세부 사업명	비 고
1. 향토 고유문화의 보존전승	1-1 제27회 광주군민의 날 기념 및 문화의 날 행사	○ 제27회 광주 군민의 날 기념 및 문화의 날 행사 · 일시 : 98. 9. 28(월) · 장소 : 광주 문예 회관 · 내용 : 1부-광주문화상 시상, 어머니 합창단, 광주군 국악봉사단 민속무용 공연, 경기민요 2부-사물놀이(매곡, 경안초등학교), 풍물놀이(곤지암, 경안농협, 광주군풍물패), 사진전시회
	1-2 사진 영상의 해 기념사업 (사진반 강좌. 사진전시회)	○ 사진반 강좌 · 일시 : 98. 3. 20 ~ 9. 23(6개월) · 장소 : 광주 문화원 · 내용 : 사진강좌 및 전시
2. 지역문화의 개발활동	2-1 가을가족 음악회	○ 가을 가족 음악회(노래자랑) · 일시 : 98. 10. 24 · 대상 및 인원 : 각 읍·면별 가족 신청자 40명 · 장소 : 남한산성
	2-2 남한산성 문화제	○ 남한산성 문화제 · 일시 : 98. 10. 23 ~ 10 .25 · 장소 및 인원 : 남한산성 20만명 · 내용 : 도립예술단 국악 및 무용공연, 광주군 국악봉사단 공연, 광주군 풍물패 공연, 가

사 업 명	세부 사업명	비 고
		을가족노래자랑, 남한산성 소주 시연, 전통음식 만들기 및 시식, 줄타기, 전통혼례식, 우리농산물 직판매, 남한산성 사진 전시회, 남한산성 대동굿
	2-3 해공 신익희. 김윤경선생 추모행사	○ 해공신익희.김윤경선생 추모행사 · 일시 : 98. 5. 5 · 장소 : 남한산성 입구 해공추모비, 김윤경 선생 묘소 · 내용 : 추모비 참배 및 헌화
	2-4 순암 안정복 선생 추모행사	○ 안정복 선생 묘소 참배 · 일시 : 98. 11. 16 · 내용 : 헌화 및 참배
3. 지역문화의 교육활동	3-1 문학 강좌	○ 문학 강좌 · 일시 : 98. 12. 9 14:00 ~ 16:00 · 장소 : 광주 문화원(대공연장) · 강사 : 구중서(수원대 교수) · 참석 대상 및 인원 : 임원 및 회원, 너른 고을 문학회원, 광주문인협회원
	3-2 가정 교양 강좌	○ 가정 교양 · 일시 : 98. 11. 17(화) 10:00 · 장소 : 조광회관 · 강사 : 전보삼 신구대 교수 · 참석 대상 및 인원 : 문화원임원, 여성회원, 각단체부녀회원, 광주종고, 경화여자정보산업고 296명
	3-3 다도와 전통 예절	○ 다도와 전통 예절 · 일시 : 98. 11. 27(금) · 장소 : 조광회관

사 업 명	세부 사업명	비 고
		· 강사 : 예지원 정옥희 · 참석 대상 및 인원 : 임원 및 회원, 부녀회원 130명
	3-4 한문 서예 강좌	○ 한문 서예 강좌 · 일시 : 98. 3. 20 ~ 11. 10 · 장소 : 광주 문화원 전시실 · 강사 : 김일성 · 참석 대상 및 인원 : 신청접수자30명
4. 홍보 전시활동	4-1 광주문화 9호지 발간	○ 광주문화 9호지 발간
	4-2 안내판 설치	○ 안내판 설치 · 내용 : 서흔남 묘비 이전 및 신립 장군 묘 입구 표시 · 장소-묘비이전 : 중부면검북리에서 남한산성지수당 앞으로 이전 -안내판 설치 : 실촌면 신대리 신립 장군묘 입구
5. 향토 사료의 보존전승	5-1 관내 유적지 순례	○ 관내 유적지 순례 · 일시 : 98. 6. 30 · 대상 : 문화원임원 및 회원, 서예반, 사진반 수강생 100명 · 장소 : 해공 신익희선생 묘소, 4 · 19국립묘지, 정다산 선생묘소
	5-2 관외 유적지 순례	○ 관외 유적지 순례 · 일시 : 98. 10. 28(수) 08:30 · 장소 : 임진각, 제3땅굴, 도라전망대, 자운서원, 행주산성 · 대상 및 인원 : 문화원 임원 및 회원 130명

사 업 명	세부 사업명	비 고
	5-3 청소년 유적지 탐방	○ 청소년 유적지 탐방 · 일시 : 98. 8. 18(수) · 장소 : 강릉 오죽헌 · 대상 및 인원 : 경화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80명
	5-4 옛길찾아 도보 탐방 대회	○ 옛길 찾아 도보 탐방 · 일시 : 98. 11. 12 (목) 09:30 · 장소 : 오전리→새오개→회덕리 · 대상 : 문화원임원 및 회원, 산악회원 · 집결장소 : 광주 공설운동장 고수부지

□ 광주군 문화재 보유현황

문화재 현황 총괄

구분 / 계	국가지정			경기도지정				문화재 자료	향토 유적
	소계	보물	사적	소계	유형	무형	기념물		
29	2		2	22	8	2	12	4	1

국가지정 문화재

(단위 : ㎡)

종별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년월일	보호구역
사적	57	남한산성	중부면 산성리 산일원	63. 1.21	530.354
〃	314	광주조선백자 도요지	광주,초월,실촌,남종,중부, 퇴촌(7개읍·면 83개소)	85.11. 7	382.216

도 지정 문화재

종별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년월일	보호구역
유형 문화재	1	수어장대	중부면 산성리 815-1	72. 5. 4	2,380
	2	숭열전	중부면 산성리 717	72. 5. 4	6,830
	3	청량당	중부면 산성리 815-2	72. 5. 4	248
	4	현절사	중부면 산성리 310-1	72. 5. 4	5,217
	5	침괘정	중부면 산성리 591-1	72. 5. 4	3,478
	6	연무관	중부면 산성리 400	72. 5. 4	2,569
	88	유정리 좌불상	도척면 유정리 222-7	79. 9. 3	2,569
	118	신경유선생 영정 및 공신록권	도척면 진우리 726	79. 9. 3	
무형 문화재	9	줄타기	초월면 무갑리 309	91.10.21	
	13	광주산성소주 제조기능	실촌면 열미리 145	94.12.24	
기념물	21	맹사성선생묘	광주읍 직리 산27	74. 9.26	4,225
	33	최항선생묘	퇴촌면 도마리 산 11-1	76. 8.29	4,116
	90	허난설헌묘	초월면 지월리 산 29-5	86. 5. 7	66,526
	95	신립장군묘	실촌면 곤지암리 1-1	86. 5. 7	11,636
	98	김자수선생묘	오포면 신현리 120-1	88. 3.21	62.8
	101	김균선생묘	오포면 능평리 89-1	88. 3.21	62.8
	111	망월사지	중부면 산성리 14	88.12.12	7,528
	119	개원사지	중부면 산성리 195-5	89.12.29	9,821
	134	신익희생가	초월면 서하리 160-1	92.12.31	2,245
	145	신흠묘역및신도비	퇴촌면 영동리 산 12-1	92. 3.31	
	164	남한산성 행궁지	중부면 산성리 일원	97. 5.27	
	166	의안대군 묘역	중부면 엄미리 산 152	98. 4.13	
문화재 자료	14	지수당	중부면 산성리 124	83. 9.19	3,843
	15	장경사	중부면 산성리 22-1	83. 9.19	11,977
	53	추곡리 백련암부도	도척면 추곡리 65	84. 9.12	460
	63	곤지암	실촌면 곤지암리 453	85. 6.28	277

문 화 유 산 헌 장

문화 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 문화의 자산이다.
유형의 문화재와 함께 무형의 문화재는 모두
민족 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 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 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은
곧 나라 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 사랑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온 국민은 유적과 그 주위 환경이 파괴·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 유산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 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 줄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 유산 헌장을 제정한다.

1. 문화 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1. 문화 유산은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 문화 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1. 문화 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학교·사회 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져야 한다.
1.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 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1997년 12월 8일

편 집 후 기

무인년에 불어 닥친 경제 난국속에서 각계 각층이 고통을 겪으면서 불안한 심정으로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런중에 「광주문화원」은 7월에 임직원이 개선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올해는 당초에 계획된 사업목표만을 달성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외의 유적지 탐방 특히 자원서원과 해주산성 탐방에서 많은 역사현장을 견학한 사실들은 인상에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문화지편집과 향토문예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새해에는 보다 알찬 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8. 12

사 무 국 장 박 광 정
전 사무국장 최 종 현

廣州文化 第9號 〈비매품〉

인쇄 1998년 12월 30일
발행 1998년 12월 30일

발행인 : 원 장 박용재
편 집 : 사무국장 박광정
전사무국장 최종현
감 수 : 상임고문 이범승

인 쇄 : 回想社
대전 광역시 동구 중앙동 47-4
전화 (042)253-9881~3
서울지사 (02)336-6738

발행처 : 광주문화원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경안리 산9-8
전화 (0347)764-0686 761-0315
FAX (0347)764-0683

이 책은 국비및 지방비의 보조와 문화원의 기금으로 발행하였음

뜻모아 경제회생
힘모아 경제발전



— 상공인 지원 주요사업 —

- ○조사연구사업
- ○국제협력사업
- ○상공업진흥사업
- ○기능보급검정사업
- ○기업혁신운동
- ○구인구직무료안내
- ○세무상담실운영
- ○노무상담실운영
- ○실업대책위원회운영
- ○중소기업경영자문단운영
- ○일반무역관계증명발급

河廣商工會議所

전 화 (0347)761-90900~2

팩 스 (0347)761-8486